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6년(서기 2002년) 9월 11일 수요일 (주간) 제386호

山村한과
전통 사찰식으로 만든
주문전화 : 02)720-8829 / 요청몰 : www.sanchon.com

법석 초대 **보봉 스님** 태고종 원로회의 부의장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하는 범음이 지극하면 부처님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불교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거울삼아 마음을 수행하는 종교입니다. 실천을 해야 합니다. 실천이 따르지 않는 가르침은 공허할 뿐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12 · 13면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조계사의 후원프로그램 도입

4일 오후 조계사 종무실. 한 신도가 '대웅전 보수불사 후원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담당 종무원으로부터 몇 마디 설명을 듣고 나서는 "편리하네요"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종무원은 최근 대웅전 보수불사를 앞두고 불사금을 모금하기 위해 도입한 후원 프로그램이 신도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사가 도입한 이 후원 프로그램은 '넷페이(NETPAY)' 라는 것이다. '넷페이'는 불자들이 후원 신청서에 자신의 전화번호와 후원약정금을 기입해 제출하면, 매월 약정한 후원금이 전화요금 고지서에 합산돼 청구되는 방식으로, '위컴(wecomm)' 이라는 후원프로그램 업체에서 최근 개발한 것이다.



이 방식은 지정된 번호(700서비스)로 전화를 해야만 후원금이 납입되는 ARS 방식과는 달리, 매월 약정한 후원금이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시스템으로 훨씬 효과가 높다고 위컴 측은 설명한다. 조계사도 간편한 방식에, 매월 일정액을 부담없이 후원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도입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복지시설이나 시민운동단체, 사찰 등 불교계의 수많은 단체들이 불자들의 후원(보시)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후원프로그램의 개발과 도입에는 관심을 쏟지 않고 있다. 기껏해야 자동이체나 무통장 입금에 의존하고 있는 정도다. 그러면서도 불자들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불만만 늘어놓기 일쑤다.

위컴의 이명덕 사장은, 현재 위컴이 제공하고 있는 ARS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250여 단체 가운데 기독교계는 60여 곳이 넘는 반면, 불교계 단체는 4곳뿐이라고 밝혔다. 또 불교계의 월 평균 후원 건수도 기독교계와 비교해 20~30% 선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후원문화가 발달하려면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불교계는 아직까지 이런 것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후원자들이 불편이나 부담을 느낀다면 후원은 오래가지 못한다. 모금함을 돌리거나 무통장 입금과 같은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후원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어렵다. 조계사의 '넷페이' 도입은 새로운 방식으로 후원문화를 정착시켜보겠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 할만하다.

한명우(취재 1부 차장)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불교달력

1. 불자님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불교달력을 사용하십니까?
   ①사용한다 ②사용하지 않는다
2. 불교달력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①사진(그림)이 좋아서 ②음력을 보려고
   ③보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길 수 있어서
   ④불자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서

설문 참여: 9월 12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87호 9면에 싣습니다.

"지구를 정토로" 국제연대 활발

INEB총회(내년 7월) 사키야디타대회(2004년) 청년포럼(내년 12월) 한국서

정토회 재가연대 우리는선우 진각종 등 10단체

아프간난민 어린이 영양·교육지원

인도 3곳에 불교공원·학교·법당

네팔·미얀마 등 연10억 상당 물품

불교적 가치를 통해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상 및 실천 체계인 '참여불교(Engaged Buddhism)'가 세계적인 흐름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불교NGO들이 아시아 지역의 구호활동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참여불교대회를 잇달아 유치하는 등 어느 때보다 활발한 국제참여불교운동에 나서고 있다.

국내 참여불교운동의 선두주자는 정토회와 참여불교재가연대. 지난 98년 창립돼 인도 빈곤지역인 비하르주 지원사업을 비롯해 북한 식량지원과 농업지원, 생필품지원 등 제3세계의 빈민지원활동을 펼쳐온 정토회는 최근 지도법사 법륜스님의 막사이사이상 수상을 계기로 아프가니스탄 등 아시아 분쟁지역 난민에 대한 지원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토회는 아프가니스탄 카불, 바미안 근교 등 3~4곳의 난민촌에 어린이 영양공급 및 교육지원 등 난민 정착지원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16일부터 7박8일간 현지 답사를 실시한다.

달라이라마 방한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참여불교재가연대는 우리는선우와 공동으로 오는 15일경부터 제1차 인도불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우선 석가족들이 밀집해 있는 인도 동북부 지역 우따 쁘라데시(Uttar Pradesh) 주를 비롯한 비하르(Bihar) 주 3곳에 불교공원과 학교, 마을법당 등의 시설 건립(2만불) 및 식량지원(2만불), 불교단체 운영비 지원 등을 실시한다. 재가연대는 최근 '국제협력위원회(위원장 · 김창영 코리아타임즈 논설위원)'를 신설, 국제참여불교운동 네트워킹, 참여불교지도자와의 만남, 해외 재가불자 네트워킹, 해외불교 지원, 종교간 평화증진을 위한 국제연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제불교대회의 국내 유치 등 참여불교 국제연대활동등도 활발해지고 있다.

정토회는 참여불교재가연대, 우리는선우, 경불련 등 불교NGO들과 함께 내년 7월 한국에서 참여불교도국제연대(International Network of Engaged Buddhists, INEB)의 한국 총회를 개최키로 확정했다. 33개국에서 400여 단체가 참여하는 아시아 최대의 불교 조직인 INEB는 대안교육, 비폭력운동, 인권 환경 여성 대안적 사회발전 및 인간의 심성교화와 자비행을 증진시키는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밖에 전국비구니회는 2004년 사키야디타 제8차 국제여성불교도 대회를, WFBY한국지부는 내년 12월 세계불교도청년포럼을 한국에서 개최한다. 한국종교연합선도기구 대표인 진월스님도 서울을 2005년 종교연합세계총회(URI Global Assembly) 후보지로 신청한 상태다.

한편 불교국가를 돕거나 지원하고 있는 단체들도 늘어나 진각종 JGO, 이웃을돕는사람들, 한국불교기아도움기구, 한국불교방글라데시친선협회 등 10여 개 단체들은 인도, 네팔, 미얀마, 스리랑카, 몽골 등 불교국가에 매년 10억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gkim@buddhapia.com



스님들도 구호 동참 3일 김천 직지사 스님들이 식수차를 마련, 직지천 범람으로 수재를 입은 주민들에게 식수를 나눠주고 있다. 김천=박원구 기자

주요종단 · 각사찰 · 종립학교 등 수재민돕기 대대적 모금활동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사상 최악의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불교계가 구호활동 및 성금모금운동에 발 벗고 나섰다.

조계종은 태풍 피해가 심각하고, 수재민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범 종단차원에서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다. 6일 현재 6,800만원을 모금한 조계종은 9일 강릉에 10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보냈다.

또 태고종도 4일 종무회의에서 9월30일까지 수재의연금 모금운동을 펼치기로 결의하고, 전국 종무원과 2,600여 말사에 공문을 발송했다. 태고종은 4일 1차로 의료 30박스를 수해지역에 전달했다.

천태종은 4일 각 말사에 공문을 보내 사찰별로 각 지역 수해복구에 적극 동참할 것과 그 결과를 총무원에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천태종은 8일 강원, 경남, 경북지역에 10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수해현장에 파견했다.

진각종은 최근 서울, 대구 등 6개 교구청과 일선 심인당에서도 수재민 돕기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진각종은 4일 삼척지역에 자원봉사단을 파견, 생필품을 전달하고 구호에 동참했다.

사찰차원의 성금모금 및 수재민 지원도 늘고 있다.

조계사는 '수재민 돕기 1인 1만원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월정사는 14일 오전 10시 원주 법응사에서 수재민돕기 특별대법회 및 일일 찻집을 개최한다.

직지사는 8일부터 김천지역에 자원봉사자 40여명, 정토회는 3일 강릉에 40여명의 긴급구호단을 파견했으며, 한마음선원 대구지원도 5톤트럭 1대 분량의 부식과 생필품을 강릉지역에 전달했다. ☞관련기사 11면

한편 교계 종립대학인 동국대는 수재민 자녀 300여명에게 학비를 감면해 주기로 했으며, 위덕대도 5천만원의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원우 기자

수재 성금 모금 접수처

조계종 총무원 (02)735-5864
태고종 총무원 (02)745-2030
천태종 총무원 (043)420-7314
진각종 통리원 (02)913-0753
불교방송 (02)705-5223

"법당내 납골함 설치는 정당

광주지법, 구청의 설치신고 거부는 위법"

건축허가가 없어도 사찰법당내부에 납골함을 설치한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장광환 부장판사)는 5일 광주 문빈정사(주지 석장)가 광주 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설납골당 설치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종교집회장인 사찰에서 납골당을 설치하더라도 이는 건축법상 용도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존건물을 이용한 납골당 설치가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구독신청 (02)737-0090

200여 사설사암 대상 조계종, 등록촉구 공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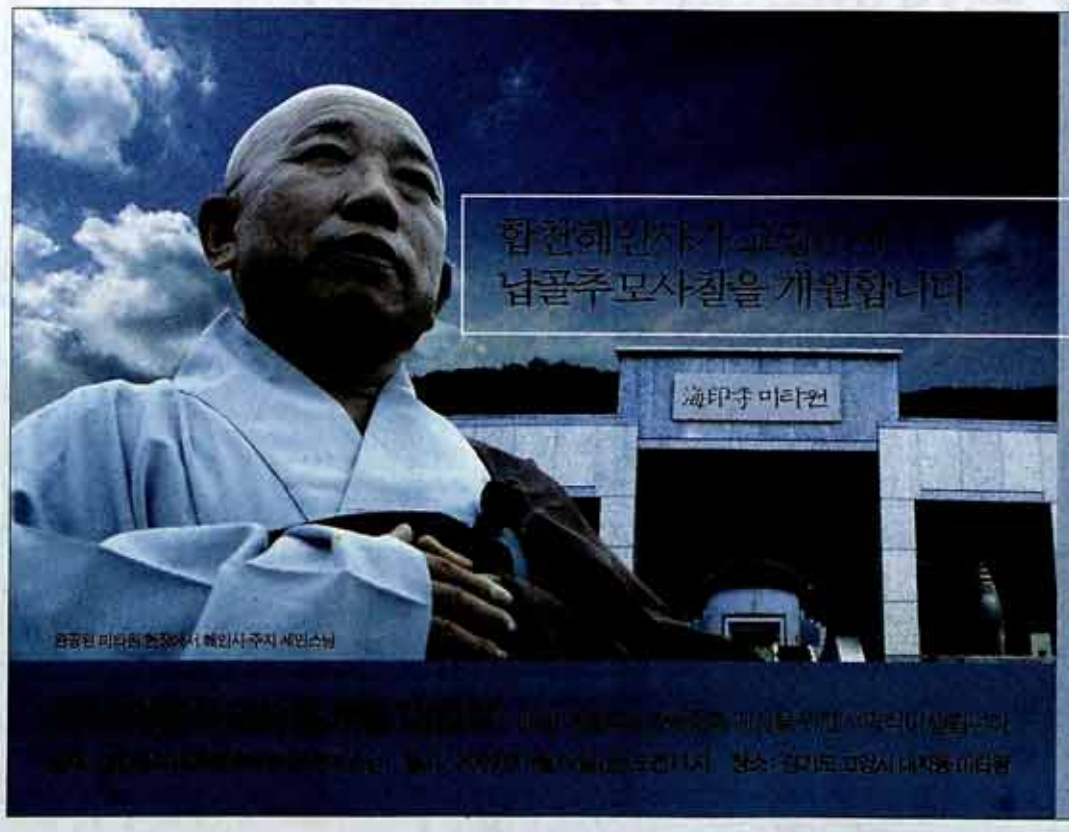
조계종은 소속 스님들이 운영하고 있는 2백여개 사설사암에 대해 등록촉구 공문을 8월 30일 발송했다.

조계종 공문에서 "사설사암은 종헌 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종단에 재산을 등록토록 돼 있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2일부터 19일까지 등록을 받고, 이후 미등록 사설사암에 대해서는 23일부터 30일까지 방문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성지순례전문
(주)다도투어
www.dadoTour.co.kr
제주불교성지순례
TEL 064)724-1185~6



합천해인사가 고려
납골추모사찰을 개원합니다

해인사 미타원, 대림산업이 만들었습니다
합천 해인사가 운영합니다

표지난을 겪고 있는 이 땅을 위해, 잘못된 장례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대림산업과 합천 해인사가 이름을 걸었습니다.
대림산업이 만들어 합천 해인사가 운영하는 납골추모사찰, 해인사 미타원.
이 땅의 장례문화를 바로세우겠습니다.

- 대도로 왕족들이 고른 명당, 경기도 대자산 위치
- 대기업 건설사로는 최초로 대림산업 100% 관리
- 종교적 사상에 따른 합천 해인사의 정성어린 운영

상담문의
(031)963-7588

왕족들이 고른 명당 중의 명당, 경기도 대자산 위치
경기도 대자산은 성왕 대군, 희양 장군을 비롯한 수많은 왕족과 귀족들이 전국의 명당 중에서도 고르고 고른 명당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2교구 본사 법보종찰 해인사
海印寺 미타원
www.mitawon.or.kr
시행 : 해인사미타원 시공 : 대림산업

사 설

조계종명 도용 사찰 정리하자

대한불교 조계종이 지난해 9월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5천여 곳의 사설사암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조계종의 명의를 도용하는 유사조계종 사찰이 2300여 곳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종명은 그 종단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역사이자 문화의 응축인 것이다.

조계종명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조계종의 종헌종법을 호지하고자 한다면 굳이 사용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설사암들은 조계종의 관리와 감시의 통제를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적 사회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교계 전체 내지 조계종의 공공성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일반신도들이 조계종 사찰로 오인하고 다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3백여 곳에 이르는 무적승려들이 운영하는 사찰이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조계종단의 통제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면에는 조계종 자체의 책임도 있다. 종단 호법부에 사법권은 없지만 지속적인 감시와 정화활동이 진행되었어야 마땅하다. 신문이나 방송을 통한 계도와 공고, 사법적인 대응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적이 없다는 점은 종단 스스로 심각하게 반성해야할 점이다. 차제에 조계종단은 거종적 차원에서 조사와 대응에 나서야 하리라 본다. 전법도생은 정법으로 가능한 것이다. 사이비 논리는 결국 정법을 소멸하게 만든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일반언론의 스님비하 "심각"

최근 일간 신문의 만평이나 만화가 스님을 희화화 하는 등 불교를 비하하고 품위를 실추시키는 경우가 있어 우려감을 금할 수 없다.

비록 근자의 정치적 상황에 빗댄 관평이긴 하나 대중의 의식,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메이저 신문인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에서 성직자, 또는 스님을 만평에 등장시켜 희화화 하는 등의 사려 깊지 못한 발상에는 어이없음을 느끼게 된다.

엄연한 정교분리의 사회에서 정치상황에 느닷없이 성직자를 등장 시키는 것도 엉뚱해 보이거니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만 할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나마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더욱이 스포츠 일간지 'goodday' 3월29일자 만화 '바이러스'는 그 천박스러움에 노여움을 넘어 연민마저 느끼게 한다. 그 연민은 저질적이고 외설적인 변태성과 천박스러운 인간심성에 호소하지 않고서는 만화가로 설 자리를 갖지 못한다고 믿는 그 의식 수준에 대한 것이며, 황폐한 그들의 정신세계에 대한 것이다.

불교는 자신과 중생의 근원적 구제에 먼저 관심을 갖는 종교다. 많은 경전에서도 남의 허물을 탓하지 않는 덕목을 가르치고 있다. 이제 다양성을 지니게 된 현대 사회에서 불교는 무지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무차별적 모멸이나 폄하 훼손에 대해 최소한의 목소리라도 내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서 있다. 조계종 종교편향대책위의 세 신문에 대한 공식사과 요구는 그래서 정당하다.

우리는 그들의 진심어린 사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불교계도 승속 간에 불자의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사회적 귀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출가연령 40세 제한 찬·반 '팽팽'

교육법개정안 종회상정 "충분한 의견수렴 합리적 방안 모색"

출가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면서 이와 관련한 조계종단 내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9면)

조계종 교육원은 3일 교육원장실에서 제58차 교육원 회의를 열고 행자교육원 수학(修學) 자격을 현행 '15세 이상 50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40세 이하'로 연령을 낮추는 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육원은 이 개정안을 10일 열리는 종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원장 무비스님은 "나이가 많은 행자들은 교육하기도 힘들고, 강원에도 잘 가지 않는 폐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50세가 넘어 비구계를 받는 경우도 생겨 포교에도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원 자료에 따르면 1996 이후 현재까지 행자교육원 이수자 가운데 30~40대가 60%를 넘고 있으며, 40대만도 20%에 달하는 등 20대 출가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10여년 전과 비교해 고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승가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원과 강원, 율원 등에서는 승가교육의 질을 높이고 승가 위계를 위해서도 출가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송광사 율원장 지현스님은 "승가는 평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곳인데, 나이 많은 출가자가 이것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며 "차라리 출가를 허락하되 사미계만 수지하고 수행에 몰두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상당수 종회의원과 사찰 주지 등은 사회가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고, 평균 학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출가자들의 연령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승가교육의 편의성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발심 출가자들을 모두 받아들였던 부처님 정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출가연령을 낮추는 것은 행자들이 사찰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능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며, 결국 출가자들이 줄어들어 승가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조계종 종회 교육분과위원장 향적스님은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힘든 문제"라며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론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종무행정 안내책자 증보판 발행 배포

1994년 발간 이후 4년 만에 종무행정 안내책자 증보판이 재발간됐다.

증보판에는 그동안 변화된 중앙종무기관 종무행정의 내용, 업무절차와 방법, 유의사항, 양식 및 견양을 적시하여 종단 내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고, 처음 종무에 임하는 사람이라도 쉽게 익히고 숙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또 신도법개정에 따른 신도 기본교육 및 신도전문교육 시행 안내와 전문교육 기관 인가 절차와 각종 선거관련 업무 등 18건의 업무를 새로이 등재하였으며, 추가 양식 50여건 및 전반적인 업무처리 설명을 보완했다.

종무행정안내책자는 사찰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문의는 02-720-5861. 김원우 기자

불국사등 참배…기와불사 동참도

방한 중국 종교사무국장 일행 6일 귀국

조계종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엽소문 중국 종교사무국장 등 8명의 중국방문단은 3일부터 5일까지 법주사와 불국사, 해인사, 통일전망대 등을 둘러본 뒤 6일 귀국했다.

3일 오전 법주사를 방문한 중국 방문단은 대불을 보고 놀란 표정을 드러냈다. 엽소문 종교국장은 주지스님과 환담 중 반야심경 병풍을 보고 주신옥 산서성 민족종교사무국장에게 반야심경을 한번 봉독해 보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4일 오전 석굴암에 도착한 중국 방문단은 석굴암 내부에 들어가 부처님께 향을 올리고 반야심경을 봉독했다. 관람을 마치고 나오던 엽 국장은 불국사 기와불사에 동참하기도 했다.

같은 날 오후 해인사에 도착한 방문단은 세민 주지 스님의 안내로 잠시 경내를 둘러본 뒤 주지스님과 환담을 나눴다. 그 자리에서 팔만대장경 중 반야심경이 새겨져 있는 모조 경판을 선물로 받았다.

이에 앞서 2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예방한 엽소문 국장은 "중국 정부는 달라이라마가 한국을 방문해 종교활동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정대 총무원장은 확답을 피했다. 남동우 기자



◇엽소문 중국 종교사무국장(맨오른쪽)이 해인사 장경각에서 팔만대장경에 대해 주지 세민스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있다.

'현대' 만평

김 영 민



함께 손잡고 인류를 부처님품에

제19회 불교미술대전 24~26일 작품접수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운영위원회(위원장 정대)는 불교미술 전통의 계승 발전과 창작 활성화를 위해 제19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을 개최한다.

공모부문은 전통부문(회화, 조각, 공예, 서예) 현대부문(평면, 입체)으로 나눠지며, 작품접수는 24일부터 26일까지이다. 한편 시상작품전시회는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예술의전당 미술관 3층에서 개최된다. 문의)02-739-1830. 김원우 기자

대전·충청권 본말사 주지 연수

170여명 참석, 환경문제 인식고취 중점

대전 · 충청권 본 · 말사 주지연수가 4~5일 이틀간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열렸다.

법주사, 마곡사, 수덕사 본 · 말사 주지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연수회는 '불교문화재 보존 관리와 국고보조금 운용' '신도조직화와 활용방안' '불교환경활동 현황과 생태사찰 가꾸기' 등의 강의로 진행됐다. 특히 '불교환경활동' 강좌에서는 두레생태기행 김재일 회장이 사찰환경문제와 북한산 문제 등 자연환경문제에 대해 강연,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켰다.

한편 이번 연수회는 예년과는 달리 80%의 참석률을 보였다. 작년까지는 평균 60%대에 머물렀었다. 이는 올해부터 주지연수를 받지 않을 경우 주지 재임용시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 본말사 주지는 임기 4년 동안 매년 한 차례씩 주지연수를 받아야 한다.

한명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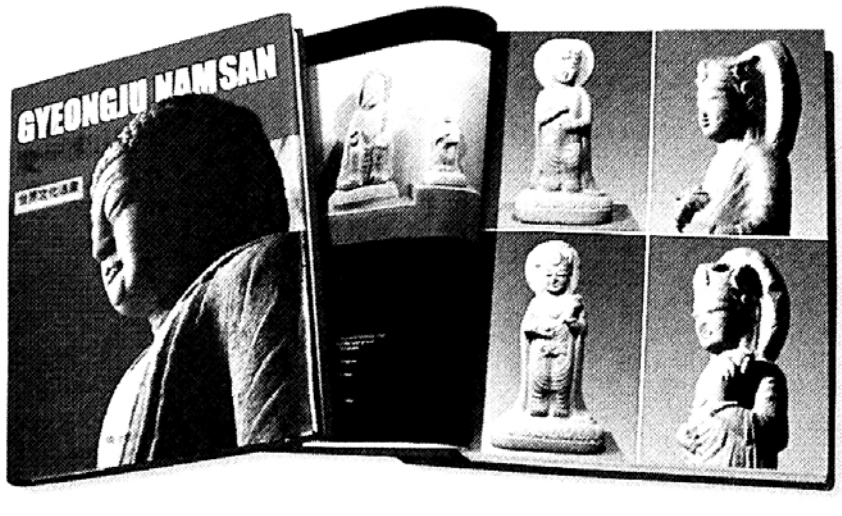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작과 관련한 문의나 투고, 의견개진은 물론 윤리강령에 의거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보전화 : 722-4162 FAX :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慶州南山 - 세계문화 유산, 우리나라 불교문화의 원류

그 방대한 자료를 완전 올 컬러 특대판형 전 2권 으로 간행



2권 1세트 23만원

▣朝鮮日報
'신라 역사박물관' 경주 남산의 모든 것
이 책, '경주남산'은 말 그대로 경주 남산의 모든 것을 담은 야심차고 우직한 기획의 결과이다. 도판편과 해설편 등 2권의 책은 어린이들은 들지도 못할 만큼 무겁다. 그 무게는 그대로 신라 천년의 역사가 갖는 무게로 느껴진다. 140곳에 이르는 절터, 80여 구의 불상, 90여 기의 석탑, 13기의 왕릉, 4개의 산성, 중요문화재 사진과 탁본 실측자료등 무려 800여 점이 실렸다.

▣중앙일보
'골마다 불상 · 석탑 온 산이 절이로다'
4년여 현장조사 『경주 남산』 완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www.gcp.go.kr)가 지난 4년간 조사를 맡았으며, 그 결과가 『경주 남산』(23만원)이란 책으로 최종 정리돼 최근 출간됐다.
4년간 2백여 차례 현장을 조사한 결과 확인된 문화재는 모두 6백 72건. 절터는 1백47개소. 일제시대 조사 결과의 두 배나 되며, 골짜기마다 2곳 이상의 절이 들어서 있었던 셈이다. 돌로 만든 부처와 보살상은 1백 7구, 석탑은 모두 96기. 그간 확인되지 않았던 왕릉과 비석 등을 찾아냈다.

▣동아일보
남산의 불교유적을 비롯해 선사유적, 신라왕릉, 고려 · 조선시대 유적과 유물, 그리고 현재까지도 남산지역에서 행해지는 민속의례, 남산의 수려한 자연유산 등을 모두 담았다. 도판편 · 해설편 2권으로, 특대판형에 총 700여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이다. 5년간 200차례에 걸친 현장조사물의 결과이다.

▣釜山日報
- 세계 문화유산 '남산'의 모든 것 2권에 오롯이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관계자는"이번 종합 도록은 관련 학계 뿐만 아니라 국내외 일반인들에게도 보다 쉽고 진지하게 남산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게 하는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보신문
"한국불교 원류 한 권으로 응축"
이번에 발간한 종합도록은 지난 98년 경주 지역에 대한 5개년 정비 사업의 첫 번째 사업으로 실시된 남산 정비사업의 결과물이다. 사진만을 모은 도판편은 지난 2000년도 호주 케이즈에서 열린 유네스코 전체 회의에 자료로 제공돼 남산을 포함한 경주 일대가 경주역사유적지구로 묶여 세계문화유산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佛敎新聞
- 경주 남산이 책갈피에 '쏙' -
불교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신라의 영산이며, 우리 민족의 성소인 경주 남산이 책속으로 그대로 옮겨져 있으며 골짜기마다 간직한 신라인의 불심(佛心)과 예술 혼을 책은 그대로 재현해 놓았다.

▣현대불교
- 골마다 절터, 바위엔 불보살 -
경주 남산은 우리 나라 미술사학계의 대부 고유섭이 "한국 불교의 원류를 찾고자 한다면 경주 남산에 가 보아라"고 했을 정도로 우리 나라 불교 문화유산의 보고다.

國立慶州文化財硏究所 編 圖書出版 民 族 文 化 釜山廣域市 南區 大淵 1洞 1754-11號 전화 051)627-2366, 627-2367 / 핸드폰 018)516-2366 / 팩스 051)627-2368



◇여름사찰수련회가 인기를 끌면서 주말수련회 등을 상설화 시키는 사찰이 많아지고 있다. 포교원과 남양주 보광사가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시범실시한 주말수련회에 참석한 수련생들이 전나무 아래서 경행하고 있다.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요구돼

올해 월드컵 영향 참가자수 감소
운영마인드 제고, 상설화 사찰 늘어
"사찰에 신도 전용수련관 있어야"

올해 여름 수련법회는 월드컵의 영향으로 참석인원은 예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가족수련법회 등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지는 등 사찰이 일반인과 불자들의 신행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조계종 포교원은 사찰을 비롯한 신행 및 신도단체, 신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수련법회를 모두 취합하면 여름 수련법회 참석인원이 예년과 비슷한 3만~5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여름수련회' 결산

8월 27일 현재 조계종 포교원의 중간집계에 따르면, 올해 18개 교구본사가 67회에 걸쳐 실시한 수련법회의 참석인원은 7,595명으로 지난해보다 2005명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말사의 경우는 60곳의 사찰에서 146회를 실시, 9311명 참석해 역시 지난해보다 5,689명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사별 참석인원은 통도사 1293명(총 6회), 해인사 1160명(7회), 송광사 705명(6회), 법주사 610명(4회)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본말사를 통틀어 대상별로는 어린이 수련회가 57곳, 청소년 28곳, 일반 76곳, 가족 6곳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처럼 수치상 크게 줄어든 수련법회 참석인원의 감소를 포교원은 월드컵과 템플스테이 열기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와는 달리 사찰에서 숙박하지 않는 여름불교학교 사찰을 대부분 제외한 것이 통계상의 수치 감소로 나타났다는 설명.

주말수련회가 인기를 끌면서 수련법회가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것도 참석인원 감소의 원인으로 한몫 했다는 분석이다.

여름 수련회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사찰의 운영 마인드는 고조되었지만, 프로그램의 다양성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수련 시설과 여건을 갖춘 대부분의 사찰이 수련회를 실시하는 등 이제 수련법회는 재가자 포교의 장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주지 및 사중 스님들의 운영 마인드도 크게 제고되었다는게 포교원의 분석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련법회가 참선위주의 수행프로그램이 주를 이루는 등 참가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신행의 깊이에 맞는 다양한 수련 및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8월 29일~30일 계룡산 갑사 유스호스텔에서 열린 교구본사 포교국장 워크숍에서 국장스님들은 사찰공간의 개방이 스님들의 수행환경 등 고유기능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불사(佛事) 때 스님들의 수행공간과 신도들의 수련공간을 분리해 건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포교원은 내주중 수련생 설문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주5일 근무제의 시행에 따라 사찰수련법회의 상설화를 적극 유도하고 어린이 및 초심자를 중심으로 수련법회 참가자들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계절별 수련회는 물론 주말 수련회, 사찰체험프로그램, 가족수련회, 주말 시민선방, 개인수행프로그램 등 다양한 상설 수련법회 모델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년전부터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사찰수련정보센터(www.pogyo.org)도 콘텐츠를 보완해 상설 운영키로 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해인사 최대 추모사찰 '미타원' 개원

납골 1만3천기 수용 · 극락보전 등 갖춰
13일 법회 · 죽음체험행사 · 축하공연도



◇해인사 미타원 전경.

국내 최대 규모 납골추모관인 해인사 미타원이 13일 오전 11시 개원한다.

합천 해인사가 직접 운영하는 경기도 고양시 대자동 대자산 미타원(주지 선각)은 1만3천기의 납골시설을 갖춘 납골 추모관. 대림산업㈜이 사회에 공헌한다는 취지에서 150억원을 투입해 완공, 해인사에 기부 체납한 미타원은 현대식 건축의 극락보전과 명부전, 일주문, 요사채 등을 갖췄다.

조선시대 왕찰인 대자산 봉덕사 자리에 들어선 미타원은 대지 2천여 평에 451평의 납골추모관과 지장보살입상, 유택동산으로 꾸며졌다. 1층은 구품연지를, 납골추모관 건물은 반야용선을 형상화했다.

이번 납골추모관 미타원 개원은 심각한 묘지수급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화장율이 34%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무연고 묘 억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림산업의 납골추모관 사찰기부 형태는 기업의 사회적 환원차원에서 모범모델로 인식되며 삼성그룹등 10대기업등에서도 적극적인 벤치마킹을 시도하고 있는 점도 납골문화 확산의 좋은 징조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비롯 해인사 주지 세민스님, 노무현 민주당 대선후보, 정몽준 박근혜의원, 김성호 보건복지부장관, 손학규 경기도지사 등 1천5백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13일 개원법회는 장례문화 개선 서명식과 죽음체험 행사, 축하공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해인사 주지 세민스님은 "납골당 개원에 맞춰 사회지도층의 화장유언과 실천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031) 963-7588.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인생을 바꾸는 아름다운 힘
아바타코스
당신 마음의 무게는_?
천근, 만근??
깃털처럼 가볍게 사십시요!
지금 당신을
진정한 행복/풍요/건강으로
초대합니다.
쉽지만 강력한 마음수련 여행 – 해산스님과 함께 하십시요
해산아바타 센터 011) 606-1976 www.haesanavatar.com
세이아바타 센터 02) 782-0022 www.sayavatar.com

"불교정보화 펀드 · 전담기구 절실"

김응철 승가대 교수 불정협 초청강연서 주장



◇중앙승가대 김응철교수가 (가)불교정보화협의회 초청으로 6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강연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급속하게 정보사회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변화에 적응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진흥 펀드를 조성하고 불교계 전체를 아우르는 정보화 기구를 설립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김응철 교수는 6일 (가)불교정보화협의회(이하 불정협 · 운영위원장 서동석)가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개최한 '불교정보화 현황과 비전' 강연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불교정보화의 발전방향에 대해 김 교수는 "불교정보화가 신도 몇사람 늘어나는 성장제일주의적 관점에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회변화의 흐름에 접근하고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측면에서 불교정보화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연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 지거스님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불교는 시대의 정신과 역사, 문화를 이끌어 왔기에 사회가 급속히 변한다 해도 이같은 역할은 지속될 것"이라며 "이번 강연이 불교계의 정보화 현실과 발전방안을 모든 불자들이 함께 고민해 보는 귀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지원 급선무
"'협의회' 창립 관련사업 추진에 주력"

김응철 교수는 "지난 4월 실시된 불교정보화 실태조사 결과 지역, 종단, 조직 규모 등에따라 정보화 격차가 드러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찰의 컴퓨터 보급률이 절반도 안되는 등 불교계의 정보사회 적응력이 그리 높지 않고 기초 인프라 부재, 전문인력 부족, 텍스트 위주의 콘텐츠 개발 등이 불교계 정보화의 문제점"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찰이나 단체의 독자적인 노력보다는 정보화 교육과 인재양성, 인프라 확보 등을 체계적을 실시하는 불교정보화 전담 기구를 만드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불교정보화의 총체적인 발전을 위해 인터넷 포교사 양성, 다양한 불교 콘텐츠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 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거시적인 추진기구인 불교정보화협의회의 발족을 통해 불교정보화진흥 펀드를 조성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하는 것이 우선적인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김응철 교수는 "지난 4월 실시된 불교정보화 실태조사 결과 지역, 종단, 조직 규모 등에따라 정보화 격차가 드러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찰의 컴퓨터 보급률이 절반도 안되는 등 불교계의 정보사회 적응력이 그리 높지 않고 기초 인프라 부재, 전문인력 부족, 텍스트 위주의 콘텐츠 개발 등이 불교계 정보화의 문제점"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찰이나 단체의 독자적인 노력보다는 정보화 교육과 인재양성, 인프라 확보 등을 체계적을 실시하는 불교정보화 전담 기구를 만드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불교정보화의 총체적인 발전을 위해 인터넷 포교사 양성, 다양한 불교 콘텐츠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 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거시적인 추진기구인 불교정보화협의회의 발족을 통해 불교정보화진흥 펀드를 조성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하는 것이 우선적인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서동석 운영위원장은 "불교정보화 실태조사 결과 밝혀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종단을 포함한 18개 불교단체들이 그동안 몇차례 실무모임을 갖고 (가)불교정보화협의회를 구성했다"며 "이제 불교정보화협의회를 창립, 연구와 관련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T와 (주)에플웨어정보통신이 협찬한 이날 강연회에는 조계종 총무원 문화국장 혜안스님을 비롯해 고려대장경연구소, 생명나눔실천회, 한국여성불교연합회 등 불교단체 정보화 실무자와 KT, 애플웨어정보통신, 효성정보통신, 다나아이앤씨 관계자 70여명이 동참했다. 또한 새천년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축하화환을 보내왔고 조계종 25교구 본사 봉선사 주지 일면스님과 김근태 민주당 의원은 축전을 보내왔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분 한 신 고 공 고

귀의 삼보하옵고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창종주 일붕존자 큰스님의 높으신 뜻을 다시 한 번 깊이 숙고하면서 분열되었던 종단의 안녕과 화합을 위하여 저희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에서는 종단을 애종하고 지지하여 주시는 모든 종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에서는 3차로 그 동안의 신영동 측 (현기홍스님 및 장연종스님)과 법정관계가 본 수유리 총무원의 승소로 모두 종결되었으니 각 사암에서는 각 지역 교구를 통하여 분한신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분한기간동안 접수되지 않은 종도님은 기간후 탈종처리가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02년 9월 7일 ~ 10월 6일까지
▶ 대 상 :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전종도
▶ 접수처 : 각교구 종무원
서울교구 (02)523-2566 강원교구 (033)682-1933
경기북부 (031)867-6391 경기남부 (031)312-4691
인천교구 (032)888-5357 충북교구 (043)292-4441
대전교구 (042)673-7085 대구교구 (053)324-0882
전남교구 (062)261-0108 전북교구 (063)653-6667
경북교구 (054)637-4657 경남교구 (055)672-2876
부산교구 (051)558-5031 울산교구 (052)268-5565
제주교구 (064)796-4801
※지역 종무원이 없는 경우 총무원(02-998-8161/2)으로 접수 바랍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 붕 선 교 종
총무원장 동 봉

일주문



13일 약사대불전 낙성법회

운산 포항 도선사 주지는 13일 오전 10시 일본 고승들을 초청한 가운데 약사대불전 낙성대법회와 영가천도재를 봉행한다.



어린이회 23주년 법회

지홍 조계사 주지는 15일 조계사 문화교육관 1층에서 어린이회 창립 2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자비신행회 사무실이전 법문

현장 보성 대원사 주지는 14일 광주 동구 내남동 299-1번지로 사무실을 이전한 자비신행회의 개원법회에서 법문한다.



9·11사태 1돌기념 포럼

진월 한국종교연합선도기구 대표는 11일 세종문화회관 회의실에서 'URI 시각에서 본 9·11사태' 주제 포럼을 갖는다.



청화스님 친견법회 봉행

백창기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8월26일 고승친견법회 일환으로 신도회 간부들과 성륜사 조실 청화스님을 친견했다.



제3대 회장 선출 총회

백원기 국제포교사회장은 제3대 회장선거를 위한 총회를 24일 조계사 불교대학 제1강의실에서 연다.



'연' 소재 개인전시회

이인자 불교여성개발원장은 7일까지 경기대 소성미술관에서 연(蓮) 소재 유화 디자인 작품 개인전시회를 열었다.



동국대 교수회장에 재임

박종훈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는 8월 27일 열린 교수회 정기총회에서 제8대 회장으로 재임됐다.



고려대장경硏 사무처장에

서정규 前 쌍용화재 해상보험(주) 서울교육센터장은 1일 고려대장경연구소 신임 사무처장으로 부임했다.

인사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법산스님(정각원장) △대학원장=임기중 △경주 상경대학장=임배근 △경주 벤처창업보육센터소장=조영석 △경주 의학연구소장=임현술

"다문화 사회일수록 수행종교 선호"

국제포교사회초청 강연 G. 라이얼 호주불교협 고문



호주에서 불교 제2위 종교로 성장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혼재하는 다문화 사회일수록 개인의 깨달음을 중시하는 수행종교를 선호한다."

호주 불교협회 고문 그래미 라이얼(Graeme Lyall, 72 · 사진) 경은 8월31일 조계종 총무원 불교회관에서 열린 국제포교사회 주최의 강연회에서 "가족애와 이웃에 대한 배려 등 불교적 가치로서 얼마든지 자비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서구인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불교와 인류의 미래'를 주제로 한 이날 강연에서 라이얼 고문은 "호주에서는 지난 81년부터 91년까지 10년 동안 무려 3배 가량 불교신자가 늘었으며, 지난해 호주연방 인구조사 통계에 따르면 전체인구의 1.9%인 36만여 명이 불교를 믿어 호주 내에서 제2위의 종교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사회의 불교 역할에 대해 "불교는 자신만의 수행뿐 아니라, 가난한 이들의 구제와 병원 및 학교의 건립, 불의에 대한 항거와 인권 옹호 등 자비행을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통해 불교가 지나친 서구중심 사고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대해서는 "한국불교는 물론 대승불교권 전체가 언어문제로 남방불교권보다 포교에 뒤지고 있어 스님들도 이제는 포교와 세계화를 위해 영어와 중국어는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30여 년 전부터 숭산스님이 유럽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등 대승불교를 유럽에 뒤늦게 전했지만, 남방불교에 젖어있는 서구인들에게 탁월한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포교사회(회장 백원기)와 담양 죽림정사(주지 종현) 초청으로 방한한 라이얼 고문은 호주불교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세계종교인평화회의(WCRP) 집행위원과 세계불교도우의회 집행위원, 뉴사우스웨일스 및 '퀸스랜드 정토불교협회장 등을 맡고 있다. 또한 외국스님들이 호주에 정착해 포교하는 일을 적극 돕고 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아프간 난민촌 지원사업 착수"

법륜스님 16일 현지로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스님(사진)이 막사이사이상 재단으로부터 받은 상금 5만 달러를 대북지원 민간단체 3~4곳에 기부할 뜻을 피력했다. 법륜 스님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진행 중인 대북지원 사업을 계속하면서 앞으로는 아시아 분쟁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눈을 돌리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법륜스님은 우선 아프가니스탄 카불 근교 등 3~4곳의 난민촌에 활동가들을 보내 어린이 영양공급 및 교육지원 등 난민 정착지원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16일부터 7박8일간 아프가니스탄 현지를 답사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단원들과 마음 맞춰 '신식염불'"

광주사암연합 합창단 이숙희 회장



지역 사암연합회가 합창단을 가동하고 있는 유일한 곳 '광주사암연합회합창단'의 이숙희 회장(묘각행 · 53 · 사진)은 올해로 꼭 10년째 합창단을 지원해 왔다.

재적사찰이 광주 용화정사인 이 회장은 매주 화요일이면 광주불교방송 2층에서 단원들과 함께 찬불가 합창 연습을 한다. 또 소책자 악보를 만들어 이웃에 찬불가를 전하며 음악포교사를 자처하는 이 회장은 찬불가를 '신식 염불'이라고 부른다.

20개 가까운 다양한 사찰의 신도 45명이 단원으로 구성된 합창단은 말 그대로 화음도 맞춰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맞추는 일.

"부처님 일이라 사실 특별하게 화합을 위한 노력을 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미 찬불 공양을 발원한 보살들이니 절로 됐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다만, 회장으로서 단원들에게 우리는 뭔가 달라야 한다는 주문은 했습니다. 노래 부르는 실천을 하나 더 하는 불자라는 위치를 자각해서 행동을 보여주자고 합의했던 것입니다."

이 회장은 언행에 각별히 조심을 기울였던 인연으로 합창단 운영에 급급해 법회에 음성공양을 올리는 역할에 머물렀던 지난날을 극복하고, 이제는 내부적 결속력은 물론 대외적으로 지역사회 속으로 한 걸음 더 내디뎌, 어렵고 어두운 이웃들의 마음을 밝혀주는 활동을 벌이려고 한다. 그동안 가장 큰 보람은 스님들께서 격려해주실 때라는 그의 가장 큰 후원자는 남편과 자식이라고.

주용직 광주지사장

"1인 1수행 1봉사 적극 실천"

영남불교대 동문회 배선혜 신임회장



"부처님 정법이 널리 퍼지고 영남불교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7일, 영남불교대학 동문회 6대 회장에 취임한 배선혜(자인성 · 사진)회장은 5만여 동문의 대표로 선출돼 어깨가 무겁다며 "현재 71기까지 동문들의 힘을 결집시켜 학장스님이 추진하고 있는 유치원, 복지관 등 여러 불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회장은 또 "불교공부를 하는 목적과 방향은 부처님 법을 배워 봉사와 수행을 통해 실천하는 것이라는 우학스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남는다"며 "아직 동문회의 세부계획을 세우지 않았지만 학장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1인 1수행 1봉사'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으로의 동문회 사업의 역점을 둘 계획"이라 강조했다.

지난 95년 16기로 입학해 올해로 7년째 영남불교대 관음사에서 신행과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 배회장은 "동문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신행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술에 배부르지 않겠지만 우리 영남불교대학이 작은 포교당에서 출발해 이렇게 성장한 경험을 교훈삼아 작은일부터 하나씩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떤 일에도 성급하지 않고 차분하고 강직하다고 알려진 배회장은 영남불교대학의 여러 봉사활동을 두루 섭렵한 봉사통으로, 지난 8월 24일 선거에서 만장일치로 동문회장에 선출됐다.

박원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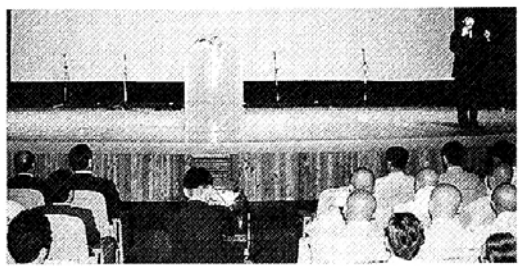
봉선사 교양대학 제25기 입학식

남양주 봉선사(주지 일면)는 3일 제25기 교양대 입학식을 개최했다. 연수원장 무착스님을 비롯 사중 스님들과 50여 신입생,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입학식에서 총무 여산 스님은 "끝까지 공부해 졸업하는 의지를 가지는 사람만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자기 몫을 할 수 있다"고 격려했다.



삼장불학원 수료식 및 입학식

나란다 삼장불학원(원장 활안, 금강선원 이사장)은 2일 사미과 제 1기 수료식과 사집과 제1기, 사미과 제2기 입학식을 거행했다. 금강선원 큰 법당에서 개최된 수료식에서는 윤창남 1기 회장을 비롯 총 23명이 수료했다. 활안 원장은 "재가불자로서 출가수행자로서 초발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영주장애인복지관 1돌 기념식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지현)은 8월 28일 영주시민회관에서 개관 1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관장 지현 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700여 명이 참석한 기념식에서는 심진 스님과 하유스님의 법고공연, 복지관 수화교실 모임 '손으로 여는 세상'의 수화공연, 복지관재활사업기금마련을 위한 바자회 등이 펼쳐졌다.



금정불교대 자연환경 정화활동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회장 공영석)에서는 8월 25일 범어사 일원 숲속 및 계곡에서 금정산 북문 일원까지 자연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범어사 주변을 정화하고자 한 이날 행사에는 동문 50여명이 참석, 행락객들이 버리고 간 유리병, 플라스틱 등 오물 및 쓰레기 20마대 분을 수거했다.

마음 밝히는 참선 도량

공생선원

공생선원 9월 8일 문을 엽니다

우리는 공생共生의 도리를 알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주와 내가, 자연과 내가 모두 함께 더불어서 사는 이치를 알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일체 만물이 나를 위해서 존재함을 알면 세상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나를 알고, 세상과 함께 사는 소중함을 깨닫고자 참선 수행함이 바로 공생선원이 나아가고자 하는 길입니다.

공생선원에서 참선을 하면 본래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래마음을 되찾는 지름길인 참선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밝히고,

더불어서 자기를 믿고 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강좌 개설 | 참선반, 참선 입문반, 경전반, 기본교육

서울시 도봉구 쌍문2동 653번지 삼환프라자 708호, 전화 900-2448

직능단체 의식집전교육 회향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8월 27일부터 4회에 걸쳐 서울 사간동 법련사에서 실시한 서울 · 경기 직장직능단체 임원 의식집전교육을 5일 회향했다. 법회의식의 통일, 안정적인 법회 진행 등을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법회의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목탁치는 방법 실수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 50여명의 직장불자들이 동참해 높은 관심도를 반증했다.



금강메아리 봉정사등 순례

서울불교산악회 금강메아리(회장 공형수)는 1일 30여 회원이 동참한 가운데 안동 봉정사와 지족암, 문경 김용사를 순례했다. 순례단으로 동참한 정산스님(양평 대륜사)의 축원으로 봉정사에서 법회를 진행했다. 불교산악인연합회 김대원 사무총장은 "불교문화재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유불동 부처님나라 수계법회

우니텔 불교동호회 '부처님나라(대표시삽 이헌중)'는 8월 25~26일 봉화 축서사에서 제6회 수계법회를 가졌다. 120여 회원들은 참회진언과 연비를 통해 진정한 불제자로 거듭날 것을 서원했다. 계사로 나선 무여스님(축서사 조실)은 "계를 받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정한 마음으로 계를 지켜나갈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우리는 '직장 법당 지킴이'"

이일승씨-정비창 내 법당 예불·108배 봉행
김상희씨-정각선원 개원후 매일 청수·공양물
경찰불교회-3개팀 순번제로 청소·법회 준비

서울철도차량정비창 다보회 이일승(59 · 회계과) 씨는 매일 새벽 5시 20분 첫 전철을 타고 직장으로 향한다. 도착하면 가장 먼저 들르는 곳은 정비창내 법당. 이 씨는 청수를 새로 올리고 예불과 108배를 한다. 참여하는 사람은 없지만, 5년째 즐거운 마음으로 해오고 있다.

다보회 내에서 '법당 지킴이'로 통하는 이씨는 지난해 퇴직, 임시직으로 다시 취업했다. 업무도 관련이 있는데다가 법당 가까운 곳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 이씨는 법당을 청소하면서도 오로지 회원들이 법당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현재 직장내에 자체 법당을 갖고 있는 단체는 40여곳에 이른다. 법당중에는 지도법사가 있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상주하지는 않는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법당관리는 불자회원들의 몫이다. 문제는 직장생활을 하는 회원들이 법당에 돌보기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일승 씨 처럼 법당 청소와 불단에 공양을 올리는 일 등 법당의 크고 작은 일들을 남몰래 해오는 '법당 지킴이'들이 많다. 국회 정각선원, 경찰청 법당, 한국조폐공사 경산조폐창 금강원 등에서는 불자회원들이 법당 지킴이를 자임하고 나섰다.

국회정각회직원불교신도회 김상희(66 · 위생과) 씨는 95년 국회내에 정각선원이 개원한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청수를 올리고 108배를 해왔다. 법회가 있는 날이면 청소와 쌀, 과일 등 갖가지 공양물을 올린다. 김 씨는 "불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한 것 뿐"이라고 겸손해 했다. 김경해 총무는 "부처님을 잘 모실 줄 알고, 회원들을 위해 법당 정돈과 법회 뒷정리까지 하는 김상희 보살님이야말로 참다운 보살"이라고 칭찬했다.

경찰청 불교회는 조직적으로 법당을 관리한다. 3개 팀으로 구성돼 순번제로 청수와 향 · 초를 바꾸고 청소, 법회 준비까지 담당하고 있다. 경불회가 이렇게 하기까지는 홍병선(45 · 과학수사과) 씨의 노력이 있었다. 홍 씨는 법회가 있는 날이면 먼저 법당에 들러 청소와 법회 준비를 했다. 남몰래 3년을 해오자 다른 회원들도 차츰차츰 동참하기 시작했다. 인원이 점점 많아져 이제는 3팀으로 나눠 운영하게 된 것이다.

경산조폐창 금강회의 경우는 지도법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정기법회는 물론 특별법회도 주관하는 등 정성을 쏟고 있다. 그러나 법당관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이 역할을 주로 하는 회원은 박영경(33 · 조사2과) 씨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도로 회향하는 박 씨는 매번 부처님 공양물을 준비해 회원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주경스님은 "직장내 법당은 직장불자들의 신행 · 문화 · 기도공간이지만 일부는 법회 때 외에는 방치되다 시피한 곳도 있다"며 "법당을 잘 관리하는 것도 불자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내집과 같은 공간으로 가꾸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철도차량정비창 다보회 이일승씨는 매일새벽 5시20분에 출근, 예불을 올리는 등 '법당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신행단체 담당=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전국경찰불교회는 경찰청 경승실에 사무실을 개소하고 5일 현판식을 가졌다.

경불회, 사무국강화…본격 포교

5일 현판식, 경승단과 곧 관계정립

전국경찰불교회(회장 김중겸 이하 경불회)가 사무국 기능을 강화하고 미 창립 지부 설립 등 본격적인 경찰포교에 나선다.

경불회는 5일 경찰청 별관에 사무실을 개소하고 경승단장 도영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이번 사무실 개소로 지부 · 지회와의 연락체계를 갖춘 경불회는 10월 12~13일 대전경찰청 주관으로 전국 총무단 수련회를 열어 미흡한 조직체계 정비, 경승단과의 관계 정립 방안 등을 논의한다.

지역조직 확대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도 들입한다. 현재 10개 지방경찰청 68개 경찰서 지회를 거느리고 있는 경불회는 12월경 강원지방경찰청의 불교회를 구성하고, 내년 6월까지는 인천, 울산, 전북 등 3개 지방경찰청에 지부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지부가 설립될 경우 경불회는 모든 지방경찰청에 지부조직을 갖게 된다. 또 창립되어 있으나 가입되지 않은 30여 지회의 가입도 함께 추진한다.

김진홍 사무국장은 "사무국과 각 경찰서 총무단을 중심으로 경찰포교 방안 마련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 내달 자광원서 일일봉사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회장 박우락)는 10월 1일 노인복지시설인 성남 복정동 자광원으로 일일봉사를 떠난다.

방 청소와 주변 정리 등 하루 동안 어르신들을 뒷바라지하게 될 법우회는 매년 가을 성지순례를 가져오다가 올해부터 봉사활동으로 전환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회적으로 실천한다는 취지에서다. 회원들로 구성된 풍물패와 국악인을 초청해 경로잔치도 마련한다.

법우회는 매년 복지시설을 찾아 일일봉사를 정례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족들도 함께 동참시켜 가족애도 키운다.

"불교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돼야"

박우락 회장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불자로서 기본적인 일입니다. 이왕이면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활동으로 신행을 펼치는 것도 좋겠다 싶더군요."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꾸준한 지원을 펼치고 있는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의 박우락(55 · 사진) 회장은 "조금만 눈을 돌리면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며 "그들에게 불교가 희망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월 1일 실시될 성남 자광원 1일 봉사도 박 회장의 이같은 생각에서 추진됐다.

박회장은 법회 때마다 가족이 함께 동참하도록 한 것은 물론 부인들의 모임인 승만부인회 활동을 적극 독려했다. 앞으로도 기존의 딱딱한 법회형식을 탈피, 다양한 내용과 주제를 정해 법회를 열어 회원들의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경보스님으로부터 '혜능'이라는 법명을 받은 박 회장은 가족 중심의 신행활동을 늘 강조해 오고 있다.

우리 모임에선

세무사불자회 봉은사서 정기총회

한국세무사불자회(회장 정구정)는 12일 오후 6시30분 서울 삼성동 봉은사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결산보고와 일부 임원진 개편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잔잔한 불교음악으로 음반을 낸 바 있는 심진스님이 법문한다.

한편 세무사불자회는 국세청 브리회와 매월 갖기로 했던 합동법회를 자체법회가 필요하다는 회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분기별 1회로 조정했다.

대한중석초경 석불회 철야정진

대한중석초경 석불회(회장 임갑수)는 27일 대구 팔공산 갓바위에서 철야정진을 갖는다. 27일 야간산행으로 갓바위에 올라 1080배와 축원, 예불 등으로 진행되며, 회원 및 가족 40여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운불련 안양운동장서 체육대회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회장 김주본)는 29일 오전 10시 안양 공설운동장에서 전국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안양지역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체육대회는 축구, 족구, 800m 계주, 줄다리기, 제기차기, 훌라후프 등 6개 종목으로 지역회별 대항전으로 치러진다.

봉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 창종공고 축

국가기관 등 고유번호 204-82-62512

第1章 宗名 및 宗旨

第 1條 本宗은大韓佛敎曹溪宗 三和佛敎이라 稱한다.
本宗은 新羅 道義國師가 創建한 迦智山門에서 起源하여 高麗普照國師의 重闢을 거쳐 太古普愚國師의 諸宗包攝으로서 曹溪宗이라 公稱하여 而後 그 宗脈이 綠綠不絶조계종 삼화불교한 것이다..

第 2條 本宗은 釋迦世尊의 自覺覺他 覺行圓滿한 根本敎理를 奉體하며 直指人心見性成佛 傳法度生함四分律을 宗旨로 한다.

第 3條 本宗의 所以經典은 四分律金剛經과傳登法語로 한다.
其他 經典의 硏究와 念佛持昧 等은 제한치 아니한다.

고문변호사 용 태 영
회장변호사 이 정 락

장 로 원 법 종(法宗), 송 산(松山), 왕 천(王天), 혜 경(慧京) 송 파(松坡), 법 련(法蓮), 도 일(道日)
율 원 장 : 律 山
선 원 장 (방 장) : 월하(月下) 일허
역 경 원 (학림원장) : 법 종(法宗) (교육, 포교)

총무원장 혜 인(慧印) 기획실장 금 당
종회의장 송 산(松山)

총무부장	혜 만(慧卍)	총무국장	법 해
기획부장	동 산(東山)	국 장	혜 심
재무부장	혜 관(慧觀)	국 장	대 도
교무부장	법 정(法貞)	국 장	민 광
감찰원장	법 련(法蓮)	국 장	태 함
사 회 부	초 산(草山)	국 장	진 호
포교부장	정 산(正山)	국 장	인 혜
	원 명(圓明)		

서울종무원	동부 - 대 도(大道)
	서부 - 태 함
경 기 도	동부 - 성 관(成觀)
	서부 - 법 정(法貞)
강 원 도	성 인(性印)
충청남도	보 광(普光)
충청북도	동 산(東山)
전라북도	정 산(正山) 법 성
전라남도	혜 월(慧月)
경상북도	혜 관
경상남도	무 원(無圓) 혜 명
제 주 도	효 문 남 산

삼화불교대학 학 장	혜 인	주간종교신문 사 장	법 성
총무처장	혜 만	발 행 인	혜 인
교학처장		편 집 인	동 산
학생처장	손영진	주 간	김점주
조 교	정금옥	교 정	조 일
	김점주	송 달	삼 주
총 무	조 일	기 자	현욱, 최훈, 성훈, 윤기순

종회의원
법 종(法宗), 송 산(松山), 왕 천(王天), 혜 명(慧命) 송 파(松波), 법 련(法連), 혜 인(慧印), 태 합(太合) 무 원(無圓), 행 록(行綠), 도 성(道性), 혜 종(慧宗) 성 관(成觀), 현 성(現性), 봉 선(奉先), 법 정(法貞) 각 원(覺圓), 혜 은(慧恩), 혜 관(慧觀), 현 경(現京) 송 광(松光), 월 성(月性), 법 련(法連), 금 당(金堂) 남 산(南山), 보 광(普光), 무 광(無光), 혜 만(慧卍) 도 월(道月), 성 인(性仁), 도 운(道雲), 인 해(仁海) 명 광(明光), 혜 광(慧光), 혜 명(慧命), 혜 성(慧性) 삼 화(三和), 법 인, 성 담, 덕 산, 혜 각, 혜 원, 남 산 중 산, 숭산중비, 련 성, 인 공, 해 인, 지 산, 가 산일광, 원 각, 일화, 금화혜천, 각 원, 본 각, 동 산, 법 성

◆本 寺 : 서울특별시 삼각산 해인사 ◆총 무 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표전화 : 02)511-1080, 511-2026, 2027 팩스 : 02)511-2028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9월-불서 읽기의 달

- 매일 시간정해 책을
- 경전부터 읽자
- 선물은 불서로
- 절마다 도서관 만들자

경전부터 읽자

불교의 모든 사상의 출발점은 바로 경전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만큼 부처님의 진리가 실려져 있는 경전은 불교를 공부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기본서이다. 이에 각 사찰을 비롯해 직장직능 단체 등 신행단체들은 '경전 공부반'을 만들어 지도법사를 두고 체계적으로 경전을 공부하고 있다. 서울 개포동 금강선원 경전연구반에 다니는 김양숙 보살(48)은 "법문은 한 번 듣고 끝나기 때문에 들을 때는 배우는 게 많지만 막상 법당문을 나서면 잊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러나 경전공부는 예습과 복습을 통해 부처님의 감로수 같은 가르침을 반복해서 익히기 때문에 불교의 참 맛을 체험할 수 있어 신심이 절로 생긴다"고 즐거워 한다.

팔만대장경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불교의 경전은 그 수나 규모가 방대하다. 그러면 이렇게 방대한 양의 경전 가운데 어느것 부터 먼저 읽어야 할까. 차차석 박사(동국대 강사)는 "초심자들은 부처님이 하신 설법을 이야기식으로 현실적인 예화를 들어가며 재미있게 서술해 놓은 〈잡아함경〉부터 읽는 것이 불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또 "〈잡아함경〉을 읽은 후에는 읽기쉬운 경구나 잠언 형식으로 되어 있고 부처님 당시의 원시불교를 느낄 수 있는 〈수타니파타 경집〉이나 〈법구경〉 등을 읽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어느정도 기초가 쌓인 중급 수준의 불자들에게는 초기 대승불교경전인 〈금강경〉, 〈유마경〉, 〈법화경〉, 〈십지경〉 등을 권하고 싶다"고 말한다.

불교방송에서 8년동안 '경전공부'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은 "당장 읽기 편한 수필류의 가벼운 불서보다는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총체적으로 집약돼 있는 경전부터 차근차근 읽는 것이 올바른 불교사상을 정립시켜 나가는 지름길이다"고 경전읽기를 강조한다. 또 스님은 "〈화엄경〉이나 〈육조단경〉 같은 일반인들이 혼자서 이해하기 힘든 경전들은 전문가들이 강의하는 경전공부반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소개한다.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부는 책읽기 좋은 계절이 왔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경전삼매에 빠져보는 것이 어떨까. 바로 이것이 신행 365일을 위한 첫 걸음이다.

김주일기자



◇라이코스 불교동호회 연꽃핀 천불정사 회원들이 함께 경전 강독모임을 갖고 있다.

초심자 잡아함경부터 시작 바람직

화엄경 · 육조단경 경전반이용 도움

신행 캘린더

9월 12일 (목)

■서울시 무용단 '우리춤 공연'=서울시 무용단이 12일 13일 양일간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우리춤 그 일곱 빛깔의 서정과 변주' 공연을 한다.

한국 춤의 레퍼토리를 보여주는 이 공연은 부채춤, 승무, 바라, 살풀이 등 모두 7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춤의 동적인 미와 정적인 미를 두루 살펴볼 기회.(02)2263-4680

■정각사 '반야심경 특강'=물질에 대한 집착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지금 반야의 공(空) 사상을 접할 기회가 마련됐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방배동 정각사에서 동국대 권기종 교수가 강의하는 반야심경 특강이 그것.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동참할 수 있고, 참가비도 무료. 명 강의로 유명한 권 교수에게 직접 반야심경을 배울 수 있다. (02)584-1983

9월 13일 (금)

■양명 상원사 '산사음악회'=고요한 산사에 웬 음악소리? 양평 상원사에서는 가수 장사익, 한영애, 심진 스님 등이 출연하는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신도와 지역주민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산사의 운치도 즐기고 음성 공양도 즐길 수 있는 자리. 오후 6시 30분. (031)773-4634

■월정사 '주말수련회'=월정사의 전나무 숲길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천년의 시간 동안 낯선 길손을 지혜의 문으로 인도한 그 길….

조계종 포교원과 오대산 월정사가 함께 개최하는 주말 수련회 '천년의 기다림'이 15일까지 개최된다. 모집인원은 10명 내외. 참가비는 1박2일 3만원, 2박3일 5만원.(033)332-6664

■동산불교대 '산스크리트어 강좌'=동산불교대에서 근본 경전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 다지기 차원에서 산스크리트어 강좌를 마련했다.

중앙승가대 최종남 교수의 강의로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열리는 이번 강좌는 개설예정인 팔리어, 티베트어 강좌를 수강하는데 도움이 될 듯.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고 싶은 불자들에게 좋은 기회.(02)732-1206

9월 15일 (일)

■제9회 장애우 나들이 행사='부처님의 자비를 우리사회의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라는 취지로 시작한 장애우 나들이 행사가 어느덧 9회를 맞이했다.

올해는 '아름다운 한걸음'이란 주제로 오전 9시 30분 광진구 능동 어린이 대공원에서 개최한다.

우리는 선우 주최로 열리는 행사는 장애우 1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행사에 도움을 줄 장애우짝 도우미 100명과 차량도우미 50명(차량 50대)을 기다린다. 장애우와 함께 하고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환영.(02)2278-8672

■용진신행회 '성지순례'=용진신행회는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창건한 봉화 청량사를 찾는 사찰순례 여행을 마련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종이로 만든 지불(紙佛) 부처님을 모시고, 공민왕이 직접 쓴 '유리보전'이라는 현판이 있는 청량사를 찾아 철야정진 기도를 봉행한다. 출발은 오전 6시. 장소는 을지로 6가 국립병원 앞. 참가비는 2만5천원.(02)2279-1191

■맑고 향기롭게 알뜰시장 개설=재활용 의류, 도서류, 각종 생활용품 등을 팔거나 사고 싶습니까? 오전 10시 성북동 길상사로 오시면 됩니다. 무공해 세제, 우리 먹을거리, 무공해 내지 저공해 환경상품 홍보 및 판매도 합니다. 이 글은 광고가 아닙니다. 수익금 전액이 어려운 이웃돕기에 쓰이니까요.(02)741-4696

"남 위해 봉사하는 일도 기도며 수행"

우리 절 우리 신도

광주 증심사 장귀례증심회장



◇광주 증심사 장귀례 회장(맨 왼쪽)이 회원들과 함께 공양간 뒤 장독을 닦고 있다.

50여년 신도…쉰넷 때 불교대학 수학

사찰음식의 불교적 맛·의미 알리고파

9월 1일, 관음재일. 법회가 끝나자 신도들이 공양간으로 밀려들었다. 일요일이었던 이날 평소보다 많은 4백여명의 신도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점심공양을 준비하던 보살들의 일손이 더욱 바빠졌다. 공양간의 보살들은 절에서 큰 행사가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달려오는 '증심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증심회)' 회원들이다. 이들 중 맏언니인 장귀례 보살(59 · 법명 옥호광)은 회장이라는 소임을 맡았다.

법회가 있는 날, 장 보살은 증심사에 와도 스님의 법문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 새벽같이 절로 오지만 법회와 공양물, 점심공양을 준비하느라 정작 법회에는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회와 점심공양을 마친 신도들이 돌아가고 난 뒤 뒷정리까지, 하루종일 녹초가 되도록 일을 하고서야 집에 돌아간다. 하지만 장보살은 물론 증심회 회원 누구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는다.

"법회와 기도를 마친 불자들이 귀가하고 난 다음에야 법당에 모여 좌선과 기도를 하죠. 남을 위해 봉사하는 일이 곧 기도요 수행이라는 주지스님의 말씀을 위안으로 삼습니다."

증심회는 제방선원 공양이나 불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열심히 수행하는 스님들을 후원하는 일이야말로 재가불자로서의 도리라고 말하는 장 보살은 회원들에게 늘 고마움을 느낀다. 노력봉사는 물론 재물 보시까지 아끼지 않는 도반들을 보고 저들처럼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곤 한다.

"회원들이 있어서 그 많은 절일을 다 해낼 수 있거든요. 몸으로 도움을 주진 않지만, 우리의 활동을 보고 말없이 후원해주는 불자들도 큰 힘이 됩니다."

장 보살은 '처음 발심한 그 마음이 곧 깨달음'이란 경구를 좋아한다. 처음 절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할머니가 보여준 정성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늘 되새긴다. 언제나 20리가 넘는 길을 걸어서 증심사를 참배하곤 했던 할머니는 공양 올릴 쌀을 머리에 이고 오다가 힘들어 잠시 쉴 때에도 쌀을 절대로 땅바닥에 내려놓는 법이 없었다. 부처님에게 올릴 공양물을 바닥에 놓으면 정성이 부족하니 힘들더라도 무릎 위에 올려 놓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할머니의 가르침이 장 보살에게는 초발심이 됐다.

처음 절에 다니면서 장 보살은 스님들과 불자들로부터 '막내보살'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댁시절 증심사에 다니는 불자 중에 가장 어리다는 이유로 붙여진 별명이다. 별명으로 통하다 보니 40년이 지난 지금도 막내보살로 통하고 있다. 하지만 장 보살은 오히려 이 별명이 도움이 될 때가 많다고 말한다. 부담 없이 부르는 덕택에 낯선 불자들과도 쉽게 친해질 수 있고, 증심사의 본사인 송광사 스님들도 특이한 별명 때문에 장 보살을 잘 기억해 주기 때문이다.

장 보살은 쉰네 살 되던 97년 광주불교문화대학에 입학해 늦깎이 공부를 시작했다. 오랫동안 절에 다니면서도 교리와 경전에 대해 잘 모르는 자신이 부끄럽다는 생각에서였다. 지금은 2년과정의 불교대학원에서 경전공부에 열심이다.

장 보살은 여유가 된다면 사찰음식전문점을 열어 일반인들에게 사찰음식에 깃든 불교적 의미와 참맛을 알리고 싶다는 원을 갖고 있다. 공양간에서 배운 음식솜씨도 활용할 겸 사찰음식을 통해 불교와 사찰문화를 알리는 포교사가 되고 싶은 것이 소망이다.

"이제는 절일이 내 일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다른 불자들도 절을 멀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 일처럼 여기며 열심히 공부하고 정진한다면 더 값진 신행활동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광주=박봉영 기자

추천의 말

일철스님 중심사 주지



어렸을 적 할머니를 따라 증심사에 다니기 시작한 장귀례 보살은 50여년동안 이곳을 지켜온 산증인입니다. 오랜 세월 다녔으니 아만심도 생길만한데 언제나 겸손하고 늘 한결같습니다.

법회가 있는 날이나 절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공양간에서, 법당에서, 혹은 마당에서 일하는 장 보살의 모습은 불자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지요.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모든일에 솔선수범하며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도들은 장 보살이 억척스럽다고들 합니다. 부러움과 칭찬의 표현이죠. 장 보살의 억척스러움에는 증심사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증심회'라는 후원모임의 회장을 맡아 신도들 뒷바라지까지 애쓰고 있는 장 보살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입산 출가 후 줄곧 참선 수행에 정진해온
한 납자의 구수하면서도 진솔한 수행이야기!!

깨달음을 향한 치열한 수행, 가슴을 저미는 애틋한 사연, 세속을 떠난 여유,
피식 웃음을 자아내는 재미, 우리 삶을 일깨우는 작은 울림

선방 이야기
토굴土窟이야기
능인 스님 씀

맵고 짠맛에 길들여졌다가 양념 하나 안된 자연식을 맛보았을 때의 느낌이 이럴까. 복잡한 사회에서 숨돌릴 틈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청량제가 될만한 책. 읽다보면 문득 '깨달음'에 한 걸음 다가선 듯한 느낌에 빠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대한매일신문

국판/230쪽/7,500원

티베트 밀교 무상 심요법문 【無上 心要法門】

티베트 밀교의 정수를 담고 있는 〈대수인법문〉에 대한 해설!

심요 법문이란 마음 수행의 길에서 항상 수지하면서 수행의 지남으로 삼을 수 있는 짤막한 몇 구절의 요약된 법문을 말한다.
〈대수인법문〉은 대승의 교의를 통달하여 중과에 이르는 길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심요 법문이다.
이 원문을 자주 독송하고 심요로 삼아 호지한다면 흐트러지기 쉬운 일상생활에서 흔들림 없고 굳건한 수행심과 신앙심을 지니게 될 것이다.

박건주 역해/국판양장/205쪽/8,000원

원리를 알면 漢字를 쉽게 깨우칠 수 있다!

한자는 대부분 모양을 본떠 만든 상형문자이거나 추상적인 지사문자, 그리고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부수나 글자의 어원을 이해하면 그것을 확장하여 다른 글자의 뜻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이제 나도 한자 전문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면 누구나 재미있게, 쉽게 익히도록 이야기식으로 꾸미고 있는데, 글자마다 그 글자가 본시 어떤 내용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졌나 하는 어원을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 쓰이는 한자말을 응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1,800여 한자를 중심으로, 반복학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원리를 이해하도록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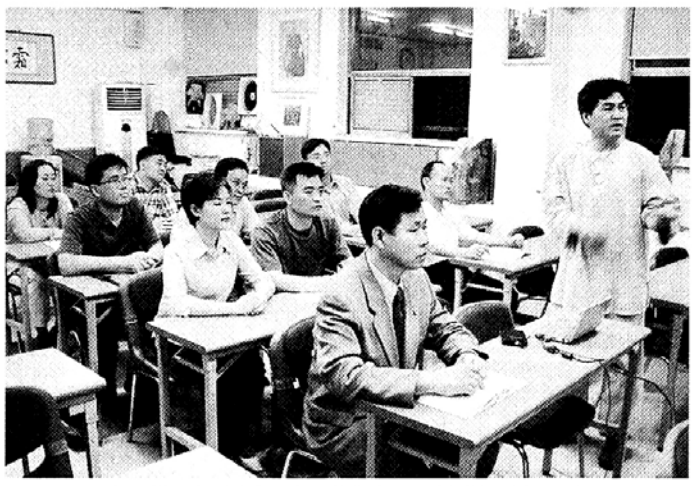
신용태 저/신국판/554쪽/17,000원

한 권으로 끝내는 한문 문법과 해석! 알기쉬운 한문 해석법
심재동 지음/신국판/383쪽/12,000원

운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 타운힐 빌딩 3층
전화 02)3672-7181~5 (출판부) 926-8361

불교대학을 찾아서

⑫ 만해대학



◇5일 대불청 만해교육관에서 열린 만해대학 2학기 개강법회 모습.

대불청 부설…오늘의 '만해' 배출이 목적
교과편성 생활속의 실천·수행 중점
내년 미얀마등 해외불교과목 개설 계획

재학생 평균 연령 30대 초반. 강사진 5명 모두 포교현장에서 발로 뛰는 재가법사. 청년불교 활동가 양성과 재교육을 위한 '근본불교'와 '수행론' 중심의 순환 커리큘럼. 작지만 알찬 '젊은 대학', 만해대학(학장 석주 스님)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반. '청년 만해'를 꿈꾸며 15명의 청년불자들이 서울 수송동 만해교육관에 모여 든다. 이들이 이 곳을 찾는 이유는 바로 일선 포교현장에서 잔뼈가 굳은 강사진이 전하는 '살아있는' 강의가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포교분야 박영동 교법사(동대부고)와 백남석 법사(대불련 지도법사), 사찰문화 연구가 한정갑 법사(불교문화연구원), 근본불교 전문가 송위지(한국외대) 교수, 백도수(동국대 박사과정) 법사. 이들 교수진이 토해낼 열강만으로도 이 대학의 '청불(靑佛) 학풍'을 대변한다.

만해대학 학풍은 한용운 스님의 사상과 맞닿아 있다. 일제 강점기에 민족자주 독립정신과 불교혁신론 등을 펼친 만해사상을 이 대학 설립이념으로 하는 만큼, 교과과정은 생활 속에서 불법을 실천·수행하는 청년불교 지도자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만해대학은 〈만해사상론〉을 비롯해, 〈생활 속의 실천수행〉과 〈불교수행론〉이란 불교입문 과목, 근본불교 중심의 〈부처님의 위대한 삶〉, 〈불교사상〉, 〈불교사의 바른 이해〉, 〈비교종교학〉 등 총 7과목을 개설했다.

또한 만해대학은 학생회와 신도회 사이에서 청년층 불자들이 '허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 여름과 겨울 방학에 다양한 공개강좌를 열고 있다. 이미 설립 초부터 만해대학은 어린이, 청소년법회 운영 실무강좌 및 청년회 및 신도회 활동지침 특강 등의 개설은 물론, 1박2일 간 실시하는 불교문화 유적을 찾아가는 '탐방학습', 참선 실수 등의 수행체험 프로그램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한국불교를 이끌고 갈 핵심적 '일꾼'은 바로 청년층 불자임을 강조한 만해대학의 설립 취지에 따른 것이다.

만해대학은 1988년 30여명의 청년불자의 신청을 받아 2개월 과정의 교양강좌로 문을 열었던 만해학당을 전신으로 하고 있다. 서울불교청년회 연수원에서 운영됐던 만해학당은 열악한 재정상의 문제로 잠시 중단되는 아픔도 겪었다. 이후 1996년 3월 만해대학 제1기 신입생을 모집했다. 이 때, 만해대학은 2학기 1년제로 확대 개편되고, 정규반과 통신반으로 나눠 대학문을 다시 열게 됐다. 첫 해 52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만해대학은 지금까지 청년불자 700여명을 배출, 명실공히 '청년불교 양성 교육도량'으로 자리 잡고 있다.

만해대학 김현자 교학처장은 "청년조직인 대불청에서 자체적으로 설립한 대학인 만큼 재정이나 교과과정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내년부터는 환경, 통일, 봉사 등의 NGO 관련 사회활동과 함께 미얀마·티베트불교 등의 해외불교 과목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2)738-1920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향후 사찰학생회 지도법사로 활동
10기 재학생 박승철 법우



"청년불자로서 자긍심을 느끼게 됐습니다."

박승철(29·하나로통신 운용팀) 씨. 그는 무엇보다도 단편적인 지식으로만 알았던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1년 전부터 서울 영화사 청년회장을 맡고 있는 박 씨는 청년회 발전 방향성 정립에 대해 고민을 해왔는데, 강의를 받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으로 학생회 지도법사로 활동하겠다는 박 씨는 "교수님의 포교경험을 빠짐없이 챙겨가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어류14종·붉은귀거북 등 금지
황조롱이·버들치·재첩등 권장
조계종, 방생지침서 각 사찰에 배포



방생금지 사례	방생권장 사례	
물루길, 배스, 이스라엘잉어, 떡붕어, 나일틸라피아, 철갑상어, 무지개송어, 칼납지루, 버들개, 자가사리, 가시고기, 미꾸라지, 비단잉어, 금붕어 등 어류 14종 붉은귀 거북, 사육된 꽝과 기러기, 수입 꽃사슴, 칡소 개구리	방생종목	황조롱이, 버들치, 재첩, 넙치
	문화 행사 및 캠페인	철새모이주기, 산나물 씨 뿌리기, 사찰생태기행, 환경캠페인 사형제 폐지운동, 헌혈, 장기기증, 화장서약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성타스님)는 생태적인 방생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방생지침서(사진)를 발간, 3일 전국 사찰에 배포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무분별한 방생은 자연생태계에 대한 인위적 간섭으로, 생태계를 교란시킬 위험이 있다"며 "외래종에 대한 무분별한 방생의 역기능이 현재 심각하게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불교계의 방생문화는 생태방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방생지침서 발간 이유를 밝혔다.

이번 방생지침서에는 부루길, 배스, 이스라엘 잉어 등 14종의 어류와 붉은귀거북, 사육된 꽝과 기러기, 수입동물인 꽃사슴 등이 방생금지 종목으로 지정됐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황조롱이, 버들치, 재첩, 넙치를 방생권장 종목으로 꼽았고 사찰생태기행, 사형제 폐지운동, 장기기증, 사후회장 서원운동 등을 바람직한 방생문화 정착을 위한 행사로 지정했다. 또한 방생 장소와 방생 시기, 방생물의 개체수 등도 방생에 앞서서 꼭 고려될 내용이라고 지적됐다.

방생지침서는 그간 불교계 일각에서 문제가 되어오던 어류방생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연과 생명을 살리는 구체적인 자비행이 실천될 수 있도록 조계종 환경위원회에서 1년여의 사려수집과 연구성과를 통해 발간된 것이다.

또한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방생금지로 지정됐다고 황소개구리 등에 대한 무자비한 살생을 저지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과 환경위원회는 방생지침서 발간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방생현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 환경을 저해하는 방생이 시행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강유신 기자

'시인 김홍성의 네팔사는 이야기'는 필자의 개인사정으로 한주 쉽니다.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당장은 프린터가 필요한 남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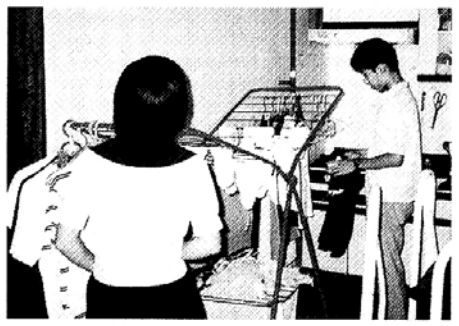
"의사의 꿈 꽃피우겠어요"

간경화 아버지 타계…얼마뒤 어머니도
정부-각단체 후원금으로 어려운 생활

전국이 태풍 루사가 남긴 상처로 신음하고 있을 때,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최병환(17, 남양주 동아고등학교1) 최은영(15, 남양주 미금중학교2) 남매의 집을 찾았다. 나팔꽃이 남매의 보금자리인 연립주택 1층 베란다를 타고 꽃망울을 툭 터트리고 있었으나, 집안은 휑한 느낌만 들었다. 거실에는 텔레비전 한대에 아무것도 올려지지 않은 선반 하나, 빨래건조대 하나, 그리고 남매들 뿐.

자신들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엉거주춤 앉아 있는 모습이 이런 자리가 꽤나 어려운 모양이다. 남매가 이렇게 남 앞에서 당당하게 행동하지 못하기 시작한 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다.

"제가 초등학교 1,2학년 때부터 아버지가 간경화로 병원을 드나들기 시작하셨어요, 술을 좋아하셨거든요. 간경화 선고를 받고 나서도 아버지는 술을 끊지 않으셨어요. 그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시기도 많이 했구요. 결국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남매가 다정하게 빨래를 건조대에 널고 있다.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말투가 제법 어른스럽다. 어쩌면 자신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원망도 있을 법 한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툭툭 내뱉는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집안 생계는 어머니가 도맡았다. 낮에는 집 근처 봉제공장에서 미싱일을 하고, 밤에는 집안 살림을 했다. 너무 무리했을까, 아니면 아버지가 남긴 상처가 컸을까. 어머니도 덜컥 자궁경부암을 선고받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채 1년이 되지 않아서였다.

"처음 2~3개월 동안은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했어요. 제가 어려서 잘은 모르겠지만 병원비가 부담이 되신 것 같아요. 그 후 1~2년 동안은 집에서 살림을 하시며 통원치료를 받으셨구요. 그러다 거동조차 어려워 집에서 누워만 계셨어요."

어머니의 치료비는 살던 집 전세금을 빼 충당했다.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간 뒤, 생활비는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생계급여로 버텼다. 거동조차 불편한 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도, 행복했다. '어머니라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조그만 행복도 작년에 사라져버렸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남긴 건 보험금 조금, 이것저것 다 제하니 단돈 3천만 원이 남았다. 그 돈으로 지금의 보금자리로 옮겼다.

병환이는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이다.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하고 나면 저녁 9시 쯤. 이후에는 인근 학원 원장선생님의 배려로 무료로 보습학원에 다닌다. 마치면 12시. 가로등도 제대로 없는 길을 혼자서 터벅터벅 걸어온다. 어머니가 아프신 것을 보고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다지며 발끝에 힘을 준다.

은영이는 꿈 많고 가지고 싶은 것 많은 중학교 2학년처럼 보이지 않는다. 전에는 미용사가 되고 싶다는 꿈도 가졌지만 이제는 모든 것에 시큰둥하다. 하교 후 다른 친구들은 학원에 가느라 바쁠 때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으로 시간을 때운다.

필요한 것이 뭐냐는 질문에 겨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프린터요'라고 대답하는 병환이. 모든 일에 시큰둥한 은영이. 병환이 은영이 남매가 집 앞에 핀 나팔꽃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의견을 표출할 때,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당당할 수 있을 것이다.

주소:472-080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100-1 미금연립A동 104호

전화번호:031-569-3713

후원계좌:농협 204030-52-145237 (예금주 최병한)

남동우 기자

불가의 비법과 선인의 비전을 합방한 기적의 신물질!

"화림한방화장품"은 자연의 순수 한방약재를 주원료로 하여 고대 동양 미인들이 애용하던 주안술을 이용하여 당사 연구진이 개발한 특허출원 준비중인 제품이다.
생약성분에서 추출한 기적의 신물질 "전단물질"이 미백효과, 피부 노화방지, 기미 및 각질제거, 주름제거 등 각종 피부고민으로 부터 여성을 해방시켜주며 모든 여성들을 건강하고 탄력있는 피부, 부드럽고 보송보송한 피부, 항상 촉촉히 젖어 있고 윤기있는 피부로 가꾸어 준다.

출시 품목(화장품)

◈ 한방에센스 크림 ◈ 한방베이스 크림 ◈ 한방미백크림
◈ 한방 아이크림 ◈ 한방 영양크림 ◈ 한방 밀크, 스킨 로션

출시 품목(비누)

◈ 서시한방비누(여드름 제거용) ◈ 옥용한방비누(피지 제거용)
◈ 수다라한방비누(미백용/클린싱 크림효과)

세계 각국 특허 출원 준비 중

불자로써 화장품 및 비누 사업에 참여하실 분 (소자본 가능 / 재택 근무 가능)

HR herbal medicine Cosmetics (주) 화림한방화장품
www.hrcos.com

전국지사◈대리점모집

"화림한방바이오"의 제품들은 불가 선사의 문중으로부터 전수받은 "법제와 구증구폭"의 비법을 현대의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방법으로 생산하였다. 다이어트 식품은 식사를 즐기면서도 살을 줄일 수 있고 요요현상이 전혀없으며 다이어트 최대 난제인 복부비만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장을 청소하여 인체의 체지방을 제거함으로써 비만의 근본 원인을 해결한다. 또한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게 하며 몸의 가뿐함을 만끽할 수 있다. 선식은 성인을 위한 건강식, 청소년을 위한 영양식, 유아를 위한 이유식으로도 훌륭할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효능도 있어 일석이조의 새로운 개념의 선식이다.
향은 천연향으로 제조되어 악취제거, 공기정화 기능이 탁월하여 제사용으로 뿐 만 아니라 가정, 사무실, 고시원 등 일상 생활에 널리 이용할 수 있다.

출시 품목(식품/향)

◈ POINT24 - 최상의 다이어트 식품(식사를 즐기면서...)
◈ 달마선식 - 다이어트 식품 겸용 건강선식
◈ 화림비향 - 새로운 개념의 향, 먹을 수 있으면서 피우는 향

세계 각국 특허 출원 준비 중

불자로써 다이어트 및 건강식품 사업에 참여하실 분 (소자본 가능 / 재택 근무 가능)

HR herbal medicine Bio (주) 화림한방바이오
www.hrbio.com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254-16 Tel : 053)313-2711~15 Fax : 053)313-2716

박영재 교수의

첨단 과학과 불교 ⑬



그림 · 문병성

성형 · 외모지상주의

첨단과학의 발달에 힘입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분야 가운데 성형의학 분야(16세기 볼로냐의 탈리아코찌가 코 없는 환자의 팔의 살을 이용하여 코를 만들어 준 일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음)가 있다. 지난 2002년 4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 세계 성형학회에서 마르고 뼈대가 튀어나온 얼굴을 부드럽게 해주는 '미세지방이식술' 분야에서 한국 성형의학이 세계적 수준으로 인정받았다고 한다. 어쩌면 이런 성과는 2002년 현재 한국의 다이어트와 미용성형 규모가 1조5000억 원을 차지하는 데에 기인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현재 강남에만 성형수술 병원이 1천 개가 넘고, 어느 여성은 5천만 원을 들여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그 규모가 더 커질 것은 자명하다. 그런데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이 무리한 다이어트와 성형수술을 강행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꼽고 있다. 첫 번째는 외모 자체에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모에 대한 상대적인 콤플렉스를 가지고 왜곡된 서구화된 미의 기준을 쫓는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다이어트나 성형수술의 효과는 과장하고 부작용은 숨기는 상업만능주의가 그 원인이다. 참고로 몇 해 전 한 성형의사의 경우, 안면주름살 제거 수술 중 혈액응고 장애가 있는 고객에게 혈액 검사도 않은 채 수술을 했다가 과다출혈로 사망, 대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유죄판결을 받았다. 아울러 외모 성형수술을 경험한 청소년들 가운데 '수술 후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다'는 체험담들도 손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성형수술의 부작용들에 관해 적지 않은 사례들이 있으나 언론이 시청률이나 구독률 높이기에 급급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본다. 물론 암을 제거한 뒤나 외상으로 신체의 조직을 잃거나, 손가락이 잘라졌을 때 시술하는 미세재건 수술, 선천성 안면기형 수술 등은 꼭 필요한 성형의학 분야이다.

한편 '무문관' 제 22칙에 '가섭찰간(迦葉刹竿)'이란 화두가 있다. 가섭에게 어느 때 아난이 묻기를, "세존께서 '금란가사'를 전한 외에 따로 어떤 것을 전하셨습니까?" 가섭이 이때 "아난아!"하고 부르자, 아난이 "네!"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가섭이 "문전(門前)의 찰간을 거꾸러뜨려라!". 이 화두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고 있던 아난은 단지 전법(傳法)의 표증일 뿐인 금란가사에 대한 집착뿐만 아니라, 그 외 또 따로 전한 것이 없는지에 대해 묻고 있음을 통해 그의 미숙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덧붙여 금란가사에 관하여 필자의 솔직한 견해를 몇 마디 더 하기로 하겠다. 가끔 언론에 잘 알려진 몇몇 스님들이 번쩍거리는 금란가사를 입고 행사를 주관하는 모습을 언론매체를 통해 접할 때마다 과연 오늘날 명망 있는 스님들께서 꼭 금란가사를 걸쳐야만 수준 높은(?) 일반 대중들로부터 훌륭한 스님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곤 하였다. 사실 잘 따져보면 금란가사 역시 누더기 옷과 똑같이 우주를 이루고 있는 사대(四大: 90여 종의 원소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허망한 눈이 법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는 누더기로 하나는 금란가사로 볼 뿐이다. 비단 금란가사에 한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인들은 무수히 많은 집착을 하며 살고 있다. 좋은 외모뿐만 아니라 황금, 권력, 명예를 갖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중생들의 마음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수행하시는 스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보다 철저히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들 각자 자기의 일상을 순간순간 돌아보며 외모를 포함한 허망한 겉껍데기들에만 집착하는 일이 자신에게는 없는지 깊이 점검하는 일이 급선무라 생각한다.

자! 어떻게 하면 금란가사를 포함한 일체의 집착을 끊을 수 있겠는가? 필자가 속한 선도회에서 지난 8월 13일 담양 대나무숲 속의 청와헌(靑蛙軒: 선도회 광주선원)에서 3박4일 선수련회를 가졌다. 초등학생에서 70대 노선객까지 40여분 이상 참 나를 체득하려는, 외모가 아닌 내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분들로 이루어진 수련회였다. 함께 수행한 분들 가운데 처음 참석했던 한 분의 수련 후 소감을 소개하며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대신하고자 한다.

"광주에서 하계수련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3박4일 동안 멋진 장소에서 좋은 분들과의 인연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지도법사님, 식사 때마다 정성껏 음식을 마련해주신 사모님, 함께 했던 도반님들, 낯선 곳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었던 청와헌의 아름다운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을 어귀에 웅성웅성 피어있던 연꽃과 아름드리 팽나무가 있던 정경, 서울 올라오면서 잠깐 들렀던 소쇄원의 대숲 바람소리가 지금도 눈에 아련합니다. 복잡한 도시의 일상에서 틈틈이 이 경험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yjpark@ccs.sogang.ac.kr

허망한 껍데기에 집착 안타까운 일
일상 돌아보며 내적 아름다움 다져야

이렇게 들었다

대학생 70.8% "존경하는 스승 없다"

스승 불신풍조

"제자가 스승을 모시고 갈 때에는 발로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않는다〈사미위의경〉"는 말이 있다. 스승을 존경하는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학생 10명중 7명은 존경하는 교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고 있는 세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대학문화신문이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서울시내 주요 10개 대학 50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생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8%(354명)가 '존경하는 교수가 없다'고 답한 반면 29.2%(146명)만이 '있다'고 대답했다. 특히 여학생들의 75.1%가 '없다'고 말해 남학생 67.7%에 비해 높아 교수사회에 대한 불신이 여학생들에게서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교수사회에 대한 학생들의 불신에 대해 서강대의 한 교수는 "온갖 비리와 부정으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불신 풍조가 학생들 사이에 만연한데다 최근 대학 내 교수 성희롱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학생들의 불신이 더욱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을 가르치는 스승조차 존경하지 않는 이러한 현실에서 과연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진정한 배움과 가르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제자가 스승을 섬김에는 마땅히 다섯 가지 일을 행해야 한다. 첫째는 공경해 존중함이요, 둘째는 은혜를 생각해 잊지 않음이요, 셋째는 가르침대로 따르는 일이요, 넷째는 싫증내지 않음이요, 다섯 째는 그 덕을 찬탄함이다. <육방예경>

▨스승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스승을 보았을 때는 겉에서 섬기고 보지 못할 때는 가르침을 생각하여, 효자가 부모를 생각하는 것 같이 하며, 사람들이 음식을 생각하는 것 같이 해야 한다. <중심경>

禪과 21세기

'임제록' 통한 선 공부 ㉕

경계따라 차별되지 않는다

도를 배우는 사람은 모름지기 스스로를 믿어야 하지, 밖으로 향하여 찾아서는 안 된다. 저 쓸 데 없는 경계를 숭상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전혀 분별치 못하는 짓이다. 예컨대 조사가 있고 부처가 있다고 하여도, 모두가 가르침의 흔적일 뿐이다. 어떤 사람이 한 마디 말을 꺼집어내어 모르는 사이에 드러내면, 곧 의심이 생겨나 하늘을 비추어보고 땅을 비추어보며 남에게서 찾고 묻느라 매우 바쁘다. 대장부라면, 주인과 도적 · 옳고 그름 · 재물과 여색 등 쓸데없는 것들을 따지면서 세월을 보내지 말라. 나는 여기서 승과 속을 따지지 않고, 오는 자는 모조리 알아차린다. 그가 어느 곳에 나타나더라도 다만 소리요 이름일 뿐이니 모두가 꿈이요 환상이며, 반대로 경계에 타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된다. 이것이 모든 부처의 현묘한 뜻이다. 부처의 경계도 스스로 자기가 부처의 경계라고 말할 수 없고, 도리어 이 의지함 없는 도인이 경계를 타고 나타나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가와 나에게 부처 구하기에 관하여 묻는다면 나는 곧 청정한 경계를 내어 응대해주며,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보살에 관하여 묻는다면 나는 곧 자비로운 경계를 내어 응대해주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보리에 관하여 묻는다면 나는 곧 깨끗하고 묘한 경계를 내어 응대해주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열반에 관하여 묻는다면 나는 곧 고요한 경계를 내어 응대해준다. 경계는 수만 가지로 차별되지만 사람은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사물에 응하여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마치 물 속의 달과 같다.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무엇보다 말에 끌려 다니지 말아야 한다. 범부 · 성인 · 중생 · 부처 · 보살 · 불법 · 세간법 · 출세간법 · 바른 견해 · 삿된 견해 · 수행 · 깨달음 · 점수 · 돈오 · 조사선 · 여래선 · 주인공 · 본래면목 등등 모두는 결국 말일 뿐이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보는 순간 그 하나하나에 대하여 어떤 그림을 그려서 이해한다.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므로 허망할 수밖에 없다.

뜻에도 쫓아가지 말고, 소리에도 머물지 말며, 느낌에도 구속되지 말고, 말하는 사람도 돌아보지 말며, 바로 지금 입을 열어서 말을 해보라. 이렇게 하면 말할 수가 없는가? 그저 아무 말이나 해보라. 아니면 지금 이 글을 읽어보라. 어떤가? 어디에도 관심을 두지 않고, 어디에도 머물지 않으며, 어떤 무엇을 의식하지 않아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 관심과 의식은 모두 모양을 갖추고 있으므로 허깨비이다. 그러므로 말할 줄 아는 것은 이런 허깨비와 달리 따로 있는 것이다.

바로 지금 말할 줄 아는 이것은, 의식될 수 있는 어떤 사물도 뜻도 그림도 느낌도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모양 있는 경계의 바탕이 되어 경계와 함께 나타난다. 경계가 있으면 이것도 있지만 경계가 바뀌더라도 이것은 바뀌지 않고 한결같다. 그러므로 〈반야심경〉에서는 5온은 다양하게 바뀌더라도 그 모두가 공일뿐이라고 하는 것이다. 공이라는 것은 한 물건이나 모양 있는 경계가 아니라는 말이다.

공은 고정된 사물이나 뜻이나 그림이 아니라, 지금 이러한 모든 경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살아 있는 것이다. 공이 경계의 생멸변화에 따라 생멸변화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 경계가 있으면 공의 작용을 알 수가 있고 경계가 없으면 공의 작용을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의식의 생멸변화 위에서 공에 통하는 것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지금 이렇게.

김태완 · 부산대 강사, 철학

■ 김태완 박사 선어록 강좌 안내
부산무심선원 매주 토요일 오후(2~5시). 수원 경기불교문화원 매달 1,3주 일요일 오후(1~4시) 문의 011-9520-0054(이정화)

사물에 응하는 모습 '물 속의 달'

영어로 배우는 불교용어

괘불 Large Scroll Painting 당간지주 Flagpole Supports

When special occasions are held outdoors, attendants place a huge scroll painting of the Buddha and Bodhisattvas in the open area, instead of using the small image enshrined in the Main Buddha Hall. In the past, there used to be a pair of great stone-supports in front of Main Buddha Hall. Their shape was similar to the flagpole supports at the entrance of the temple thought the size was smaller.

특별한 행사가 야외에서 열릴 때는 개방된 장소에 대웅전에 모셔진 작은 조상 대신에 부처님과 보살이 그려진 큰 괘불이 걸린다. 예전에는 대웅전 앞에 한 쌍의 지주가 있었다. 그 모양은 절 입구에 있는 당간지주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크기는 그보다 약간 작다.

In earlier times, at the entrance to most temples, there was a flag to mark the boundaries of the temple compound. The flags were hung on a wooden or iron pole called 'Dang Gan', which stood between two freestanding supports. The flagpole supports are made of stone.

예전에는 대부분의 절 앞에 절 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깃발이 있었다. 그 깃발은 두 개의 석조 지지대 사이에 서 있는 '당간'이라고 불리는 나무나 쇠 막대에 매달려 있다. 당간지주는 돌로 만들어진다.

만세력이 필요없는 책

육임래정비법혁신판

출생년월일시를 물을 필요 없는 책

찾아 온 시간, 전화 온 시간, 가서 만난 그 시간만으로 상대의 용건과 정황과 비밀한 사정을 미리 알아 먼저 말하고 그 방책을 판단해주는 비기서!

육임은 사람일을 밝히는데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그래서「五術之中帝王」이요,「神示」라고도 합니다. 오행(五行)을 몰라도, 이 책 그 날치 한장만 빼 놓고 그 시간만 보면 아래 내용을 미리 알고 먼저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여러사람이 차례대로 오거나 같은 시간에 여러사람이 한꺼번에 몰려 오더라도 각기 다르게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전화 했는지
-. 그 일이 잘 될것인지 안될 것인지
-. 가정이 부유한지 빈한한지 지금 가정에서 무슨 고민, 어떤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 현재 사는 집이 길상(吉相)인지 흉상(凶相)인지 어디로 언제 이사해야 개운될 것인지, 이사하면 언제 발복하게 될 것인지
-. 상대가 이익 줄 사람인지 피해 줄 사람인지 무능인 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 인지
-. 이미 일이 벌어졌는지 벌어질 것인지 언제 벌어지게 될 것인지
-. 옛날 일인지 최근사 인지
-. 남녀불문하고, 어떤 색정사가 벌어져 있는지 아니면 언제 벌어질 것인지 一男二女 관계인지 二男一女 관계인지
-. 지금 무슨 귀신의 침해를 받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뗄 수 있는 것인지
-. 현재 누구 산소의 탈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해소시킬수 있을 것인지
-. 무슨 병인지 고칠수 있을지 없을지 언제 낫게 될 것인지
-. 귀신 병인지 아닌지
-. 수법(천도 시식 굿 부적)을 행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언제 다시 판단해야 효과가 있을지
-. 집(토지)이 팔릴지 안팔릴지 언제 팔리게 될지
-. 시험에 붙을지 떨어질지
-. 선거에 당선 될지 낙선 될지 -. 승진이 될지 말지
-. 돈이 구해질지 어려울지 언제 돈이 될지
-. 임신한 아이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몇날 몇시에 태어날지
-. 경기 승부에 이길지 질지
-. 결혼이 성사 될지 말지 언제 결혼하게 될 것인지
-. 집나간 사람이 올지 말지 언제 오게 될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 도둑이 잡힐지 못잡을지 잃은 물건을 찾을지 못찾을지
-. 이 사람을 채용해야 좋을지 안좋을지
-. 투자를 해서 이익 될지 손해 날지
-. 이 가격이 높은지 낮은지 언제 사고 팔아야 할지
-. 이 산소가 좋은지 나쁜지 후손은 어떻게 살아 갈것인지
-. 무엇을 심어 어떤 결실이 얻어 질 수 있을 것인지
-. 비가 올 것인지 개일지 눈 비 바람이 몇날 몇시부터 오고 불 것인지

등 등 인간사의 모든 길흉성부를 즉시 말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둑을 잡아 주십시오

도둑놈들이 책을 대량 복사해서 팔러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본 책을 개인이 판매하러 다니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본사와 부산지사에서 전화주문으로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개인이 찾아와서 저와의 연고를 빙자하면서 이 책을 싸게 사라고 하는 것은 이 책을 조직적으로 대량복사 했거나 도용인쇄하여 팔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본이 아닙니다.
이렇게 책을 구입하셨거나, 개인이 찾아오거나 전화해서 책을 사라고 하는 경우를 겪으실때는 바로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인적사항과 인상착의를 함께 알려 주시면 본책을 한질 드리거나 현금1백 50만원을 즉시 사례하겠습니다.
저는 이책을 쓰기까지 처자식을 헐벗게 놔두고 7년을 산속에서 신음 했습니다.
또, 막대한 제작비를 들여 이 책을 만들어 냈습니다.
지난 2년여에 걸쳐 이 책이 신통하기로 검증이 되어 활인천역동역자 제위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로서 저는 가히 7년의 산생활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람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파렴치한 자들이 저의 책 설명 강의를 몇번듣고 저로부터 육임을 배웠다고 자칭하면서 마치 저와의 인연이 깊은양 말하고 다니며 제가 쓴 책들을 대량 복사하여 조직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의 이 고충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이 사람들을 바로 살게 하는데 협력하여 주십시오.
저의 직통 전화는 02)996-3335입니다. 효사 배상

사주나, 기문이나, 주역이나, 하락이수나 어떤 명리법술도 인사의 구체적 길흉성부 판단에 있어서는 육임을 따를 수 없습니다. 사주 10년을 해도 이 책 그날치 한장의 시간별 내용을 밝혀 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도(道)를 말 하나, 구체적인 물음에 구체적으로 즉답하지 못하면 진정한 활인천역(活人天役)이 못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문제와 당장의 의문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육임은, 마주치는 그 시간, 전화 온 그 시간으로 상대방의 비밀한 사정과 정황을 즉시 알고 그 문제점과 고민을 바로 해소시켜 줄 수 있게 됩니다. 한두가지의 예를 들자면, 마주친 그 순간에 어떤 귀신의 침해를 받고 있는지, 누구의 산소에서 탈을 부리고 있는지, 무슨 귀신병인지,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미리 알고 그것들을 해소시킬 방법을 제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 입시 선거 구재 취직 승진 매매 입신 가출 등등 인간사의 세부적인 것들까지 속시원하게 밝혀 줄 수 있어 진정한 활인천역을 수행 할 수 있게 됩니다. 육임은 딱딱 부러지는 묘미(妙味)가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내심(內心)의 갈등이 없습니다. 이책은 한마디로 염천행로(炎天行路)의 냉천수(冷泉水)같은 것입니다.

바인더차트 每一式
■ 활인전문천역자용 (부록 · 설명비디오 포함)
●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1,500,000 (휴대용)
●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1,300,000 (좌정용)
● 효사 육임강의록 ₩300,000
● 효사 육임비디오 강의수강(총 28개) ₩900,0000

● 강의신청「육임학당효사숙」02-998-8683
■ 각종 카드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 주문전화 02-993-8680 ▶ 부산지사 051-851-2349 ▶ 서울강남지사 02-2203-4805 ▶ 입금계좌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卜問

목어

자연친화적 불사



절이 들어서 있는 산중은 어디라고 할 것 없이 명당이다. 조용하고 자연 속에 묻혀있기에 찾는 이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준다면 바로 그곳이 명당임에 틀림없다. 딱히 불자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사찰을 찾는 이유는 바로 자연속에 자연친화적으로 존재해 있기 때문이다. 환경보호문제는 요즘 들어 개발론자와 자연보호론자들 사이에 토론이 아닌, 물리적인 충돌까지 발생하게 된 것을 보게 되어 무척 안타깝다. 자신들의 주장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겠지만, 그런 물리적인 충돌은 자연친화적인 행동이 아니다. 이름 있는 큰절을 찾다보면 저절로 우리 자신들부터 먼저 자연친화적인 마인드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명찰일수록 수려한 자연경관 속에 있게 마련인데 많은 사찰들이 불사를 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세속적인 개발과 다름없는 불사를 거리낌없이 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불교계가 하면 어떤 것이든 '자연친화적'이고, 개발론자가 하면 '자연친화적이 아니란' 것은 착각이고 깊이 생각하고 넘어갈 대목이다.

필자가 자연친화적이 아니란 느낌이 드는 것중 대표적인 것이 사찰의 해우소다. 전통적인 양식의 변소를 고집하는 사찰이 있는가 하면 외견상으론 현대화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오물을 정화하지 않고 그냥 흘려내버리는 해우소도 많다. 절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찾는 이가 많다면, 더욱 많은 신도들이 찾는 절이라면 생활오폐수의 양은 이미 자연친화적이 아닌 수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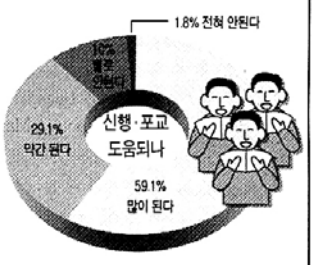
라인강을 끼고 유럽의 여러 나라가 존재한다. 알프스의 제르맛에 있는 마터호른이란 유명한 산이 있는데 그곳을 올라가면 중턱에 자그마한 산장이 있다. 놀라운 것은 이 산장의 크기 보다 그곳의 정화조 크기가 더 크고 견실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알프스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여 수원(水源)의 원천에서부터 철저히 정화하는 자연친화적인 현상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안겨준다.

우리도 사찰들부터 철저하게 오폐수를 정화하도록 노력해보자.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폐수 정화에 필요한 정화조를 만드는 일은 가장 기초적인 자연친화적 불사다.

이근후(불교상담개발원장 · 본지 논설위원)

불자의 생각

찬불가 보급



대부분의 불자들은 법회시간 외에 찬불가를 부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왜 불자들은 법회시간 이외에 찬불가를 부르지 않는

"신행·포교에 큰 도움" 59.1%

것일까? 그 이유를 조사해본 결과 총 응답자 110명 가운데 49명(44.6%)이 의식에만 부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 45명(40.9%)은 아는 곡이 많지 않아서, 8명(7.3%)은 각각 재미가 없어서, 흥이 안나서라고 응답했다. 또 찬불가 보급이 신행과 포교에 얼마나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느냐에는 65명(59.1%)이 큰 도움이 된다, 32명(29.1%)이 약간 도움이 된다, 11명(10%)이 별로 도움이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두식 기자

불자 세상보기

수방시설 정기점검제도 도입을



안상진
충북대교수
한국수자원학회장

8월 5일부터 10여일 이상 쉴새 없이 내린 폭우로 낙동강 하류지역이 초토화되어 완전 복구도 이루어지기도 전, 또다시 9월1일 태풍 '루사'가 한반도를 강타했다. '루사'는 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200여명의 인명과 4조3천억원의 재산 피해를 낳았다.

전 세계가 기상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루사'는 국토가 황폐화될 만큼 엄청난 재해를 입혔다.

낙동강은 지난번 집중호우에 이어 다시 홍수경보가 발령되는 등 범람위기를 맞았다. 기상악화로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이 한때 중단되었으며, 경부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88고속도로도 산사태로 통제되는 등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 30개 노선 61곳에서 정상적인 통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강풍과 산사태 등으로 전선이 끊기거나 전신주가 넘어져 66만 7천여 가구가 정전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하였다.

'루사'는 비의 양과 바람의 세기 등 태풍 자체의 위력으로 볼 때 1959년 한반도를 강타한 '사라' 이후 가장 강력한 태풍이었다. 따라서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것은 태풍 자체의 위력이 컸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당국의 허술한 안전관리와 재해대책, 시민들의 안전 불감증에도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수해의 사망, 실종자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산사태, 가옥의 붕괴 및 매몰, 하천의 급류에 의한 것이었다. 강릉시 왕산면 35번 국도 산사태도 안전규정 무시로 발생한 대표적인 인재(人災)라는 지적이다. 건설교통부가 산을 깎아 도로를 만들 때 돌의 위치와 결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63도의 경사각을 유지하도록 한 '절개지의 규정이 산사태를 유발시켰으며 또한 실종자의 대부분이 강풍이나 호우에도 불구하고 대피하지 않고 하천변을 오가거나 잔류를 한 것으로 보아 안전불감증도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하천에서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제방구조물이다. 그러나 이 구조물을 그동안 소홀히 다루었고 또한 제방에 관한 연구도 부족했다. 이 때문에 하천피해가 특히 심했다. 지금까지는 하천제방 시공은 하천에 있는 재료를 좌우로 긁어모아 놓고 간단히 잔디나 포장을 하는 정도였다. 이제부터라도 제방을 계획대로 시공하여 일정한 압력에도 견딜수 있도록 해야겠다.

뿐만 아니라 하천의 댐이나 제방과 같은 대형구조물과 수문, 육갑 등의 소형구조물이 포함되는 수방시설물은 일정 기간의 간격으로 점검이 필요하다. 한번 지어놓고 무너질 때까지 쓴다는 생각은 피해를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

또한 정부가 대국민 수방홍보시책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책을 국민에게 사실대로 공고하여 국민들이 협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사항을 주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대국민 사업은 강도 높은 수방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 민방위훈련을 활용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일 것이다.

정부는 국가 기간시설인 하천시설을 과소평가하여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매년 지원해 온 기간시설물 투자가 도로시설에 70%이상 편중되어 있고, 하천시설물에는 13%에 불과한 점을 보더라도 극명히 드러난다. 이제라도 정부는 하천시설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복지선진국가로 가는 길은 수자원시설과 환경복지시설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태풍 '루사'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가르침을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됐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출가 연령제한

출가자 연령을 50세에서 40세로 낮추기로 한 교육법 개정안을 놓고 찬반 논리가 팽팽하다. 조계종 교육원과 강원, 율원 등의 승가교육 지도자들은 교육의 효율성을 들어 찬성하는 반면, 상당수 종회의원들과 교구본사 및 일선 사찰에서는 출가 연령을 제한할 아무런 근거없이 불문(佛門)을 좁힐 수는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지관 · 현각 스님에게서 각각 찬성과 반대 이유를 들었다.

지관 (중앙승가대 교수) 찬성



만 40세라는 출가연령에 대한 특별한 근거는 없다. 다만, 만 50세 이하라는 종법의 연령으로는 현 교육체계를 이수하기에는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들기에, 하나의 안으로서 제시한 것이다. 물론, 늦은 나이에 출가해서도 젊은 수행자 못지 않게 신심과 끈기로서 대중생활과 수행이력을 잘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약 10년이라는 승가교육기간은 우선 육체적으로 많은 인내와 정진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의 연령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만약 만 50 가까이 되어서 사미계를 받고 10년간의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60세를 넘기게 된다.

각 승가고시의 갈마(검증)와 교육의 효율화를 위해서도 연령을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다. 안타깝게도 짧은 행자교육원기간(21일간)에서부터, 구족계기간(7일), 3급 승가고시(7일)에서는 충분한 갈마(검증)와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 실정이다. 특히 구족계 수계산림같은 경우는, 몇몇 계단 위원의 독선적이고 파행적인 운영 탓으로, 전에 정해놓은 갈마 규칙마저 어기는 일이 있기도 하다. 어쨌든 짧은 교육기간과 철저하지 못한 갈마로 인해 세속에서의 습을 제대로 교화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라도 대중공의를 모아야 한다.

물론 발심하여 출가하겠다는 것을 무작정 막을 수는 없다. 출가 연령 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현대라는 시간과 조계종이라는 공간에서 출가승가의 위상과 위의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는 못한다. 이런 문제는 별도의 법을 만들어 균형을 유지하면 된다. 뒤늦게 출가한 이들을 위한 별도의 갈마와 교육기간을 정하는 공론이 모아질 때라고 생각한다.

현행연령으로 수행엔 육체적 한계

반대 현각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스님은 다른 종교의 성직자와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성직자로서 뿐만 아니라 수행자로서의 길이 있기 때문이다. 출가 연령을 낮출 경우 뒤늦게 발심해 수행자로서의 길을 가려는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된다.

또 하나는 전문인력의 불교입문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요즘에는 대학원까지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35세 이상인 경우가 많다. 이 사람들이 몇 년 후 발심출가하는 것을 막는 것은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는 사회분위기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소수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불교가 그것을 막아서는 안된다. 뒤늦게 출가해 견성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 다수가 부적합하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적합한 소수를 제한하는 것은 폭력이나 다름없다.

일각에서는 40세 이후에 출가해 50세가 넘어 주지가 될 경우 위계나 포교활동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그것을 나이 때문이라고 단정해서는 곤란하다. 젊은 스님이라도 잘못할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위계문제도 거론될 수 있겠지만, 법랍과 세속 나이를 감안해 대우해주면 별 문제 없을 것이다. 사회에서도 결혼을 하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손아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나이로 발심수행길 막아선 안돼

물론 나이 든 사람들의 출가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겠다. 교육과 승려의 자질 측면 등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연령을 제한한다는 것은 불교가 다양성을 추구하는 종교임을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특자투고

맥빠진 지구환경회의

8월 26일부터 열흘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구정상회의(WSSD)가 4일 폐막했다.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지구정상회의에서는 빈곤 퇴치와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이행계획'이 채택됐다.

1백 3개국 6만 5천명이 참가한 회의에서 채택된 152개 분야에 걸친 '이행계획'은 △식수와 위생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는 전 세계 인구를 2015년까지 절반으로 축소 △빈곤퇴치를 위한 세계연대기금(WSF) 설립 △하루수입 1달러 미만의 이른바 '절대빈민' 인구 절반 감축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의는 대체에너지 사용비율 목표치 설정시한 누락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이행 시한이 빠진 '맥 빠진 계획'에 불과하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미국 부시 정부는 유럽연합이 주장했던 '2010년까지 청정에너지 사용비율을 15%로 확대한다'는 데 반대해 끝내 시한을 빼도록 하는 등 자국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로비로 빈국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처도 거의 반영되지 못했으며, 여성 인권 보호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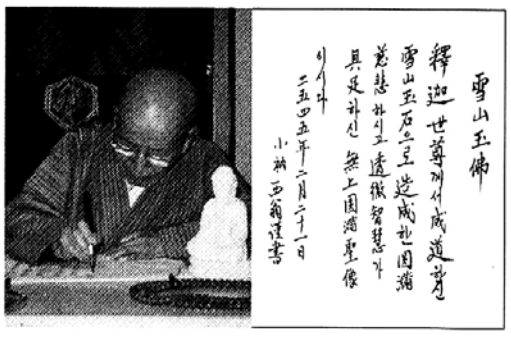
〈법화경〉을 보면 '화택(火宅)의 비유'란 것이 있다. 즉 자신의 집(세계)이 불에 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놀고 있는 아이(중생)들을 밖으로 불러내기 위해 부모(부처)가 장난감(방편 설법)을 준다고 거짓말을 해 화상을 면한다는 비유다. 현재 불타고 있는 지구를 위해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 지는,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시대의 화두일 것이다. 정성운(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

조각작품으로
한불 한불 정성껏 조각하여 모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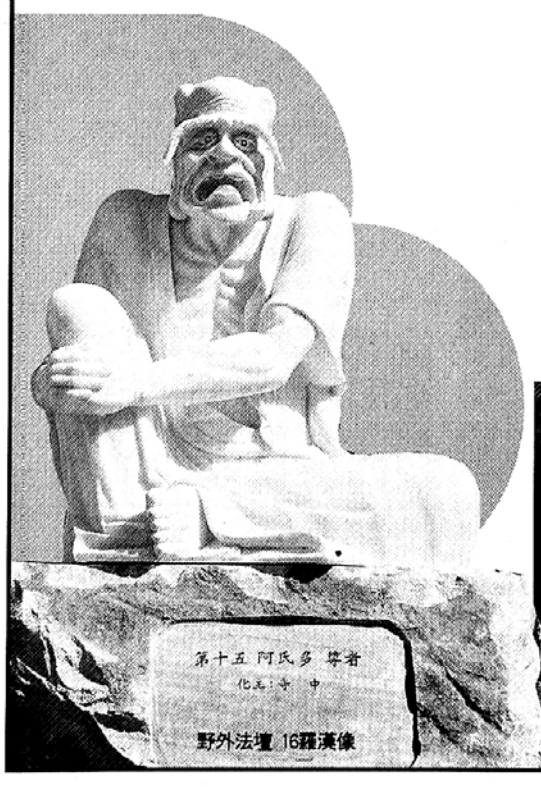
雪山白玉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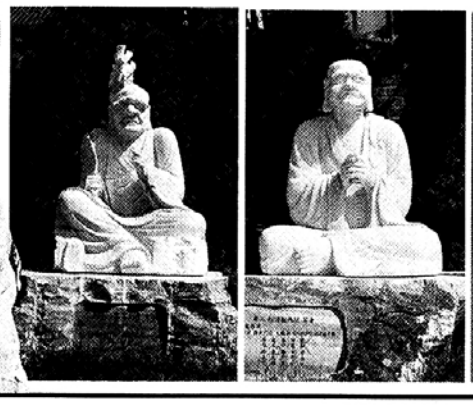
우리부처님
코리아붓다
KOREA BUDDHA
http:www.korea buddha.co.kr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 서울(02) 864-8834 부산 (051) 637-2333
FAX : 서울(02) 839-2185 부산 (051) 637-6888


雪山玉佛
釋迦世尊께서成道하신
雪山玉石으로造成한圓滿
慈悲하시고透徹智慧가
具足하신 無上圓滿聖像
二五四五年二月二十一日
小林 西翁謹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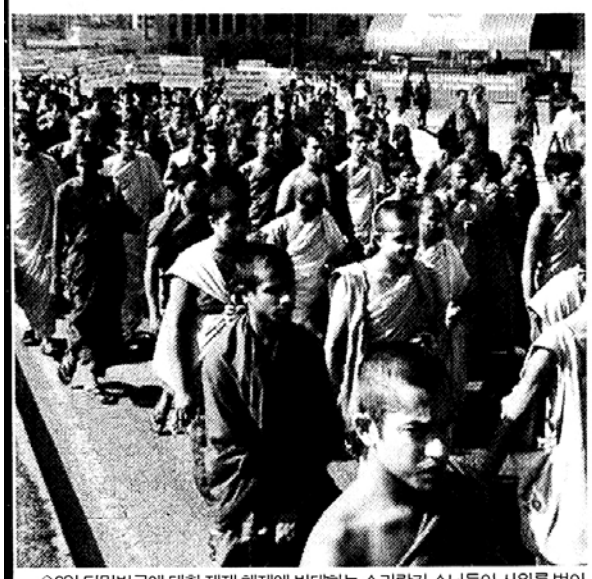
고불총림방장 서옹 큰 스님 / 추천서











◇3일 타밀반군에 대한 제재 해제에 반대하는 스리랑카 스님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스리랑카 불교도 타밀반군 제재 해제 반대 시위

스리랑카 정부는 지난 1998년 1월 반군이 불교 사원에 자살 폭탄 공격을 가한 직후부터 제재해온 타밀 반군 게릴라 단체인 타밀엘람 해방호랑이(LTTE)에 취해 온 제재를 해제했다고 틸락 마라포네 국방장관이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 십년 간의 내전을 종식하기 위해 노르웨이가 중재한 평화협상이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찬드리카 쿠마라퉁가 대통령은 타밀 반군과의 평화협상은 계속하겠지만, 제재 해제에는 반대한다고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스님을 중심으로 한 불교도들도 3일 제재해제에 반대하는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였다.

한마음선원 뉴욕지원 '자비원' 호스피스 활동

미국 땅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는 저소득층 한인들을 돌보기 위해 한인사회 최초로 무료 호스피스(임종간호) 서비스에 나선 한국 사찰이 있다. 한마음선원 뉴욕지원(지원장 원공스님)이 운영하는 사회봉사센터 자비원은 지난 달 7일 호스피스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호스피스 케어 네트워크'와 호스피스 운영에 대한 계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서비스 준비에 들어갔다. 국내에서는 불교계에서 활발하게 호스피스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미국 한인을 상대로 호스피스 활동을 펼치는 것은 자비원이 처음이다. 자비원이 '호스피스 케어 네트워크'의 도움으로 운영하는 '자비원 호스피스'는, 내년 1월부터 죽음을 앞둔 한인들에게 임종간호와 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사찰 최초… 美서 임종 간호

내년 1월부터 부처님품서 편히 최후맞게
소득 낮은 환자 무료로… 자원 봉사자 모집

자비원은 의료보험증을 갖고 있는 한인의 경우 의료보험을 통해 서비스를 하고, 소득도 낮고 의료보험증도 없는 사람은 무료로 돌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비원은 전문 호스피스와 자원봉사자 호스피스로 나뉘어 운영할 계획이다. 전문 호스피스는 은퇴한 의사, 간호사,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구성되며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보조와 간호 활동을 하게 된다.

자원봉사자들은 환자들이 부처님 품 안에서 편안하게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말벗이 되어 주는 등 정신적으로 후원하는 일을 맡게 된다. 자원봉사 호스피스는 일정 기간 교육을 마친 후 누구나 할 수 있다.

현재 자비원은 전문 호스피스와 일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를 공개 모집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는 종교를 떠나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한마음선원 스님과 자비원 직원들이 먼저 호스피스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자비원 이경희 원장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통해 진정한 자비심과 이웃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며, 현재 삶에 대한 소중한 체험을 얻을 수 있다"며 자원봉사자 모집에 많은 지원을 당부했다.

자비원은 지난 99년 사원연합회 산하 단체로 설립돼 그동안 한인을 위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신청 대행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시민권 신청 등 이민관련 상담, 초기 이민자를 위한 영어교육 등을 무료로 운영해 왔다.

지난 7월 한마음선원이 인수한 뒤에 호스피스 운영 계획 외에도 영어 출장 통역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자비원은 후원회(회장 박종성) 이사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의 =1-718-886-4082.

"美 9·11 보복전쟁 또다른 폭력

진정한 평화는 이해·존중·신뢰 통해서만"

달라이 라마 성명 발표



"미국에 대한 테러는 쇼킹한 일이었다. 그러나 보복전쟁은 또다른 폭력을 낳아 결국 최선의 방안은 될 수 없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3일 '9·11 사태' 1주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 보복 전쟁은 또다른 고통을 낳을 것이라며 미국의 대테러 전쟁을 비판하고, 온갖 형태의 테러행위를 근본적으로 통제하는 '비폭력'을 호소했다.

망명정부가 있는 인도의 다람살라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달라이 라마는 "오늘날 이견해소의 유일한 수단은 대화와 타협, 인본적 이해와 겸손으로 진정한 평화는 상호이해와 존중, 신뢰를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다"며 "인류의 문제는 인도주의적인 비폭력주의가 적절한 해결책을 제공해 줄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인들은 테러리즘에 반대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 우리는 이 공감대를 장기적인 테러 방비책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분노와 파괴적인 감정에 기인한 드라마틱하고 폭력적인 수단보다는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달라이 라마는 "테러의 기저에 있는 복잡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무력행위로는 테러를 근절시킬 수 없다"며 "무력의 사용은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도리어 악화시키며 그 여파로 파멸과 고통을 종종 남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해외불교 담당=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캄보디아 정글서 순금불상 27구 발굴



북부 캄보디아의 정글지대에서 순금 불상이 무더기로 발굴됐다. 8월 27일 BBC방송에 따르면, 지난 24일 수도 프놈펜에서 북쪽으로 1백㎞ 떨어진 캄퐁톰에서 포피치 불교사원 재건축공사를 벌이던 인부들이 1m 깊이의 땅 속에서 10㎝ 크기의 순금 불상 27구를 포함해 총 31구의 불상을 발견했다. 불상들의 보존상태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상 발견 신고를 받은 경찰 당국은 즉각 사원 인근지역에 경찰병력을 파견해 도굴꾼들의 접근을 막았으며, 불교협회에 이를 전달해 보관토록했다.

아프간軍 프랑스 불상 발굴팀 추방

아프가니스탄 바미안 지방에서 불상 발굴 작업을 벌이고 있던 프랑스 고고학팀이 현지 군사당국에 의해 명확한 이유없이 추방됐다고 네덜란드에 본부를 둔 세계문화재 네트워크인 '뮤지엄 시큐리티 네트워크(Museum Security Network)'가 4일 밝혔다.

지난해 아프간을 장악하고 있던 친탈레반 정부는 1500년 된 바미안 석불 2기를 파괴한 바 있다. 이후 기메박물관이 주축이 된 프랑스 고고학팀이 올해 초 파괴된 석불 2기 가까운 곳에 제3의 불상이 마몰돼 있다는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유네스코는 막대한 비용 문제를 들어 파괴된 바미안 석불을 복원할 계획이 없다고 최근 밝힌 바 있으며, 이에 프랑스 당국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이 3번째 불상을 발굴하기로 하고 제마리알리 타르지 교수가 이끄는 조사팀을 파견했었다.

http://www.sunjaevatar.com
당신의 신념이 바뀌면
당신의 경험이 바뀐다
당신은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한이게 옷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폐일을 원합니까? 울고 옷는 영글은 누가 만듭니까?
당신은 얼마든지 자기 뜻대로의 얼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얼지않는 신념은 자유고 한이는 신념을 청소이어 변화된 삶을 만드십시요.
당신의 신념이 바뀌면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이제부터 코스는 당신을 뜻대로 사는 길로 안내합니다
선재아바타 센터 ☎ 02-362-3647 ☎ 018-206-3647 E-mail avatarsunjae@yahoo.co.kr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14-1 북아현맨션 2동 502호

이거룡교수의 스리랑카 불교 기행



글 싣는 순서
① 삶과 종교의 일치
② 야자수 잎에 새긴 불법, 패엽경(貝葉經)
③ 숲 속의 수행자들, 아란야(Aranya) 전통
④ 살아있는 부처님, 보리수

부처님 재세 당시에도 그렇지만, 그 후 수세기 동안 교법이 문자로 기록되는 일이 없었다. 모두 기억에 의존했던 것이다. 전통적으로 인도에서는 거룩한 진리를 문자로 기록해서는 안 된다는 관념이 있었다.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마힌다(Mahinda)비구가 스리랑카에 전한 팔리 삼장(三藏) 또한 문자로 기록된 서물(書物)이 아니었다. 스리랑카에서 삼장이 문자로 기록된 것은 그 후 이백여 년이 지난 기원전 1세기 중엽이며, 알루비하라 사원에서 패엽경(貝葉經)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스리랑카뿐만 아니라 인도 본토를 포함하여 교법이 문자로 기록된 최초의 일이다.

교법의 필사(筆寫)는 '정법이 오래 머무름'을 위한 것이었다. 당시 스리랑카에는 6년간의 가뭄과 기근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암송을 통한 구전 전통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 따라서 교법이 문자로 기록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마탈레 지역의 알루비하라 사원이 사경의 장소로 선택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우선 이 지역은 타밀족의 침입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했다. 뿐만 아니라, 패엽경 제작에 필요한 팜(palm)나무가 풍부했으며, 또한 스님들이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천연동굴이 많은 것도 좋은 조건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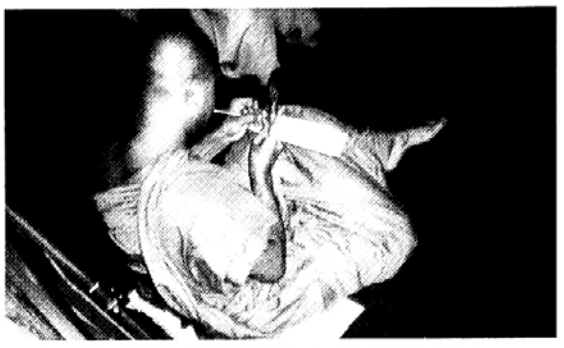
알루비하라 사원에는 패엽경 제작을 위한 13개의 동굴이 있었다. 천연동굴이 그대로 사용된 것은 아니며, 비가 스며들지 않도록 처마를 조성하는 등의 일이 요구되었다. 지금은 13개 동굴 중에서 2개만 완전한 모습으로 전해진다.

처음에 3벌의 삼장이 문자로 기록되었다. 한 벌은 금관에 새겼으며, 이것은 현재 알루비하라 사원의 바위 속에 보관되어있다. 다른 두 벌은 패엽경으로 제작되었다.

경문을 팜 나무 잎(tala-patta)에 사경하여 보관하는 전통은 이제 스리랑카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 잎을 일정한 크기로 잘라 솥에 찌고 마름질하는 여러 단계를 거친 후, 철필로 경문을 쓴 다음 새겨진 홈에 잉크를 붓고 닦아야 하는 복잡하고 힘든 과정 때문이다.

나뭇잎에 한 자 한 자 경문을 긁어 새기는 모습을 바라보노라면, 폰의를 따르는 것에 절 안팎에 구분이 있을 수 없지만, 그래도 편하고 쉬운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이거룡/동국대 연구교수 (BK21 불교문화사상사교육연구단)



◇팜 나무 잎에 철필로 사경(寫經) 중인 난다라타나 스님.

풍부한 팜나무·천연동굴 등 좋은 여건

사경과정 힘들고 복잡해 점차 사라져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 마이산 탑사와 탑영제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서울 대전 대구 전주 40분 마이산 광주
진안 마이산 탑사
☎ 063) 433-2900,0303
432-0652,0072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



FM 89.9 MHz
BBS 불교부산방송

처절한 수해현장…불자들 '구호활동 앞장 구슬땀'



◇정토회원들이 4일 강릉시 내곡동에서 붕괴될 위험에 처한 축대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 이들의 수고 덕택에 침수피해를 당한 독거노인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주요종단 · 사찰 등 불교계 각계에서 최악의 수해를 당한 수재민을 위한 모금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연천 향지모임 박미영총무가 6일 조계종 사회부장 양산스님에게 회원들이 모은 수재의연금을 전달하는 모습.

한반도를 휩쓸고 간 제15호 태풍 루사는 6일 전국적으로 사망 120명, 실종 27명의 인명 피해와 4조 2천억원의 재산 피해를 낸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이중 강원도 강릉 일대와 경남 김해, 경북 김천, 전북 무주 등은 집중폭우로 인한 산사태 등으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재해가 심각하다.

순식간에 가족을 잃고 일년 농사를 망쳐버린 수재민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전해지자 불교계에서는 정토회, 진각복지재단, 비로자나 청소년협회, 김천사암연합회, 금오종합복지관 소속 불자들이 이들을 돕기 위해 적극 나섰다.

세탁 · 축대보수 · 흙포대 쌓기에 온힘
식품 · 의류 공급…중장비 없어 발 "동동"
스님들 구조단 구성, 식수 · 급식 지원

태풍이 끝난 직후인 3일 정토회 회원과 불자들이 찾은 강릉은 완전한 공황상태에 빠져 있었다. 도시 전체가 단전, 단수 상태에 있었고, 토사가 범람해 온 도시가 누런빛을 띠고 있었다. 도랑에 종이처럼 구겨져 처박혀 있는 경운기와 자동차, 누런 모래가 덮어 버린 논밭 등은 수해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피해가 컸던 장현 저수지 밑 동네는 마을 진입로만 간신히 남았다. 폭탄을 맞은 것처럼 한쪽이 주저앉은 농가가 사나운 물살이 훑고 간 자갈밭 위에 쓰러져 있었고 쓰레기 더미로 전락해 버린 장롱, 옷가지, 전자제품 등이 조각조각 흩어져 있었다.

정토회 불자 40여명은 강릉시 저소득 주민들과 독거노인들이 모여 사는 내곡동을 찾아가 수해 복구에 땀방울을 흘렸다. 내곡동은 집중폭우로 불어난 물이 남대천으로 빠지지 못하고 역류, 마을 전체가 침수되는 피해를 당한 곳.

그나마 없는 독거노인들의 살림에 홍수 피해까지 당한 것을 확인하자 정토회원들은 두 손을 걷어붙이고 모든 작업은 손으로 이뤄져야만 했다. 마대 자루에 쏟아져 내린 흙더미를 담아 쌓아올리기를 2시간. 정토회원들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올랐지만 축대 붕괴로 무너질 뻔한 집이 위기를 넘기자 즐거운 웃음이 터졌다.

"내가 머리에 머리털이 난 후 이런 난리는 처음 본다"는 김정순(62) 씨는 "집안 복구보다 당장 먹고 살 것이 걱정이다"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또한 최말임(76) 할머니는 "평생 동안 이토록 심한 경우를 당한 것도 드문데 불자들이 멀리에서 찾아와 도와주니 너무 고맙다"며 눈물을 글썽거렸다.

수재복구에 동참했다. 냉장고, 텔레비전이 진흙에 뒤범벅이 되어 실려 나오고 옷가지와 가재도구들이 하나둘 끄집어 나오자 수재의 참상이 조금씩 드러났다.

정토회원들은 임시로 입을 옷을 세탁하는 일도 적극 거들었다. 단수가 돼 지하수를 끌어올려 만든 공동 빨래장에는 주인을 알 수 없는 빨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올라왔다. 하지만 시커멓던 빨래들이 제 색깔을 되찾아감에 따라 주민들과 정토회원들은 오히려 피곤한 줄을 몰랐다.

꼬불꼬불한 뒷골목은 언제 담벽이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곳. 정토회원들은 간신히 서있는 축대의 응급복구 작업도 서둘렀다. 중장비가 전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4일 진각복지재단과 비로자나 청소년협회 소속 10여 명의 불자들이 찾은 삼척시 남양동은 더욱 처참한 상태. 노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도시 외곽지역이라 수해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전혀 복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진각복지재단 소속 불자들은 우선 시급한 생수와 라면, 김치 등 생필품 공급에 주력했다. 6일까지 남양동에 머물며 불자들은 노인들 혼자서는 엄두도 못내던 침수가옥 진흙제거, 가재도구 청소, 쓰레기 수거 등에도 열성을 다했다.

한편 직지천 범람으로 수해를 당한 김천 지역에서는 김천사암연합회 스님들과 직지사스님, 구미 금오종합복지관이 꾸린 긴급구조단이 활약했다.

2일 수해소식을 들은 즉시 구미 금오복지관 자원봉사팀은 너나할 것없이 복지관으로 모여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섰다. 흙탕물이 휩쓸고 간 선산 습례리 일대 농지에 남은 것은 모래와 자갈 그리고 폐타이어 등 각종 쓰레기 뿐.

하지만 마냥 손을 놓을 수 없기에 불자들과 주민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한데 모여 진흙더미에 파묻힌 가재도구를 물에 씻어 말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워낙 방대한 지역에 걸쳐 1년 동안 재배해온 농작물이 피해를 당하자 복구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김천사암연합회는 침수를 당한 김천시장 상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에 나섰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급식이지만 1시간여 전부터 이미 식당 안은 끼니를 거른 시장 인근 수재민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는 상태.

직지사 스님들도 수재민들에게 식수와 무료급식에 적극 나서고 있다. 2일 일찍 김천시내 수해현장을 돌아본 직지사 주지 법성스님은 피해상황 파악과 복구를 위해 본말사 스님회의를 긴급 소집, 수해복구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김천지역 신도 대부분이 수재민이 된 상황이라 스님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

스님들은 수해지역에 가장 시급한 것이 먹을 물이라는 생각에 급수차를 구해 김천시내 식수공급에 나섰다. 본말사 스님 20여명이 조를 짜 하루 종일 3~4대의 급수차로 시내 여러 곳에 물을 배달했다. 스님들은 수도가 복구될 때까지 식수공급을 계속할 계획이다. 또한 직지사스님들은 6일 이불, 가스렌지, 가스 등 수재용품을 모아 김천시청에 전달하기도 했다.

앞으로 살아갈 생각에 막막했던 주민들은 전국에서 답지해 온 성원에 일었던 웃음을 서서히 되찾고 있었다.

강릉=강유신, 김천=박원구 기자
사진=고영배 기자



◇보물 87,88호인 신복사지 삼층석탑과 석불상이 밀려든 토사에 갇혀있다.



◇속초 월해사는 대웅전(사진)관음전, 삼성각 등이 수해로 파괴됐다.



◇신라말 고승 범일스님 탄생설화를 간직한 굴산사지 석천(石泉 · 점선원안)이 이번 수해로 인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전국사찰 64 · 문화재 16건 피해

월해사 · 실상사 백장암 완파, 굴산사지 석천 유실

제15호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전국 64곳 사찰의 당우가 무너지거나 진입로가 유실되고, 매몰되는 등 불교문화재 피해도 큰 것으로 밝혀졌다.

6일 현재 본지가 집계한 피해사찰은 64곳. 조계종은 교구별로 보면 신흥사 11곳, 월정사 10곳, 해인사 9곳, 은해사 2곳, 직지사 2곳, 쌍계사 3곳, 통도사 1곳, 금산사 1곳, 선운사 4곳, 백양사 1곳, 대둔사 1곳, 화엄사 1곳(말사 통화불능), 송광사 2곳, 법주사 1곳 등이며, 태고종은 제주 용문사 등 3곳, 여타종단 1곳, 사지 2곳 등이다. 이들 사찰의 피해현황은 진입로 유실과 축대붕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중 가장 큰 피해를 당한 곳은 속초 월해사와 남원 실상사 백장암. 월해사는 뒷산이 산사태로 무너지면서 관음전과 요사채, 삼성각이 완파되고, 지장전과 대웅전이 반파되는 등 총 20여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폐사 위기에 처했다. 또 남원 실상사 백장암 선방은 기둥만 남은 채 무너졌으며, 약사전 지붕이 뒤틀리고, 요사채와 후원도 반파돼 총 피해액이 8억5천여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비구니 강원으로 유명한 김천 청암사는 종각 아랫부분과 축대 등이 물살에 깊이 패여 붕괴위험에 처해 있으며, 전봇대 등이 50주 이상 쓰러지고 진입로, 교각이 유실됐으며 전화, 전기, 수도가 모두 끊긴 상태이다.

신라말 고승 범일국사의 탄생설화를 간직하고 있는 강릉지역 대표적 불교유적 굴산사지 석천(石泉)도 장현저수지의 범람으로 사라졌다. 강릉 신복사지도 토사에 매몰됐다. 신복사지 석불좌상(보물 제84호) 3층석탑(보물 제87호)이 토사에 매몰되고 전북 익산 미륵사터(사적 150호)가 일부 유실되는 등 전국에서 모두 16건에 이르는 불교문화재가 피해를 당했다.

8월31일 불어난 물에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던 강릉 성원사 동철 스님이 다행히 구조돼 병원치료 중이며, 속초 청룡사 스님 두 명이 산사태로 매몰됐다가 구조됐지만 생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김원우기자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봉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혜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⑫ 여래수량품 제16

의사와 아들의 비유

이 '여래수량품'에는 '훌륭한 의사의 비유' 또는 '의사와 아들의 비유'라 불리는 유명한 비유가 설해져 있는데,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어떤 이름난 의사가 있었는데 그는 아무리 어려운 병도 거뜬히 고쳤다. 그는 또 많은 아이들을 둔 아버지이기도 했다. 그런데 그가 여행을 떠난 사이에 아이들이 무엇인가에 중독되는 불행한 일이 생겼다. 때맞춰 아버지가 여행에서 돌아왔다.

아버지의 모습을 본 아이들은 괴로워하는 가운데서도 기쁘게 아버지를 맞이하며 "저희들의 고통을 빨리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한다.

아버지인 이름난 의사는 아이들이 마시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보기만 해도 깨끗하고 향기도 좋은 약을 만들어 "빨리 마셔라"고 아이들에게 권한다. 증상이 가벼운 아이는 곧바로 마시고는 즉시 나았다. 그러나 증세가 무거운 아이는 독이 몸 속에 깊이 스며들어 마음도 평정을 잃고 있었기 때문에 약의 색깔이나 냄새가 마음에 들지 않다며 먹으려 하지 않았다.

훌륭한 의사인 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중증의 아이들이 약을 먹을 마음을 일으킬까 고심한 끝에 한 가지의 방법을 생각해 낸다. 그는 "나는 늙었으니 머지않아 죽을 것이지만 울며 슬퍼하지 말라. 여기 내가 조제한 약을 둘 것이니 마시고 싶어지면 마셔라"는 말을 남기고 먼 여행길에 오른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짓 소식을 전한다.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들은 슬퍼하며 아버지를 그리워했다. 그 와중에도 아버지가 최후에 남긴 말씀을 생각해 낸 아이들은 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약을 마실 마음이 생겨나서 약을 먹고는 간신히 병이 나았다. 아버지는 이 소식을 듣고 여행에서 돌아와 건강을 되찾은 아이들을 보고 기뻐했다.

명의인 아버지가 주는 약을 거부하는 중증 환자인 아들의 이야기는 극히 단순한 비유처럼 생각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의 가르침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된 아이들은 의지할 곳 없는 외로움으로 인해 생긴 슬픔이라는 충격에 의해 비로소 미혹에서 깨어난다고 하는 점이다.

이 '의사와 아들의 비유'에서 석존은 이렇게 가르친다. "내가 언제까지나 살아있다면 사람들은 어느 때라도 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언제까지라도 가르침을 구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람들의 이 마음을 일깨워 주기 위한 방편으로, 매우 드물게 이 세상에 출현한다고 설한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놀라고 슬퍼하며 나의 가르침을 들으려 할 것이다."

이 석존의 말씀을 통해 '의사와 아들의 비유'에서 '이름난 의사'는 석존, '중독된 아이들'은 미혹한 우리들, 그리고 '묘약'은 훌륭한 가르침임을 알 수 있다. "어버이의 돈이 항상 내 곁에 있다고 생각지 말라"고 하는 말도 이 '의사와 아들의 비유'의 해석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어느 시대라도 아이들은 아버지를 어려워하고 아버지의 잔소리나 훈계를 귀찮게 생각하지만 막상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비로소 아버지의 존재가 중요함을 알게 된다. 이 비유도 이러한 일을 밑에 깔고, 병석에서 신음하는 아이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가까스로 아버지가 조제해 준 약(가르침)을 생각해 낸다고 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다음으로 "독이 몸에 깊이 스며들어 마음도 평정을 잃고 있기 때문에 약을 먹을 생각이 없다"고 하는 구절에서는 현대인의 많은 정신적 고뇌를 읽을 수 있다.

우리들은 머리가 아프거나 몸에 열이 나면 스스로가 이를 알고 즉시 약을 먹거나 의사의 치료를 받기도 하여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방지한다. 그러나 난치병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고 있는 가운데 병세가 진행된다. 그리고 그것을 자각했을 때는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우리는 매일처럼 보고 듣고 한다.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내 잘못이다" 하는 자각 증상을 느낄 경우에는 사죄나 참회에 의해 그 죄과를 가볍게 할 수 있지만 나쁜 일을 하면서도 나쁜 일을 했다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 즉 자의식이 없는 사람처럼 구제하기 어려운 사람은 없다. 마치 자각증상이 없는 병이 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처럼 죄의식이 없는 악행은 본인의 인간성 상실이라는 중환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무설정사 조실

충격요법으로 미혹에서 깨어나게

의사=석존, 묘약=불법, 아들=중생 의미

"찬탄 지극하면 부



◇30여년간 찬불가를 작곡하여 발표한 보봉스님은 현재 부처님 오신날 제등행렬 행진곡을 준비중이다.



◇8월27일 태고종 초대원로

자기불성 하루빨리 깨달아

일상 삶 가운데 현현시켜야

서울 종로구 옥인동 청와대로 향하는 4차선 도로 옆에 현대식 3층 건물의 색다른 사찰. 이곳이 태고종 원로회의 부의장 보봉 스님(75세)이 주석하는 범혜사 포교원 홍법원이다. 스님이 인왕산 자락에 자리 잡은 범혜사에 머무르지 않고 도심포교당인 홍법원에 주석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 포교염원 때문. 스님은 평생 '포교'를 화두삼아 일심(一心)으로 정진해 왔다.

스님을 친견하기 위해 범혜사에 들어서자 청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동도 불편한 노스님이 절을 찾은 불자들에게 법문을 하고 계셨다.

"불교는 부처님을 믿기만 하는 종교가 아니예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거울삼아 마음을 수행하는 종교입니다.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천을 해야 합니다. 실천이 따르지 않는 가르침은 공허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우주의 모든 중생들에게 불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인간도 불성이 있습니다. 불성이 있으면 모두 부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부처님이란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루빨리 자신의 불성을 확연하게 믿고 삶 가운데서 현현시켜야 합니다. 모든 이치는 내 마음 쏨쏨이에서 생기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은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생태계의 동물들은 제각각 생긴 대로 살아갑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지요. 생긴 모습, 살아가는 모습은 모두 자신의 심상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오직 마음공부 열심히 하라는 소리 밖에는. 다른 말은 다 필요 없는 말입니다."

법문이 끝나고 노스님의 방으로 따라 들어갔다. 노스님 방에는 목탁, 법고부터 키보드까지 다양한 악기들이 꽉 들어차 있었다. 그 옆에 있는 2개의 칠판에는 수없이 지우고 다시 쓴 흔적들이 역력한 음계와 가사가 빽빽하다.

기자도 처음에는 이것들이 스님께 소용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넌지시 불교음악 범패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는데, "대중이 이해 못하는 범패는 죽은 음악"이라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마도 스님의 말씀은 범패가 부처님의 마음을 마음으로 전해지는 가르침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재(齋) 의식에 수반된 노래로 인식되고 전문 범패승만이 부르는 음악으로 치부되는 현실을 꼬집는 것이리라.

일본 동양대학 음악과 2년을 수료한 스님은 30년 전인 45세 때(72년) 음악을 통한 포교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젊은 시절 손놓았던 음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범패를 배우는데 이것은 너무 어렵고 심오하여 스님들도 배우기 힘들어 수료자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 범패를 듣는 신도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정에 가장 많이 호소하는 예술 장르가 음악이니 음성 포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대중들을 부처님 품안으로 끌어들이자는 의미에서 학창시절에 다소나마 배웠던 음악을 다시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현대적 개념의 찬불가라는 말이 생소했을 때였어요. 또 사찰운영이 얼마나 어려워요. 처음에는 악기 마련할 자금도 없고, 수행하며 작곡을 병행하기가 힘들었지요. 그래도 길을 걸으며, 잠잘 때, 일할 때 등 시간 날 때마다 일념으로 꾸준히 작곡했어요.

그러다 보니 십 수년 만에 몇 십곡을 작곡하게 됐어요. 그래서 61세(88년)가 되던 해인가 10여곡을 추려 서울시민회관에서 불교음악발표회를 했지요. 불교합창단에 오케스트라 120여명을 동원하여 공연을 성황리에 마치고, 신도들과 서울 시내 번화가 요소요소에서 '불음을 드립니다'라는 띠를 달고 시민들에게 무료로 테이프를 나눠줬지요. 한국과 일본의 언론에서도 현대화된 한국불교음악이 발표됐다고 대서특필하고 해서 뭔가 되는 듯 했어요. 전국에 테이프 수 만개를 보급했는데, 어느 순간 이것은 순수한 한국불교음악이 아니라 '불교가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테이프를 구하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도 안 나눠줍니다. 이제는 전통과 현대를 결부시킨 새로운 장르의 범패 음악을 준비중이예요. 음악을 통해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이 새로운 불사요, 포교방법이라는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스님은 최근 노환으로 한쪽 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신다. 스님은 '안타깝다'고 했다. 포교를 위해서는 꼭 범패 음악을 완성하여 CD로 보급해야 하는데 몸이

보봉스님은?

보봉 스님은 1927년 전북 전주출생으로 1945 일본 동양대학 음악과 2년을 수료하고 우연히 본 본문 불입종(本門 佛立宗)에서 나오는 잡지 보고 불가에 입문했다. 스님은 다시 1972년 서 사간동 법륜사에서 태고종 종정 덕암 스님을 은로 건당하여, 75년 봉원사에서 묵담스님을 계사 대승계와 보살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78년 불교 문교육원과 불교통신교육원대학, 96년 스리랑 피리베나대학 철학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포교일념으로 수행해온 스님은 찬불가 보급을 위해 직접 작곡하여 제작한 테잎 수 만개를 전

日동양음대·스리랑카

말을 듣지 않는 다는 얘기였다. 스님의 법상 위에는 계들이 그려진 오선지가 빼곡하게 집게로 집혀 있었

스님은 불편한 몸을 움직이시더니 칠판에 그려 행진곡 '불도의 숨소리'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삶의 거울인 죽음을 통해 다시 읽어보는 우리출판사의 죽음에 대한 책!!!!

우리출판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8
■전화 (02)313-5047, 5056 팩스 (02)393-9696
■E-mail : wonbook@chollian.net

삶을 원하거든 죽음을 기억하라



맹난자 지음 / 신국판 / 296쪽 / 값 9,000원

역사 속 인물의 죽음에 관한 기록들!

'역사 속으로 떠나는 죽음 기행'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에는 약 100여 명에 이르는 역사 속 인물들의 죽음에 얽힌 뒷이야기들이 사실감 있게 그려져 있다. 죽음의 순간까지 옥중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소크라테스, 마지막 순간을 '야 참 좋다'며 삶에 대한 한없는 만족감을 표했던 철학자 칸트하며, 열반에 드는 순간까지 몸으로써 활구(活句)를 보여준 옛 선사들의 이야기까지 참으로 눈을 떼기 어려운 '아름다운 죽음'의 이야기가 펼쳐져 있다.

참된 철학자는 결코 죽음을 생각지 않는다.
철학자의 지혜는 죽음에 대한 명상이 아니라,
삶에 대한 명상이라고 말한 이는 스피노자였다.
그러고 보면 죽음을 탐구하러 나가
내가 만나게 된 것도 삶이었다.
그러니 삶을 원하거든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

적멸의 즐거움



정휴스님 지음 / 신국변형판 / 240쪽 / 값 7,000원

고승들의 즐거운 죽음 이야기!

'시신을 벌레들에게 나누어주고 부도탑도 만들지 말라'는 청활스님, '열반에 들면 시신을 숲 속에 두고 들불에 타도록 하라'고 말한 혜안스님 등 충격과 전율을 느끼게 하는 여러 선사들의 입적 과정을 그렸다. 또 물구나무서서 거꾸로 입적하거나 뜰 앞을 태연히 걷다가 오늘 떠나겠다고 말하고 극락이 눈앞에 보이지만 자신은 지옥으로 가겠다는 유언을 남긴 여러 선사들의 임종게 등도 소개하였다.

육신이 불에 타 흙으로 돌아가 근원이 된다.
흙으로 돌아가 다시 돌이 되어 태어나고
혼을 키우는 그릇 속에서 천년을 산다.
죽는 것이 어찌 즐거움이 되겠논가.
삶도 죽음도 적멸이 되어야 즐거움이 되는 것을
부도는 안으로 적멸을 키우면서
천년을 살고 있다.

-본문 중에서-

죽어서 詩가 되는 삶이 있습니다



정휴스님 엮음 / 신사륙판 / 132쪽 / 값 5,000원

삶과 죽음을 초월한 선사들의 깨침의 노래!

중국의 선사(禪師)와 우리 나라 역대 선사들이 죽음을 맞아 토해낸 열반송을 정휴스님이 짧은 시 형식으로 풀이하였다. 나고 죽는 일에 초연해지는 것을 평생의 화두로 삼고 정진해서일까. 선사들은 죽음을 사랑하고 즐겼다. 죽음을 죽음이 아니게 하는 힘, 그것이 수행의 절정이라고 말한 스님의 글에서 불교사상의 정수 및 선(禪)의 진수를 느낄 것이다.

이 禪詩(임종게) 속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과 같이 임종을 준비하는
떠남의 언어가 있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진리회귀의 영혼의 모음이 있으며,
앉아서 열반하기가 싫어 서서 입적하는
해탈의 몸짓이 있으며, 걷다가 문득 멍상에 잠겨
보리수 잎을 잡고 입적하는 침묵의 언어가 있습니다.
비록 진리가 언어를 떠나 있다 하더라도
선사들이 남긴 임종게 속에는 해탈의 육성이 담겨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합시다



현장스님 엮음 / 신국판 / 232쪽 / 값 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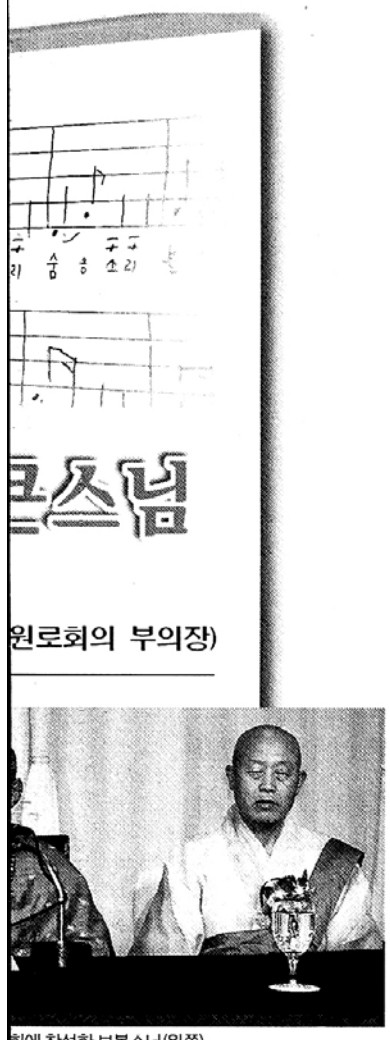
죽음과 환생 사이의 영혼을 제도하는 밀교와 정토의 가르침!

티베트의 불교인들은 생일 잔치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태어난 날을 기억하는 것보다 죽을 날을 알 수 있도록 수행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처럼 잘 죽는 것은 잘 사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여기 현장스님의 책은 잘 죽기 위한 가르침인 정토신앙의 왕생 해탈법과 밀교의 중음신 해탈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나는 울었고,
내 둘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였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나는 웃었고,
내 둘레의 사람들은
모두 슬피 울고 기뻐하였다."

-린포체-

처님 나투십니다"



코스님

원로회의 부의장)



◇포교를 화두삼아 일심으로 정진해온 스님은 92년 뉴욕에 전등사를 창건했다.

회에 참석한 보봉스님(왼쪽).

배포했으며, 서울시민회관에서 불교음악회를 최하여 내외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다. 스님은 한국불교 불모지 뉴욕에 전등사를 세 해외포교에도 주력했다.

스님은 평소 온화한 성품으로 불자들을 교화하 , 원로회의 창립에 헌신하는 등 종단발전을 위 노력해은 공로가 인정돼 태고종도들로 부터 은 추앙을 받고 있다.

스님은 1972년 종로 대법사 주지, 77년 범혜사 지, 78년 뉴욕 전등사 조실, 91년 한국불교포교 협회 부회장, 97년 태고종 서울 중서부종무원 , 98년 대륜불교연구원 이사를 역임했다. 현재 고종 원로회의 부의장이다.

현대적 불교음악 포교 큰힘

틀 날때마다 일념으로 작곡

장…뉴욕에 전등사 창건

부처님오신날 제등행렬시 불자들이 사용할 수 있 록 작곡중이라고 했다.

한참을 설명하시던 스님은 칠판에 '범음응천불(梵 應天佛)' 이라는 글귀를 적었다. '부처님의 가르침 을 찬탄하는 범음이 지극하면 부처님이 모습을 드러 낸다' 는 설명이었다.

보봉 스님은 오직 포교일념으로 수행해 오신 스님 이다. 92년에는 미국 뉴욕에 한국 사찰로는 처음으로 전등사를 세우고 20여년간 해외포교에도 주력했다.

"처음에는 가정집 차고를 법당으로 해서 전등사를 만들었지요. 그리고 나서 미주 조선 일보에 광고를 하니 교민들이 구름처럼 몰려 들었어요. 부처님 말씀이 그리운 사람들이었 던 게지요. 자동차가 법당 옆 주택가에 즐비 하니 주민들이 신고하여 경찰서까지 갔으니 까요. 다음날 인근 햄버거 집에 갔어요. 주인 을 불러놓고 '매주 햄버거를 구입해 줄 것이 니 너희 주차장을 사용하자. 우리 서로 돕고 살자' 고 하니 미국인 주인이 'YES' 하더니 어 느 순간 독실한 불자가 되버리더라고요. 이제 전등사는 500여명이 들어가는 법당을 갖춘 뉴욕한복판의 큰 사찰이 됐지요. 한국불교는 체(體)는 갖췄어도 용(用)은 갖추지 못했어 요. 체와 용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한쪽이라 도 소홀하면 안돼요. 한국불교는 이 부분부터 다시 점검을 하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스님의 체와 용의 사상을 들으니 불현듯 화엄종을 창종한 법장 스님과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황제였던 측천무후(則天武后, 624년~705년)의 대화가 생각났다. 법장스님은 궁의 금사자상을 가르키며 측천무후에게 "금(體)이란 본래 자성(自性)이 없으므로 기술자가 교묘하게 가공하면 이것을 연으로 하여 금사자(用)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라고 불교교리를 설명했다. 결국 법장스님은 금이 본체이고 금사자의 형상은 현상이므로 금이 없으면 금사자도 없으니 금은 곧 금사자 안에 있다는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체란 인연에 따라 나타나는 일체 차별상의 근본이 되는 절대평등의 본체로서 일체 만물의 불변상주하는 본 모양을 가리키며, 용이란 체를 근거로 하여 인연에 따라 일체 차별상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체와 용은 둘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이 화엄에서 말하는 체가 곧 용이고 용이 곧 체라는 이사무애(理事無碍) 법계관이다.

스님은 이번 '수해' 에 대해서도 체와 용으로 설명하셨다.

"수해현장을 보니 슬그머니 화가 치밀어 올라와요. 이 나라는 근본적으로 체와 용을 갖추지 못했어요. 월드컵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이제는 세계로 뻗어나갈 날만 남았다고 하지만 용은 하나도 갖추지 못했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학교로 예를 들면 학습시설과 교실 다 갖췄어도 자질 있는 교사를 갖추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스님은 며칠 전 수해현장을 텔레비전으로 보고, 요즘계속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하셨다. 그리고는 수해는 인재라며 인간의 잘못된 행동을 꼬집었다.

"한 보살님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강원도 동해고속도로에서 차가 가다가 10대나 매몰됐는데 빨리 가는 차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해요. 보살님 말씀은 그렇게 되려고 해도 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거예요. 과연 불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산 밑으로 차가 지나가지 않으면 산사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우주의 흐름은 기를 따라서 회전합니다. 양은 음을 따라 돌고, 음은 양을 따라 돌지요. 천지의 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의 기가 산을 움직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장마가 그저 부슬부슬 오는 비가 계속 쉬지 않고 오는 정도였지요. 그런데 요즘 장마는 무섭습니다. 인력으로 당해낼 도리가 없어요. 장마를 하늘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 인재입니다. 전부 우리 인간들의 욕심이 뭉쳐있다 한순간에 되돌아온 것이지요. 지금 한번 밖을 보세요. 하루가 멀다 하고 산을 깎아내고, 길을 만들고, 빌딩을 세우고 있지 않아요. 하늘도 땅도 모두 예전과 다르게 변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공해들이 하늘로 올라가 대기권과 부딪쳐 태풍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의 무지로 만들어낸 소산이지요. 공업(共業)인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들 수해의 원인제공자들이니 내일처럼 생각하고 거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환경을 파괴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님은 환경훼손이 없는 세계를 만들려면 자기 자신부터 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자기 자신부터 깨끗한 마음을 갖고, 생활할 때 물도 맑고, 산도 맑아진다고 설하셨다.

글.사진=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리선행 법사의

스 님 이 야 기

홍도스님 (3)

'참회, 봉사 '를 기본 정신으로 불교의 대중화를 실천하며 공동체생활을 하는 ' 잇토엔(一燈園) ' 이라는 부처님마을이 일본 교오토(京都)에 있다.

'잇토엔' 에는 유치원부터 대학과 연구소도 있다. '잇토엔' 은 매달 6~9일 3박4일간 정기적으로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이 수련프로그램은 자아성찰프로그램으로, 수련을 받고나면 자부심을 갖게 되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간으로서 새로운 자각을 하게된다.

홍도스님은 1974년, 그곳에서 1년간 수행한 적이 있는데 그 때 남겨놓은 깊은 인상 때문에 스님의 행적이 28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불자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선승(禪僧)인 니시다 덴코(西田天香)가 설립한 생활불교의 현장에서 새로운 포교 방법을 배우고자 건너간 스님은 언어와 풍습이 다른 그곳에서도, 몸에 밴 부지런함과 규율 잘 지키는 습성, 그리고 특유의 친절로 오래지 않아 그곳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신망을 얻게 되었다.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잇토엔



에서 생활하게 된 홍도스님은 화장실 청소, 법당 청소, 식사 당번 등 어떤 것이든 솔선해 이행했다. 항상 만면에 웃음을 띠고 대화를 했기에 노인이나 어린이들에게 더 인기가 높았다. 얼마나 깊은 인상을 주었는지 지금도 그곳에 가면 '혼도스님 혼도스님(일본인들은 홍 자 발음이 잘 되지 않음)' 이라고 외치며 이곳 언덕은 혼도스님이 삽으로 평평하게 고른 곳이라든지, 저곳은 늘 잡초를 뽑던 곳이라는 등 스님과 연관해 회상을 하곤한다.

그곳에서 하심을 체득케 하는 수행방법중 하나로, 한달에 한번씩 외지에 있는 개인 집을 찾아가서 화장실 청소를 해주는 것이 있다. 홍도스님은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등에다 "잇토엔에서 나온 한국의 승려입니다. 댁의 화장실 청소를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써 붙이고 다니셨다. 그리고는 온몸이 땀으로 젖는 줄도 모르고 정성껏 청소를 하고, 다음 집을 찾아 나서곤 하였는데 얼마나 스님의 행동이 빨랐는지 집주인이 스님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려고 차를 끓여 수행자에게 드리는 보시금이 든 봉투를 들고 나오면 이미 스님은 다음 집에 가서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봉투를 그 집에 맡기면, 그 집에서는 두개의 봉투와 차를 준비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때도 스님은 어느 틈에 그 다음집에 가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스님이 청소하러 나오는 날에는 온 동네에서 '혼도스님 찾기' 소동이 한바탕 벌어지곤 했다. 마지막 집에서 여러 개의 봉투를 들고 나와서 골목길 저편에서 잇토엔을 향해 걷고 있는, 물통과 걸레를 든 키가 작은 한국스님을 발견하게 되고 한사코 보시금 봉투 받기를 마다하는 스님에게 억지로 그 봉투들을 건네고 고마움에 가득한 인사를 하는 모습이 흔히 목격되곤 했다.

보시금 봉투를 받은 스님은 먼저 그 돈으로 노인들과 어린이들이 좋아할 과자와 장난감을 샀다. 그리고 잇토엔으로 돌아와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 그들에게 과자와 장난감을 나눠주며 온몸으로 대화했다. 친구처럼 즐겁게 놀아주곤 하였기에 그들의 머릿속엔 한국에서 온 혼도스님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된 것이다.

잇토엔에서 1년동안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스님에게는 우리나라에 잇토엔과 같은 복지시설을 만드는 불사가 숙원사업이 되었다. 전국 방방곡곡으로 적당한 부지를 찾아 헤매고 불자들에게

日 '잇토엔' 서 수행…깊은 인상 남겨

스님의 근면과 친절 지금도 '화제'

잇토엔의 정신을 알리고 잇토엔 같은 시설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몇 년을 무리하시더니 그리도 애타게 염원하던 잇토엔 건설을 이루지도 못하고 젊은 나이에 열반에 든 것이다.

홍도스님이 입적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잇토엔 식구들 모두 어찌나 슬퍼했는지 스님의 49재엔 니시다 다케시 이사장이 그곳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 직접 한국으로 조문을 왔다. 그리고 스님의 화장 유골 일부를 잇토엔으로 옮겨 가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할 납골당에 안치했는데 스님께서 주석하던 보현정사의 신도 5명을 함께 초청하여 의식을 집전하였다. 스님의 유골을 안치하던 그 날은 모든 업무를 쉬게 하고 잇토엔의 식구들이 한자리에서 추모하게 하였다. 그 현장에서 나는 그들이 진심으로 홍도스님을 그리워 하는 모습을 보았다. 따뜻함이 가득한 진정으로 대했고, 또 무엇이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홍도스님을 일본인들은 진심으로 좋아했다. 스님이야말로 한일 친선 우호에 큰 획을 그은 진정한 민간 외교관이었음을 확인하였다.

나는 일본에 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잇토엔에 있는 납골당에 들러 홍도스님 위패 앞에 분향하고 그곳에서 아직 스님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과 스님께서 남겨놓은 잇토엔에 새겨진 스님의 이야기를 나누며 홍도스님을 추억하곤 한다.

횡성 '마음의 쉼터' 회주

현대불교신문사
외환카드

"스님·불자님"

부다피아 외환카드 만들어 드립니다.



부다피아 가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보시금이 적립됩니다.
스님, 종무원, 불자 누구나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외환카드 회원도 추가, 교체가 가능합니다.

부다피아카드만의 특전

- 동국대의료원 산하 5개 양 · 한방 병원 진료비 5-20%감면
- 불교전문서점"여시아문"할인
- 불교전문쇼핑몰"마하몰"할인
- 전국 유명호텔, 콘도 최고 88%할인
- 유명백화점및 할인점 무이자 할부 2-3개월
- 외식업체할인서비스(까르네스테이션 등)
- 국.내외 항공권 3% 할인
- 현대정유 오일뱅크 리터당 30원 적립
- 물품구매 누적금액에 따라 1,000원당 3원에서 10원 적립

가입문의

현대불교신문사 불교 카드 사업단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직통) 02-725-1132
대표) 02-737-8881

양산의 역사와 문화 2000년展
24~10월 21일 통도사박물관

지역 대표 박물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통도사성보박물관(관장 법하)이 부산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24일~10월 21일까지 '양산의 역사와 문화 2000년' 특별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양산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 아시아 문화의 이해와 교류를 꾀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전문 문화공간으로서 통도사성보박물관의 위상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울주 운흥사 개판 금강반야바라밀경 변상도 경판.

불교문화 정수 아시아인 품으로

자장율사 가사 등 불교문화재 350여점
개막일 학춤 공연 등 다양한 행사

전시에는 고대 양산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고분 출토 유물과 통도사를 비롯한 양산 인근 사찰과 절터에서 소장 또는 출토된 대표적 불교문화재 뿐 아니라 양산의 도자문화와 양산 지역의 고지도에 이르기까지 양산을 대표할 수 있는 350여점의 유물이 선보인다.

주요유물을 소개하면 '역사와 지리'에서는 양산 관련 각종 고지도와 자연환경 등이 전시되며, '선사와 고고문화'에서는 양산의 고분을 대표하는 금조총의 화려한 금속유물들이 선보일 예정이다. '불교문화'에서는 통도사의 금강계단 관련 현판 및 각종 문헌자료를 한자리에 모아 전시하며, 자장율사가 중국에서 모셔온 석가여래친착가사와 지장율사의 가사가 박물관에서 공개된다. 또 간월사지와 최근 발굴조사 된 울주 운흥사의 와전 · 기와 등의 유물도 통도사에 소장되어 있는 경판과 함께 처음 공개된다.

'양산의 사람들과 삶'에서는 충절의 땅으로서 양산을 부각시키기 위해 신라 박제상과 조선 초기 충신집안인 이징석, 임진왜란 당시 동래성 전투에 참가한 조영규 등의 관련유물이 전시된다. 또 양산의 산하를 노래한 '고향의 봄'의 작곡가인 양산출신 이원수 선생의 유품과 친필원고 등도 일반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밖에도 전시 개막일에 통도사지역에서 전승되어온 사찰학춤을 재현 공연하고, 이를 볼 수 있는 동영상을 일반에 제공하여 보다 생동감 있는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055)382-1001

문화담당= 이은자 기자 ejee@buddhapia.com



◇유산동 29번지 출토 금동반가사유상.

'천년의 소리, 천년의 울림'

봉화 청량사 28일 산사음악회 두번째 마당



◇이번 음악회에는 타악 연주팀 '두드락', 북연주가 '최소리와 자유인', '신촌블루스' 등이 출연한다.

북 · 국악 · 대중음악 · 춤 어우러진 한판

지난해 전국에서 5천여명이 넘는 관람객이 산사음악회를 찾아 화제가 됐던 경북 봉화 청량산 청량사가 '천년의 소리, 천년의 울림'을 주제로 28일 오후 7시 산사음악회의 두 번째 마당을 펼친다.

주제에 걸맞게 '북'을 주제로 한 공연으로 꾸며질 이번 산사음악회에는 타악기 연주팀 '두드락'과 북 연주가 '최소리와 자유인'이 출연해, 우리 북의 멋과 맛, 흥을 온 몸으로 보여줄 예정이다.

음악회에서 타악기 연주팀 '두드락'은 우리 일상 속에 녹아 있는 장단과 몸짓, 소리들을 강열하고 다이내믹한 퍼포먼스로 연출하고, 북 연주가 '최소리와 자유인' 또한 영혼과 마음을 울리는 북 연주로 인간과 자연, 사물을 하나의 소리로 묶어줄 것이다.

또 엄인호 · 정경화의 '신촌블루스'의 연주와 비구니 성악가 '정률스님'의 독창, '정숙희 솔뫼무용단'의 아름다운 춤마당, 시조창 한마당 등도 마련되어, 북과 국악, 대중음악이 어울린 무대로 꾸며진다. 산사음악회의 진행은 국악인 오정해 씨가 맡는다.(054)672-1446



◇능허 스님 作 '환경-구언의 에너지'.

'환생' 주제 작품전
능허스님, 15일까지
메디컴 한방병원서

밀교의 진언인 '옴마니반메훔'을 캔버스 속으로 끌어들여, 현대화된 만다라를 보는 듯한 독특한 작업을 해 온 화가 능허 스님이 15일까지 수원 메디컴 부속한방병원 7층 갤러리에서 '환생'을 주제로 전시회를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 스님은 님의 만남, 사랑의 축복, 자비는 흐르고, 봄의 그리움, 빛과 에너지, 자연과 우주, 우주의 꽃은 피고, 환희의 꿈, 행복의 문, 구원의 에너지, 관음의 사랑 등 다양하고 독특한 작품세계를 펼쳐 보인다. 019-325-1279

제주 4 · 3문학상 제정
관음사 부설 사회문화원

제주 관음사 부설 제주불교사회문화원은 '제주 4 · 3 문학상'을 제정, 내년 4월 3일 첫 시상한다.

관음사는 사건 당시 토벌대와 무장대가 대립했던 최대 격전지로 1949년 2월 치열한 접전의 와중에서 전소되었다 복원된 사찰로 아직도 경내 곳곳에 비극의 흔적이 남아있다. 관음사는 4 · 3 사건의 비극을 해원하고, 그 실상을 후대에 전하는 동시에 통일을 염원하는 취지에서 이 문학상을 마련했다.

중편소설과 체험수기 두 부문에서 공모하며, 체험수기는 사건 당시 어떤 신분이었든 상관없이 응모할 수 있으며 익명으로 투고할 수도 있다. 중편소설은 등단 10년 이내의 작가로 자격을 제한하며 마감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064) 758-2118.

문화 소식

日서 한국전통문화 향기전
'불교와 혼례문화' 주제 150점

2002 월드컵 및 한 · 일 국민교류의 해 기념으로 마련된 '한국 전통문화의 향기전'은 우리 전통공예작품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다. 16일까지 일본 교토 조형예술 대학내 전시관인 천심관에서 열리는 이 전시에는 한국의 불교와 혼례문화를 주제로 한 150여점의 공예작품이 선보인다.

전시 개막과 연계하여 '한국 전통음악과 춤의 대향연' 공연과, 공예제작 시연 · 문화상품 판매 등 한국문화체험행사도 펼쳐진다.

동양음악학 국제학술회의
26일 부산 금정문화회관서

제7회 동양음악학국제학술회의 및 아시아 음악축제가 26일~30일 부산대학교와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아시아의 서사음악'을 주제로 하는 이번 회의에는 한국, 우즈벡, 캄보디아, 몽고, 일본, 대만, 인도, 중국의 서사음악 논문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채현경(울산대의 사회로 인도 서사음악은 수바쉬칵(루이지애나대 교수), 인도 만뜨라는 쉬루띠(성악가 및 음악치료가), 몽골 서사음악은 엔비시(국립문화예술대 교수) 등이 발표한다.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지난 주말 대구에 내려갔다. 일을 마친 후 저녁에 기차역으로 나가보니, 태풍으로 철도가 끊겨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되었다고 한다. 바로 몇 시간 전에 잘 타고 내려온 그 길이 그 사이에 폭우로 막혔다니 믿어지지 않았다. 바로 고속버스를 알아보았지만, 이미 모든 차편이 동이 난 뒤였다. 비바람 속을 이리저리 뛰어다닌 결과, 결국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 택시를 타게 되었다. 내일 중요한 일만 없다면, 날이 밝은 다음 안전하게 버스를 타고 올라갔을 것이다. 이런 극한적인 날씨 속에서 총알택시를 타고 달린다는 것은 정말 무모한 일이었다. 바람에 차가 흔들리는 것이 느껴지고, 양동이로 0.1초 간격으로 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차를 탄 것을 정말 후회했다. 이렇게 목숨 걸 일이 아닌데 말이다.

우여곡절 끝에 다행히 서울에 무사히 도착했다. 옷은 비에 젖어 구겨졌고, 몸은 피곤했다. 잠깐이나마 '죽음'의 공무니를 본 느낌이랄까. 칠흑 같은 밤에 쏟아지는 비와 바람을 뚫고 달리면서, 뿌연 시야 속에 언뜻언뜻 비치던 깊은 밤의 속살을 만져본 그 순간들을 한동안 잊기 어려우리라. 다음날 뉴스를 보니, 김천과 강릉 등 전국 곳곳이 수해로 큰 피해를 입었다. 재난을 당한 수재민들을 위로하는 마음 간절하고, 특히 수해지역의 산사들이 입은 피해가 하루 속히 복구되기를 기원한다.

틱낫한의 '화'
화를 억누르려 하지말고 오히려 잘 달래고 가꿔서 인생의 꽃 피울 에너지로

내가 그렇게 무리해서 서울로 올라온 이유는, 이번에 한국방송대상 작품상을 받은 KBS의 'TV, 책을 말하다' 프로에 출연하기 위해서였다. 베트남 출신으로 프랑스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틱낫한 스님의 베스트셀러 〈화〉라는 책을 소개하는 기회에 대담자로 참가하게 된 것이다. 틱낫한이란 이름을 한자로 표기하면 석일행(釋一行)이 된다. 스님은 자신의 이름이 의미하는 뜻 그대로 참여불교(Engaged Buddhism)를 주창하여, 베트남의 전통불교를 개혁하였고, 평화에 대한 신념 때문에 공산정부에 의해 추방당하여 미국과 프랑스로 망명한 이후 많은 서구인들에게 불교를 전파한 인물이다.

"현대인은 누구나 화를 안고 살아간다."는 책의 첫 문장부터 시선을 잡아끌었다. 이 책은 탐 · 진 · 치 삼독을 극복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서구인들이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설명한 것이다. 책을 읽는 동안 "그래, 이게 바로 내 이야기야" 하고 느껴지는, 현대인이면 누구나 안고있는 문제와 그 문제를 치유하는 방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다. 베트남 전쟁 동안에 많은 동료와 제자들을 분신자살로 잃은 쓰라린 상처를 지닌 스님은 자신의 체험을 통해, 화가 나면 그것을 무조건 억누르지 말고 마치 우는 아기처럼 잘 달래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화는 자신의 일부로서, 간이 나빠졌다고 떼어버릴 수 없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쓰레기를 잘 처리하면 비옥한 거름이 되는 것처럼, 화를 잘 가꾸어 인생의 꽃을 피우기 위한 에너지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깊은 깨달음을 쉬운 언어로 풀어쓰는 틱낫한 스님의 사상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어 소개하려고 한다. 여러분도 문장마다 청명한 기운이 감도는 스님의 글을 한 번 읽어보기를 권한다.

■문학평론가

본심 · 본성이 살아 숨쉬는 피라미드황토석굴암

- 여타 찜질방이나 황토집과의 비교 할 수 없는 힘의 세계-



피라미드 황토석굴암 전경



피라미드안 거실 및 황토 돔의 구조

본심 · 본성이 살아 숨쉬는 황토 + 소나무 참나무 장작과 구들 황토방 + 피라미드 에너지

피라미드 구조물

피라미드 형태의 공간 구조물이 지구 방위의 남북 방향으로 정확히 배치되어지면 그 공간 구조물 내부의 특정지점(바닥에서 꼭지점 3분의 1지점)에 주로 미지의 에너지 공간이 형성되며 이 미지의 에너지에 의해서 피라미드 내부에는 여러가지 신비한 현상(탈수 건조 현상 및 면도날 재생, 식물 생장 및 발아 촉진, 생체 치료 및 활성화 효과 등)이 발현

황토석굴암이란?

황토석굴암 생황토 40톤과 회오리방식의 구들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번 불을 지피면 10일을 가는 난방, 여타 찜질방이나 비교할 수 없는 힘의 세계에서 내몸의건강과 정신의 평화를 위해 피라미드 반원구 황토 석굴암이 내뿜는 강력한 에너지의 비밀에 귀 귀울여 보자.

엄청난 우주의 기운과 지기가 내 몸을 휘돌아 정화하고 재 충전 시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피라미드황토석굴암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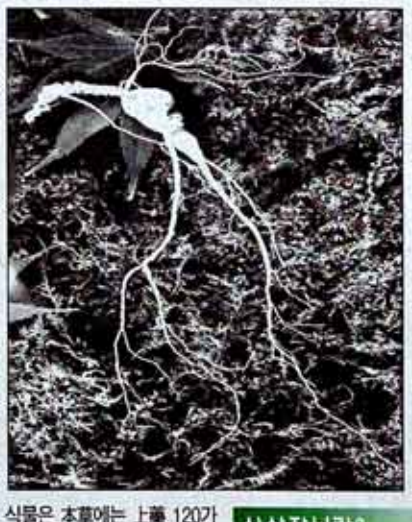
• 크 기 : 지름 (내경) 380cm
• 벽두께 : 35-40cm • 높 이 : 210-270cm

피 라 황 토 시공문의 : 황토 건축가 안 진 건 017-585-6045 011-9547-4741

元 · 氣 · 回 · 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薰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원(분석 51160-150)
심 마 당 長腦山蔘

'지켜 봄' 으로써 궁극 통찰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수행법으로 알려진 위빠사나는 동남아시아 불교국가들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왔다. 미얀마의 위빠사나 최고 수행자 마하시(1904~1982) 스님에 의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마하시 위빠사나 수행법은 미얀마는 물론 아시아와 서구의 여러 나라로 전해졌다. 마하시 스님의 뒤를 이은 우 빤디따 스님(사진)은 1955년부터 마하시 수행센터에서 위빠사나를 지도했으며, 현재 수행센터 빤디따라마와 랭군의 명상센터 원장으로 수많은 수행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바로 이번 생에 우빤디따 지음 / 조미라 옮김



〈바로 이번 생에〉(조미라 옮김, 불광출판부)는 우 빤디따 스님이 메사츄세츠주 배리에 있는 위빠사나 협회(Insight Meditation Society)에서 열린 석 달간의 집중 수련기간 동안 설한 법문을 우 아가찌따 스님이 1992년 영어로 번역해 펴낸 〈In This Very Life〉(위즈덤 출판사)를 옮긴 것이다. 명상을 하기 전에 갖추어야 할 몸가짐과 경행을 하는 방법 등의 기본 지침에서부터 명상 중에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다룰 것인가를 꼼꼼하게 안내하고 있다.

'마하시 위빠사나'는 좌선할 때 호흡에 동반되어 생기는 복부의 움직임을 일차적인 '마음 챙김'의 대상으로 삼는다. 배가 불러오면 '일어남', 배가 꺼지면 '내려감' 하고 마음으로 이름을 부르며 대상의 생겨남과 지속함과 소멸하는 과정 전부를 철저히 주시함으로써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러한 수행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은 반드시 스승과의 면담을 통해 고쳐나가야 올바른 수행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마하시 위빠사나 수행법 자세히 설명
"단 5분만이라도 실천 · 체험"이 중요

1장에서는 다섯 가지 기본 계율과 명상과 경행의 방법, 스승과의 면담에 대해 이야기한다. 2장 '궁극적 실제를 꿰뚫어 보다'는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요소들을 계발하는 법을, 3장 '열 개의 살인군단'은 육체적 쾌락과 배고픔, 게으름 등 수련을 방해하는 열 가지 걸림돌과 그 극복 방법을 가르쳐준다. 4장에서는 깨달음의 일곱 가지 요소를 불러일으키는 방법을 소개한다. 5장과 6장에는 보다 높은 단계에 도달하기 위한 지침을 실었다.

우 빤디따 스님은 "어떤 수행이라도 직접 해보지 않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단 5분만이라도 직접 실천하고 체험해 보십시오"라고 당부한다. 값 9천원.

출판 담당=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음력 11월 15일, 팔관회 행사에 앞서 노래와 춤을 선보일 선랑(仙郞)이 용 · 봉황 · 코끼리 등으로 꾸며진 수레를 타고 개경의 큰 길을 행진한다.

팔관회 · 연등회 어떻게 진행됐을까?

'한국생활사 박물관 7-고려 생활관 I' 출간



고려의 대표적 축제로 알고 있는 팔관회와 연등회. 이들 축제는 어떻게 진행됐으며, 축제에 참여한 우리의 조상들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

선사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사를 '박물관' 형식으로 담아온 〈한국생활사박물관〉 시리즈 7권 '고려생활관1'은 고려의 국가적 축제인 팔관회를 역사학계의 고증을 거쳐 최초로 재현해 보인다.

팔관회는 부처님께 등불을 공양하는 행사인 연등회와 함께 고려 사회의 가장 큰 명절이자 축제였다. 원래 불교 신자들의 수련 행사였던 팔관회는 고려 시대에 이르면 계율을 지킨다는 본래 성격은 사라지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잔치의 성격으로 자리 잡았다. '가상체험실'에서는 온 나라 사람들이 함께 참여한 이 행사의 준비과정에서부터 의식 진행순서와 각종 부대 행사까지 상세하게 보여준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역사책이나 TV프로그램에서 주로 다루어온 후삼국 통일, 왕자의 난 등의 '역사드라마'에서 눈을 돌려 고려 서민들이 펼치는 일상의 삶을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다.

불교와 함께 유학이나 전통무속 등이 두루 숭상되었고, 한반도 최초의 단일 국가로 세계로 나아가 우리 민족의 이름('코리아')이 된 고려. 불교 회화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고려 불화와 불교의 힘으로 몽골의 침략을 극복하고자 하는 염원을 담은 팔만대장경을 만들어 낸 '잘생긴 고려'이자 무뚝뚝하고 투박한 석불을 탄생시킨 '못생긴 고려'.

고려를 말할 때 불교를 빼놓을 수 없다. 고려의 황도 개경에는 흥국사 · 보제사 · 봉은사 · 개국사 등 500여 개의 사찰이 있었고, 개경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인 십자가 남쪽에 있었던 보제사에는 높이 60m가 넘는 5층탑이 세워져 있었다. 향나무를 베어 갯벌 한복판에 묻는 '매향(埋香)'은 미륵부처를 만나려는 염원을 담은 의식이었다. 이밖에도 사찰의 경제와 사찰행사, 승려가 되는 법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고려 서민들 일상의 삶에 초점
사찰경제 · 행사 · 승려되는 법 소개
무속 · 풍수지리 · 고려청자 제작과정도

그렇다면 고려시대 사람들은 무얼 먹고 살았을까. 고려인들은 도살금지령을 여러 번 내렸을 만큼 채식위주의 식생활을 영위했다. 김치도 이때 발달했고, 밥과 국의 상차림이 기본이 된 것도 이때였다. 동동주, 국화주, 두견주, 오가피주 등 술 종류는 수없이 많았고, 안주로는 말린 고기와 해산물이 인기였다.

고려의 관문인 벽란도에서는 아라비아 · 중국 · 일본의 상인이 싣고 온 물자들이 거래됐으며, 불교와 함께 유학이나 무속, 풍수지리 등이 두루 숭상됐던 다원적 문화 풍속도를 잘 보여준다. 고려청자의 제작과정과 사진을 통해 본 세계 도자기문화 발전과정도 흥미롭다.

무인정변과 몽골침략으로 격동하던 고려 후기 생활상을 다룬 '고려 생활관2'는 올 12월 출간될 예정이다. 값 1만6천8백원.



사명당 배규범 지음

〈사명당〉(배규범 지음, 민족사)은 임란기 불가문학을 연구한 지은이가 철학자이자 종교인, 문인이자 이 땅의 백성으로서의 사명당의 생애를 소설 형식으로 재구성한 책이다.

전란 극복을 통해 불국토 건설을 지향했으며, 민중 불교를 본격적으로 주창, 조선조 불교계의 중흥을 이끌기까지의 이야기가 한시와 당시 사료를 통해 펼쳐진다. 지은이는 "이 책에서는 승병장의 이미지를 벗기고, 문사철(文史哲)을 두루 갖춘 인간 사명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한다. 값 8천 5백원.



육바라밀을 만화로 … 1차분 6권

만화로 보는 불교 히로 사치야 지음 / 계환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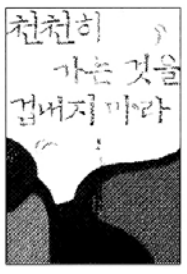
일본의 대표적인 불교학자인 히로 사치야가 쓰고 시바 죠타로, 가이즈카 히로시 등 일본 만화가들이 그림을 그린 〈만화로 보는 불교〉(히로 사치야 원작, 계환 옮김, 황금가지)가 나왔다.

이 책은 히로 사치야와 스즈키 출판사가 공동으로 기획한 〈만화 불교 시리즈〉(전 108권) 중 1차분으로, 불교에서 가르치는 여섯 가지 수행 방법, 즉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주제로 한 6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육도집경〉, 〈본생경〉, 〈보살본연경〉 등의 경전에서 전하는 부처님의 전생이야기를 만화로 쉽게 풀어 실생활과 접목시켜 보여준다. 책 뒷편에는 '뒷이야기'와 '해설'을 곁들여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책마다 부처님의 전생을 그린 돈황석굴의 벽화와 불교의 여덟 수호신인 가루다와 용왕을 그린 불화 등 컬러 화보를 담아 보는 재미를 더한다. 각 권 6천원.

'보살의 삶' 쉬운 언어로 전달

천천히 가는 것을 겁내지 마라 철우 지음



"지극히 겸손한 마음을 불교적인 용어로 바꿔 말하면 이타심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다른 이를 이롭게 해서 이익을 얻도록 함이니 남을 위하는 이타행을 통해서만 자신의 교만심과 아집을 떨쳐낼 수 있다"

팔공산 파계사 강원 강주이자 영산율원 율원장인 철우 스님이 그동안 방송과 신문에 연재했던 글을 모아 〈천천히 가는 것을 겁내지 마라〉(부다가야)로 펴냈다.

부처님의 일대기와 오계, 대인관계에서 지켜야 할 예절 등을 일화와 경구를 통해 쉽게 풀어 쓴 '보살은 어디에 계신가', '싯다르타 태자의 출가', '일곱 가지 성스러운 재산' 등 50여 편의 글이 실려 있다. 1장은 초발심의 장으로 '눈뜨는 사람', 2장은 참회의 장으로 '마음 돌아보기', 3장은 정진의 장으로 '천천히 걸어가기', 4장은 깨침의 장으로 '깨침의 소리'로 꾸며져 있다. 값 8천원.

금주의 베스트북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화(Anger)	틱낫한	명진출판사
2	관심	법상	무한
3	달라이라마의 아주 특별한 선물	달라이라마	청아출판사
4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류시화	김영사
5	신묘장구대다라니강해	임근동	솔바람
6	영가천도	우용	효림
7	틱낫한의 평화로움	틱낫한	열림원
8	달라이라마와 도올의 만남	김용옥	통나무
9	산중에서 길을 물었더니	서화동	은행나무
10	깨침과 깨달음	박성배	예문서원

도서 안내: (02)737-0695

인터넷 도서 주문
yosiamun.com
전화 : 02)737-0695 / 팩스 : 02)737-0696

여시아문 개점 8주년! SALE

※ 행사기간 : 2002년 8월 24일 ~ 9월 30일까지
※ 한정수량이므로 조기에 품절 될 수도 있습니다
※ 도서할인판매 20~40%

	도서명	저자	번역자	출판사	정가	할인가
1	부처님이렇게오셔서이렇게사시다~	정태혁		여시아문	9,000	7,200
2	무문관혹은너는누구냐	한병조		여시아문	6,000	4,800
3	참선요지	대성스님		여시아문	5,500	4,400
4	부처님께재롭텅면	스티븐미첼	최윤정	여시아문	9,000	7,200
5	방편개시	허운스님	대성스님	여시아문	6,000	4,800
6	선방일기	지허스님		여시아문	5,000	4,000
7	제가불자를위한계율강좌	혜능스님		여시아문	6,500	5,200
8	허공의땔꾹질	이종찬		여시아문	5,000	4,000
9	보르헤스의불교강의	보르헤스외	김홍근	여시아문	5,500	4,400
10	붙성이란무엇인가	다카시키	전치수	여시아문	4,500	3,600
11	법수로배우는불교	이재열		여시아문	4,500	3,600
12	생활속의불법수행	현대불교신문사		여시아문	6,000	4,800
13	깨달음으로가는올바른순서	초펠		여시아문	4,000	3,200
14	삶은고가아니다	혜원스님		여시아문	6,000	4,800
15	그까지살좋있으면어때	학림		여시아문	5,000	4,000
16	중생이라는이름의부처에게	월하스님외		여시아문	7,000	5,600
17	배낭에담아온인도	김호성		여시아문	9,000	7,000
18	라다크에서찾은부처	앤드류하비	연호택	여시아문	12,000	9,600
19	여린이찬불창작곡악보모음집	좋은벗풍경소리		여시아문	9,000	7,200
20	선의사상과역사	야나기다세이잔	추만호,안영길	민족사	6,000	4,200
21	관음경이야기	동봉스님		민족사	5,500	3,850
22	불교의지식100	편집부		민족사	5,000	3,500
23	붓다와그가르침	B.R암배르카르	박희준	민족사	7,000	3,500
24	불교와기독교의재미있는퀴즈여행	히로사치야	하유상	민족사	4,500	3,150
25	대승기신론사상연구1	박태원		민족사	8,500	5,950
26	인도의이원과불교	정승석		민족사	8,000	5,600
27	삼국사기전거론	이강래		민족사	15,000	9,000
28	한국승전문학의연구	김승호		민족사	8,500	5,950
29	신라불교여래장사상연구	이평래		민족사	15,000	9,000
30	불전해설사전	정승석편		민족사	17,000	10,200
31	신라불교사상사연구	김영미		민족사	14,000	9,800
32	한국근대불교의현실인식	김광식		민족사	15,000	9,000
33	진정국사와호산록	허흥식		민족사	15,000	9,000
34	인도철학2	인도철학회		민족사	5,500	3,850
35	인도철학5	인도철학회		민족사	8,000	5,600
36	인도철학6	인도철학회		민족사	8,000	5,600
37	인도철학7	인도철학회		민족사	9,000	6,300
38	인도철학8	인도철학회		민족사	8,000	5,600
39	인도철학9	인도철학회		민족사	8,500	5,950
40	한국불교사	가마타시게오	심현숙	민족사	6,000	4,200
41	한국종교사	제이스헨플리그레이슨	장은구	민족사	8,000	5,600
42	보살의마음중생의마음	일타큰스님		민족사	5,500	3,850
43	바람의길	석지현		민족사	5,500	3,850
44	티베트어의기초와실천	허일범		민족사	4,500	3,150
45	그대들도나처럼이길로오라	법산스님		민족사	7,500	5,250
46	산스크리뜨어기초와실천	스가누마	이지수	민족사	7,500	5,250
47	정병조의불교강좌	정병조		민족사	6,800	4,900
48	한국과의만남	타무라엔초	김희경	민족사	5,000	3,500
49	본대로느긴데로인도기행	정승석		민족사	8,500	5,950
50	티베트불교사	야마구치즈이호외	이호근	민족사	5,500	3,850
51	중국문학과선	진승길	일지	민족사	6,000	4,200
52	중국불교학강의	여징	각소	민족사	8,500	5,950
53	중국불교사(상)	K.S케네스첸	박해당	민족사	5,500	3,850
54	중국불교사(하)	K.S케네스첸	박해당	민족사	6,000	4,200
55	중국불교의사상	다마키코시로외	정순일	민족사	5,500	3,850
56	민중불교철학	여익구		민족사	4,500	3,150
57	밀교희역사와문화	요리토미모토히로	김무생	민족사	5,500	3,850
58	불교희서구적모색	유다유타카	이미령	민족사	4,000	2,800
59	논어와선	한모다히가	최효선	민족사	5,500	3,850
60	딴드라불교입문	S.B다스굽따	정승석	민족사	5,000	3,500
61	초기,부파불교의혁사	후지타로탁츠외	권오민	민족사	6,000	4,200
62	붓다,마르크스그리고하나님	프레버링	안옥선	민족사	5,000	3,500
63	불교사상과서양철학	에드워드콘즈외	김종욱	민족사	6,500	4,550
64	불교철학개론	팡리티엔	유영희	민족사	5,500	3,850
65	민중불교의탐구	법성외6		민족사	4,500	3,150
66	일본불교사	이시다미즈마로	이영자	민족사	6,500	4,550
67	초기대승불교의종교생활	하라가와아키라	심법계	민족사	6,500	4,550
68	인식과초월	핫토리마사아키	이만	민족사	5,500	3,850
69	금강경전서	무비		민족사	25,000	15,000
70	우리말법요집	김호성		민족사	8,500	5,950
71	인도의선종국의선	아베초이치외	최현각	민족사	6,000	4,200
72	중국불교사상사	키무라키요타카	장휘옥	민족사	6,000	4,200
73	천태법화의사상	다무라시로외	이영자	민족사	5,500	3,850
74	인도불교철학	카지야마유이치	권오민	민족사	5,000	3,500
75	인도불교	나라야스아키	정호영	민족사	6,500	4,550
76	선과정토	후지요시자카이	한보광	민족사	5,000	3,850
77	소승불교와대승불교	히로사치야	강기희	민족사	6,000	4,200
78	한국불교인물사상사	불교신문사		민족사	9,500	6,650
79	설법그이본과실제	정순일		민족사	7,500	5,250
80	한국불교고대명저의세계	김영태		민족사	14,000	9,800
81	달마	야나기다세이잔	김성환	민족사	5,500	3,850
82	유식의구조	다케무라마키오	정승석	민족사	5,500	3,850
83	제똥은제가누워야지	지묵외		민족사	4,500	3,150
84	보현행원품강의	무비		민족사	6,500	4,550
85	절요	조계종편찬위원회		민족사	13,000	9,100
86	서장	조계종편찬위원회		민족사	18,000	10,800
87	선요	조계종편찬위원회		민족사	9,000	6,300
88	도서	조계종편찬위원회		민족사	13,000	9,100
89	걸망도내려놓고마음도내려놓고	지천스님		불광	3,500	2,450
90	그대그대자신으로	정운		불광	4,500	3,150
91	또다른이름되여	정운		불광	3,500	2,450
92	달을보는님	정운		불광	3,500	2,450
93	하산그다음이야기	권경술		불광	5,000	3,500
94	내아픔이꽃이되어	김재영		불광	3,500	2,450
95	3박6일명상체험기	김남선		불광	8,500	5,950
96	그낭갈수없는강	이도친		불광	7,500	5,250
97	친구여우리붓다가되자	김효천		불광	6,500	4,550
98	근본불교의이해	홍사성		불교시대사	5,500	3,850
99	법화행자초상	곽자일		불교시대사	6,500	4,550
100	한국문화와불교	목정배		불교시대사	6,500	4,550
101	불교설화사적	송지홍		불교시대사	4,700	3,290
102	세계의종교	유다유타카	지승철	불교시대사	4,700	3,290
103	슬픈대마더우릭겔에오는초인	김정휴		불교시대사	4,800	3,360
104	중국불교사1	카마타시게오	장휘옥	장승	12,000	8,400
105	중국불교사2	카마타시게오	장휘옥	장승	13,000	9,100
106	화엄경이야기	카마타시게오	장휘옥	장승	6,500	4,.550
107	해탈꽃	고종화		장승	2,500	1,750
108	죽는법을모르는태자는법을어찌알라	조오현		장승	4,500	3,150
109	대승기신론이야기	카마타시게오	장휘옥	장승	4,300	3,010
110	네발딜부터살피라	정념		장승	6,000	4,200
111	선문선답	조오현		장승	5,000	3,500
112	불교학제론강의실-입문편	장휘옥		장승	4,500	3,150
113	한역	최동환		지혜의나무	17,000	10,200
114	천수경	천명일		지혜의나무	8,000	5,600
115	참마음을잊지말아야	법성스님		지혜의나무	8,000	5,600
116	자유로운여성이되라	오쇼라즈니쉬	손민규	지혜의나무	9,800	6,860
117	지금여기에살아라	오쇼라즈니쉬	손민규	지혜의나무	9,800	6,860
118	언제나가슴적시는그말씀대로살겠네	법성		지혜의나무	8,000	5,600
119	물속의물고기가목마르다	까비르	박지명	지혜의나무	6,500	4,550
120	삼일신고	최동환		지혜의나무	20,000	12,000
121	홍돈과과선황	최동환		지혜의나무	15,000	9,000
122	천부경	최동환		지혜의나무	18,000	10,000
123	사막을건너는사람은별을사람해야한다	이재운		한강수	4,000	2,800
124	홍문화박사의건강장수법	홍문화		한강수	5,000	3,500
125	홍문화박사와함께건강을이야기합시다	홍문화		한강수	5,000	3,500

http://www.yosiamun.com Tel : 02-737-0695 / Fax : 02-737-0696

위빠사나 수행법 학술적 조명

근본불교수행도량, 10월 19일 진흥원 법당서



◇경남 김해 다보정사의 위빠사나 수행자들이 부처님 탄생지 인도 룸비니에서 좌선 수행을 하는 모습.



◇마하시 스님



◇고엔카

이론 · 실제수행 두 측면서 토론

시대에 따른 방법상 차이도 고찰

화두를 붙잡고 수행하는 간화선과 달리 현재 의식을 좇아 궁극적 실제를 통찰하는 위빠사나 수행법. 바로 이러한 접근의 쉬움 때문에 일반인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위파사나(Vipasana)를 본격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사)근본불교 수행도량(이사장 원명 · 홍원사 주지)이 10월 19일 오전 10시 대한불교진흥원 법당에서 마련하는 '〈대념처경〉의 수행 이론과 실제' 학술대회다.

1988년 거해 스님이 미얀마의 최고 위빠사나 수행자 마하시 스님의 제자인 우 빤디따 스님을 초청해 법회를 열면서 우리 나라에 알려지기 시작한 위빠사나는 90년 중반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지금은 위빠사나를 교육하고 수행하는 장소만 10여 군데에 이를 정도.

하지만 대중적 인기에 비해 학술적 접근은 이에 못 미쳐 불교학 관련 학회에서 단편적으로 소개되어 온 게 사실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위빠사나를 독립된 주제로 다뤄 본격 조명한다는 점 하나로도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하다.

학술대회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팔리어 경전 가운데 위빠사나 수행의 가장 중요한 소의경전인 〈대념처경〉과 그 주석서에 나타난 수행의 이론적 측면을 고찰하는 부분이 앞서고, 실제로 〈대념처경〉을 소의경전으로 하고 있는 두 가지 수행법 즉 마하시 수행법과 고엔카 수행법을 고찰하는 부분이 뒤따른다.

임승택(동국대 강사)씨와 미산 스님(백양사 참사랑 수행원장)씨가 이론적 측면을 고찰하고, 일중 스님(인도 델리대 재학)과 김재성(고려대장경연구소 선임연구원)씨가 실제 수행 부분을 맡았다. 뿐만 아니라 조준호(동국대 강사), 재연 스님(실상사 화엄학림학감), 안승준(동국대 강사) 안양규(동국대 교수) 등 팔리어와 초기불교를 전공했고, 직 · 간접으로 위빠사나 수행을 접한 국내 연구자들이 토론자로 총출동한다.

학술대회 운영위원이기도 한 미산 스님은 "위빠사나를 간화선의 대체로 보자는 취지는 아니다"며 "위빠사나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고 실제 수행을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집중 논의함으로써 종합적인 정리의 자리를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국내에 위빠사나를 처음 알린 미얀마의 우 빤디따 스님이 참석해 '〈대념처경〉과 위빠사나 수행'을 주제로 기조 법문을 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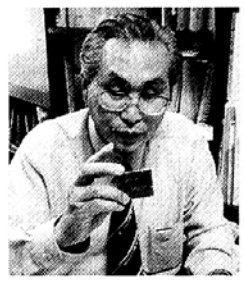
학술담당=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한국 불교미술의 원류을 찾아라.' 지난 8월 17~29일 파키스탄으로 간다라 불교미술 학술조사를 다녀온 문명대 교수(동국대 · 한국미술사연구소장)는 "서구 중심에서 벗어나 동양 불교문화의 근원지인 간다라 문화를 우리 입장에서 연구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희(원광대) · 안병찬 교수(경주대) 등 (사)한국미술사연구소 소속 24명이 참여한 이번 학술조사에서 문 교수는 부처님 고행상으로 유명한 라호르 박물관의 간다라 불교 미술실에 소장된 불상들을 정밀 조사했다. 문 교수가 주도하는 '파키스탄 간다라의 고대 문화교류에 대한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앞으로 3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간다라 미술 우리시각서 연구"

파키스탄 불교미술 조사 다녀온 문명대 교수



◆어떻게 진행되나?

"첫 해는 탁실라, 스와트, 페사와르 등 박물관 소장 유물 조사가 중심이다. 올 12과 내년 2월에는 전시실뿐 아니라 수장고 유물도 조사한다. 2~3년 차에는 유적지 현장 조사와 발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가능하면 아프가니스탄의 간다라 유적 · 유물도 조사하고 싶다."

◆어떤 의미가 있나?

"간다라 문화에 대한 연구는 서구 것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서구 연구자들의 관심은 서구 헬레니즘 문화가 동방으로 전파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직접적 영향을 받은 우리 입장에서 간다라 유적과 유물을 해석함으로써 동양 불교문화에 끼친 간다라 불교문화의 형성과 진행, 전파 과정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기대하나?

"아직도 체계적 발굴과 과학적 유물 정리가 안 돼 있다. 중국, 한국 유물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발견된 유물의 편년을 새롭게 검토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연대별 특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지 학자들이 7~8세기에 조성됐다고 보는 카르카이 마애불의 경우 중국 운강석불, 한강 뚝섬 출토 금동불상(400년 전후)과 비교해 보면 3~4세기로 조성연대가 훨씬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동양불교에 끼친 영향 등 밝힐 계기

한국 · 중국과 비교 유물편년 재검토

문 교수는 "일본의 경우 파키스탄 박물관에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술조사뿐 아니라 유물을 빌려와 전시회를 열기도 한결 수월하다"며 "이제 선진국 박물관에 한국실을 내는 것도 좋지만 파키스탄처럼 우리 문화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역의 박물관 지원도 고려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지자체 문화재 담당공무원들 65.3%가 "전문성 보통 이하"

관련 업무 4년미만 근무자도 76%나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담당 공무원들은 스스로 문화재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앙 행정부처가 자신들의 비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세우는 것을 가장 큰 고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 공무원 201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6~20일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한 질문에 전체의 65.3%(보통 33.2%, 낮다 32.1%)가 '보통 이하'라고 응답했다. 전문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도 34.7%로 나왔지만, 정 의원은 "문화재 업무의 전문성에 비춰볼 때 매우 우려할 수준"이라고 밝혔다.

문화재 정책 입안자가 일선 문화재 담당 공무원의 근무여건 및 고충에 대해 얼마나 이해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에서는 40.5%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응답(이해한다 20.5%, 보통 39.0%)했는데, 이해가 부족한 부분 1순위로 '일선 공무원들의 비전문성'(51.1%)을 꼽았다. 두번째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 정부의 정책만을 고수한다(20.2%)로 나왔다. 일선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비전문성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입안자들의 일방적 정책 고수를 가장 힘들게 생각한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다.

일선 문화재 담당 공무원의 비전문성은 문화재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전체 응답자의 76.4%가 문화재 업무를 맡은 지 4년이 안 됐으며 이전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 15.4%에 그쳤다.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외부 전문가의 활용도 떨어진다. 지역 문화재 업무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묻는 질문에 참여도가 높다는 응답은 27.1%인 데 비해 37.0%가 높지 않다, 35.9%가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문화재 보수 정비 예산의 집행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55.1%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14.3%에 머물러 문화재 보존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불교문화재 DB구축에 50억

안정적 보수정비 위한 문화유산기금 신설도

문화재청, 10년계획 발표

문화재청이 앞으로 10년 동안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찰소장 불교문화재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또 중장기 계획에 따라 중요 문화재를 안정적으로 보수정비하기 위해 문화유산기금을 신설한다.

문화재청은 건조물 문화재 보존, 매장문화재 보호 등 문화재 정책 전반에 걸쳐 2011년까지 향후 10년간 추진할 중장기 계획을 담은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 계획'을 4일 확정, 발표했다.

기본 계획에서 문화재청은 특히 동산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10년에 걸쳐 석가탑에서 나온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등 중요 전적(典籍) 문화재에 대한 종합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를 DB화하는 데 5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 초 시작된 사찰소장 불교문화재(3만1200백건 추정) 일제조사도 50억원의 예산을 들여 10년 동안 진행한다. 또 동산문화재가 집중된 주요 사찰, 서원 등에 853억원의 예산을 배정, 유물 전시관 건립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1년 단위의 예산 집행방식으로는 효율적인 문화재 보수정비가 어렵다는 판단 아래 미국의 '역사유적 보존기금'이나 프랑스의 '발굴문화재 보존기금'과 같은 별도 기금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맛지마니까야 한글판 발간

백도수 박사, 용어 · 구절마다 해설 달아



한역 대장경의 〈중아함경〉에 해당하는 팔리어 대장경 〈맛지마니까야〉의 한글 번역본이 새로 나왔다. 지난 7월 전재성 박사(한국빠알리성전협회장)가 첫 한글 번역본을 낸 데 이어 두 번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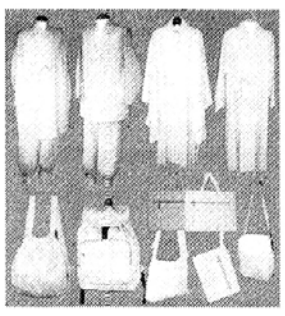
전 박사의 번역본이 쉬운 우리말 번역의 맛을 살렸다면, 백도수 박사(동국대 강사)가 최근 출간한 〈맛지마니까야(中部) I〉은 용어 하나 하나에 대한 정확한 해석에 방점을 뒀다. 의역보다 직역에 가깝게 번역했으며 붓다고사의 주석서(Papa cas dan)를 비롯해 여러 주석서를 최대한 활용, 풍부한 주(註)를 달아 용어나 구절을 설명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아직 깨닫지 못한' (제4경)이라는 구절이 나왔을 때 무엇을 깨닫지 못했다는 말인지 아리송할 때 '사성제를 이해하지 못한' 뜻이라고 설명한 붓다고사의 주석을 보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질 만하다. 불자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와 같이 들었다'는 말 속에는 '나에 의해 들려진 것이다' 또는 '나의 들은 것이다'라는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다.

전문 연구가들을 위해 주에 달린 붓다고사의 주석서 원문을 뒤에 따로 실었다. 전체 세 편 152경 가운데 첫 편 25경에 대한 번역서이다.

백 박사는 "〈맛지마니까야〉가 승가와 재가의 수행과 깨달음의 과정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가장 먼저 번역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한 백 박사는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인도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동국대에서 '비구계경에 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특허
BBS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현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최초로 특허청에 의장등록(제 0246178호)
승복 · 법복 · 잠옷 · 바랑 판매 안내
불교계와 저희 기원섬유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고급모직 (특징 - 통풍 잘됨, 가볍고 구김없음,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조끼 : ₩170,000) (동방바지 : ₩160,000) (두루막 : ₩140,000)
2. 쿨맥스 (특징 - 품질 가장 우수함, 수분 발산율이 빠름, 구김없고 아주 가벼움, 물세탁가능)
(적삼, 바지, 조끼 : ₩180,000) (동방바지 : ₩170,000) (두루막 : ₩150,000)
3. 특수직 (특징 - 제일 가볍고 시원함,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조끼 : ₩140,000) (동방바지 : ₩130,000) (두루막 : ₩110,000)
4. 아포텍스 (특징.- 몸에 붙지 않으며 까칠함,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조끼 : ₩160,000) (동방바지 : ₩150,000) (두루막 : ₩130,000)
5. 광목 (특징 - 순수한국산, 손염색, 멋을 가진 승복)
(적삼, 바지, 조끼 : ₩170,000) (동방바지 : ₩160,000) (두루막 : ₩130,000)
6. 장삼 (조계종, 태고종) - 춘추, 하절기(가사도 주문 받습니다.)
(고급모직 : ₩220,000) (특수직 : ₩200,000)
7. 셔츠 (차이나, 라운드) : 가볍고 시원하며 물세탁 가능 : ₩30,000)
8. 걸망, 바랑, 나들이가방, 손가방, 보조가방
9. 가볍고 예쁜 법복(회색, 밤색) : 조끼 바지 : ₩65,000

하절기 시원하게 보내실수 있게 저희 기원섬유가 책임지겠습니다.
스님께 가사불사 보시하면 십선(十善)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제팔란을 소멸합니다.
◒ 잠옷(항균처리) - 남, 여(상, 하) : ₩65,000
특징 : 1. 특허청에 의장 등록된 옴자, 연꽃무늬가 은은하게 들어있음(제0246178호)
2. 항균처리된 제품
항균처리란? 각종 박테리아와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시켜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청결한 몸상태를 유지시켜주는 특수제품 임
3. 고급순면으로 촉감이 아주 뛰어남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원섬유
본 사 : 대구 동구 신천 3동 139-1 봉영 B/D 302호
TEL : (053)764-4114 H·P : 011-9850-4400
지역 판매점 모집

자랑스러운 우리 태극전사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주)수신오가피 대표 / 성 광 수氏
중국산도 북한산도 아닙니다.
최근 중국산오가피를 북한산이나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적발된 업체들이 물의를 일으킨바 있습니다.
수신토종오가피는 중국산도 북한산도 아닙니다. 오직 국내에서 재배한 국산토종오가피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국내최대재배자 성광수씨가 매주 수요일 오후2시에 직접 농장견학회를 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란 우리 선수들의 지칠줄 모르는 체력!
선진축구의 파워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수신토종오가피가 함께 했습니다.
저희의 작은 정성이 우리 선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꼭 확인하십시오!
우리 선수들이 먹는다며 선전하는 오가피제품들이 있습니다.
우리 축구국가대표팀이 먹은 오가피는 '수신토종오가피' 입니다.
사진 확인하셨습니까?
수신토종오가피는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가 재배한 100% 토종오가피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입니다. 품질에 대한 자부심으로 한봉지 한봉지마다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없다면 축구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가 아닙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문의전화 (02)447-5300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마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악신도 되고 선신도 돼

물질·정신계 양면 같이 해야 쉽게 빨리 해결할 수 있어

(전번 호에 이어서)

▲질문자4: 생활 자체를 공부 재료로 삼으라는 말씀, 일체를 주인공에 일임하라는 말씀으로 진리가 일상 생활 속에 있음을 일러주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은 어떠한 경계든지 사량으로 끄달리지 말고 한 곳에서 들고 남을 관(觀)하고 굳은 믿음으로 물러서지 말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요,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형제 및 보살님들의 도움을 통하여 유(有)와 무(無)가 둘이 아니고 한마음 주인공이 나를 일깨워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체험이 올바른 것인지 가르침을 바랍니다. 여기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제가 면허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속세의 질서도 지키지 못하면서 또 유의 형상을 통해서 스님의 도움과 여러 보살님, 법형제 형님한테도 도움을 청했습니다. 잘못이 있음을 통해서도 제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어떠한 가르침이 있었길래 저를 통하여서 배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그 잘못의 크기는 큽니다. 그러나 잊지 않고 나를 일깨워주는 그 가르침은 오직 한마음 주인공만이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깊은, 아직 겨냥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저는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스님: 그것이 옳게 나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묘법이라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서 주인공에 맡겨놓으면 통신이 돼가지고 다 응신(應身)으로서 화해서 나투어줍니다. 도움이 될만한 사람한테 그 부탁을 하게 되면 응신으로 화해서 그냥 그 자체가 바로 나툼이 돼버리죠. 그래서 몸이 아프면 약사가 돼서 나투어주고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 법신(法身)으로 나투어줍니다. 그러니깐 물질세계와 정신세계가 양면이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빨리 해결이 나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어떠한 거든지 다 그렇게 해나가십시오. 정신세계를 무시해도 안 되고 물질세계를 무시해도 안 됩니다.

▲질문자5: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며 옛날에는 만주지방을 다스리던 용맹스럽고 슬기로운 민족이었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사람이 살아나가기에 적합한 기후와 자연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배달민족은 어떻게 해야 통일된 민족으로 세계 속에 발전된 국가가 될 수 있겠는지요.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허허허. 정신세계의 모든 마음들이 서로서로 전달이 되고 통신이 되는 걸 안다면, 둘이 아닌 도리로서 작업을 할 수 있다면, 배달민족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체 배달민족이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서 그렇게, 정신세계와 물질세계가 동일하게 같이 공용하고 살아나가는 공생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바로 우리는 무(無)의 세계, 유(有)의 세계를 겸해서 중용을 할 수 있으니 평화롭게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질문자5: 저희 중생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에 대해서 궁금하게 느껴져 여쭙고자 합니다. 육신이라는 집이 있고 그 집의 주인인 마음이 있고 한데 마음 외에, 또 영혼이 있고 혼백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영(靈)과 혼(魂)과 백(魄)의 뜻이 다르다고들 일반적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그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질문이 혼돈이 됐지만 잘 정리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영(靈)이라는 거하고 혼백(魂魄)이라는 거하고 둘이 아닙니다. 혼백이라는 건 옛날 분들이 혼백이라고 했고, 지금 시대 사람들은 영혼(靈魂)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혼백이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이름이고. 그러니까 둘로 보지 마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영혼 자체가 바로 육신과 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이라 하면 바로 육신과 영혼이 있는 데다가 그 불씨 에너지 원소 자체는 바로… 즉 말하자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줍니다. 영혼이라는 그 자체가 마음 속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신이라고도 하고, 악신이라고도 하고 선신이라고도 하죠. 마음을 잘 쓰면 바로 선신이요, 마음을 악하게 쓰면 악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도 바로 악신으로서 자기가 삶을 악하게 살면 그 영혼도 아주 악의적인 영혼이 되구요, 선의적으로 지혜롭게 해나가고 대치를 해나가고 마음을 넓게 잘 쓴 사람들의 마음은 악신이 아니라 선신으로서 분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음 한 군데서, 그 마음 한 군데다 하는 건 바로 한 군데서 영혼이 악신이 나오고 선신이 나옵니다. 영혼 자체가 자기 근본이 아닙니다. 영혼은 악신이 될 수도 있고 선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그냥 이름일 뿐입니다, 영혼이라는 이름. 마음을 잘 쓰는 데서 나오는 선신이 영혼이요, 또 악신이 영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그 자체는 바로 자기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혼백이라는 게.

그래서 옛날에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돌아가시면 재를 곱게 쳐서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 발자국이 난다거나, 인도환생을 하면 발자국이 난다거나 독사가 됐으면 독사 시늉이 나온다든가 했습니다. 그러고 아주 악행을 한 혼백이라면, 즉 말하자면 머리를 풀어서 산발을 한 그런 모양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양을 보더라도 그렇지만, 우리가 공부라고 할 건 없지만 인생으로서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를 같이 항상 공부하다 보니까 영혼이라는 것이 우리의 불씨가 아니고, 마음을 내주는 반면에 마음 속에서 나와서 행동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비중이라고 할까요? 거기서 나오는 거를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업식' 이러죠. 사람이 죽어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지만 영혼의 업식만, 자기의 불씨는 항상 밝아서 여여한데 그 업식 영혼이 그냥 이러고저러고 해가지고는 열기설기 얽혀서 업식이 돼 가지고 현실에 나온다는 말입니다.

▲질문자5: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지수화풍으로 흩어지고 마음은 신으로 연결된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스님: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악신도 되고 선신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깐 악신으로서 너무 했다면 진짜 악신의 활동을 할 거고, 선신으로 행했다면 선신의 활동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악신이고 선신이고 몽땅, 악신이 나오면 악신인 대로 놓고 선신이 나오면 그대로 감사하게 놓으라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악신으로서 악행을 하게끔 마음 속에서 나오거든요. 그게 업식이 몸 속에 들어있으니까 악의 행이 나올 때는 '이것도 재료지.' 하고 놓고, 또 잘되는 일이 생기면 감사하게 맡겨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마음먹는 대로, 지금 현실에 마음을 먹었으면 죽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건지고자 해서 백종(百種)이 있고, 칠석(七夕)을 해놨죠. 그런데 이런 게 있죠. 사람이 죽으면 악행을 했든지 선행을 했든지 간에 모든 문초를 그냥 해결해버리고 불씨를, 여러분이 땅을 갈고 돌을 주워내 버리고 골라



그림 · 최주현

놓는다면 스님들은 씨를 거기다가 심어주는 겁니다. 백종이 그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상님들의 천혼문을 써서 올리는 건 정성껏 밭을 갈고 자갈들을 집어내 버리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그 밭에다가 불씨를 심어주는 겁니다, 싹이 나게. 그러면 그때는 인도환생을 해서 새 싹이 나죠. 새 싹이 나는 것이 인도환생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인도환생하는 것도 자손들이 얼마나 정성껏 잘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잣집으로 태어나느냐 가난한 집으로 태어나느냐는 겁니다. 깡통의 차원이라면 깡통끼리 태어나고 선신이라면 선신끼리 태어나니까요.

그러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갈 때는 배우고 지혜롭게 능가할 수 있고 업을 면제할 수도 있고, 생각을 지극하게 해서 자기 무명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죽으면 더하고 덜함도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의복을 다시 갈아입고 나오는 때라 교차로 거든요. 교차로에서는 어떻게 자기가 더 배우고 나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하고 덜함이 없죠. 모습이 없으니까 부딪침이 없고 부딪침이 없으니까 상대가 없고 상대가 없으니까 배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꼭 살아서관이 이 도리를 배워야 된다는 얘깁니다.

▲질문자6: '세존유산법찰' 에 대하여 여쭙겠습니다. 한때 부처님이 사부대중을 거느리시고 먼 산을 지나가시다가 한 자리에 앉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가 좋은 명당이니 이곳에 큰 법찰을 하나 지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하시니 제석천왕이 앞에 나타나서 풀 한 포기를 땅에 꽂고는 "법찰이 다 지어졌습니다."하니 부처님이 빙그레 웃으셨다고 합니다.

웃으신 뜻이 무엇인지 또 제석천왕은 무슨 뜻으로 땅에 풀 한 포기를 꽂았는지 가르침 주시길 바랍니다. 그 제석천왕의 법거량이 벽지불의 경지인지 어떤 경지인지, 또 저희들이 공부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부처님이 여기다 절을 짓겠다 한 것도 그 자리에서 한 것이고, 범천왕이 풀 한 포기 꽂은 것도 그 자리요, 사찰을 지은 것도 그 자리요, 웃은 것도 그 자리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벌써 꽃 한 송이, 나무 풀 한 포기 딱 꽂을 때는, 제석천왕이라는 것은, 비유를 하겠는데 선생님 몸 안에 선생님이 많이 들어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이 제석천왕이 아닙니까? 혼자 사찰을 짓는 게 아니죠? 사과 하나를 먹어도 혼자 먹지 않죠? 여러 생명이 먹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석천왕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체제불의 마음, 일체 중생의 마음이 한데 합쳐진 거를 제석천왕이라고 합니다. 천왕(天王)이거든요. 모두가 하나로 돌아가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풀 한 포기 딱 꽂았느니라 하는 건 생각을 딱 거기다가 집중했다 이거죠.

마음은 체가 없어 근본에 맡겨놓으면 통신이 되고 응신으로 화해서 나퉈

한마음으로 집중을 한 거죠. 한마음으로 집중을 하니까 사찰이 그대로 지어졌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깐 빙긋이 웃었다, 웃은 것이 바로 그놈이요, 그놈이 한 거니까 그냥 웃는 게 대답이죠, 뭐. 그러니까 혼자 웃은 게 아니죠, 또 그것도.

여러분! 말이 났으니 말이지 지금 끄떡끄떡하는 것도 혼자 끄떡거리십니까? 혼자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혼자 먹는 것도 없고, 혼자 입는 것도 없고, 혼자 사는 것도 없고, 혼자 일하는 것도 없고, 혼자 사랑하는 것도 없고 전부 헤아릴 수 없는 자기가 그냥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자기가 그렇게 나투기 때문에 아버지로도 나투고, 남편으로도 나투고, 형으로도 나투고, 아들로도 나투고, 사위로도 나투고 이렇게 다양하게 나투면서 한 몸을 가지고 여러 모습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 얼굴을 한 몸에다가 수많이 해놨죠. 천차만별의 일을 다 손으로 하죠, 손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거 할 때 내 손이 했다고 할 수 없으리만큼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지금 있는 나도 얼마나 많습니까? 미생물에서부터 수억 겁을 내려오면서 인간으로 화(化)했다는 걸 증명하려면 네 속을 들여다봐라 이겁니다. 증명서가 바로 여러분 몸 안에 있으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그 도리를 넓히면서 알고 해야 어디 가든지 서슴없이 팍 짜개서 맛을 보고 먹고, '아! 참 맛 좋고 시원하다.' 이렇게 먹을 수 있고, 그렇게 먹고도 그 씨는 되 남아서 이듬해 또 먹어요. 그러니 아주 영원토록 먹는 거죠. 그래서 이 도리가 광대하고 묘하고 영원 한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쓰지 못하고 정신세계의 마음을 못 배우면, 영혼이 죽어서 말입니다. 죽어서 자기가 몸이 있는 줄 알아요. 옷을 벗었어도 벗은 줄 모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물에 가면 물에 빠져서 죽을까 봐 못 가고, 불에 가면 불에 타 죽을까 봐 못 가고, 귀신이 많고 짐승들이 많은 데는 잡혀 먹힐까 봐 못 가고 넘어서질 못해서,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도리를 알고 보면 언덕 넘어설 것도 없고 언덕 넘어올 것도 없단 얘기죠. 그 도리를 알면 산 부처죠, 산 법신이구요.

▲질문자6: 저는 몸이 아플 때 우선 약을 생각하고 병원을 찾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아픔도 주인공에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맡기기 전에 약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인공에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스님: 그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웃음이 나는 얘기가 있습니다. 상원사에 있을 때에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냥 사람이 하루 몇 백 명이 달려들었습니다. 산으로 개미들이 행렬하듯이 그냥 쭈욱 올라왔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나는 토굴 안에서 얼굴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말만하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약을 먹어라, 먹지 마라 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두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무슨 맡긴다 안 맡긴다도 없을 거란 말입니다. 진정으로 믿는다면, 즉 자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 몸을 제가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하누?' 하고 그럴 테죠. 그러면 그대로 모두 작용을 해서 자기가 형성시킨 기계니까 자기가 너무나 잘 알겠죠. 허허! 그 작업장 기계를 만들어놓기도 하지만 그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그 인부들이 더 잘 알겠죠. 그러니까 작업을 해서 빨리 고쳐 내놓지마는, 악을 먹는다 뭘 한다 하면 통신이 되지를 않는 거죠. 통신이 되지를 않으니까 캄캄하고, 그러니까 그냥 병원에도 가야하고 남을 믿고 가야죠, 뭐. 그런 두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죠. 만약에 이 도리를 진짜 알고 진짜 믿는다면 병원에 가는 것도 약을 먹는 것도 밥을 먹는 것과 똑같이 행한다는 겁니다. 벌써 내가 먹고 싶지 않은 거는 먹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이만하면 이거는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모두가 받아들이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사량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생각이 나게끔 돼옵니다. 이 공부를 한 사람에 한해서만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진실해서 약을 먹어도 밥과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만이 그냥 모두가 그렇다는 겁니다. 약을 먹어도 먹는 사이 없이 먹고, 이 소립니다. 일을 해도 하는 사이 없이 일을 하고, 소를 한 마리 잡아먹어도 소 한 마리 잡아먹은 사이가 없이 잡아먹고, 이럴 줄 알아야 소 무명을 거둘 줄 알고 소를 환토를 시켜서 인간으로 화(化)하게 만들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약 먹는 것도 약만 찾는다고, 그러니까 물질로다가 치우쳐 올라가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형성시킨 거는 안에서 형성시켰고 지금 작용을 하고 나가는 건 안에서 작용을 하고 나가는데, 나를 움죽거리게 하는데 한쪽만 굳어져도 육신이 쓰러지고 송장이 되는데 딴 데로 자꾸 마음을 둬보세요, 어떤가?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해놓고 약을 먹고 이래도 못 믿으니까 통신이 되질 않는 때가 많은데, 약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약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약이 영양소가 되게 먹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아, 밥도 약이 아닙니까? 밥은 왜 약이라고 안 먹습니까? 밥은 항상 먹는 거니까 그냥 그저 밥이려니 하고 먹으면서 약이란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것 또한 중요한 약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먹어야 사니까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물도 약이요, 먹고 마시는 모든 양식이 바로 약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약이 아니고 어떤 것만 약입니까? 내가 먹고 싶어서 먹고, 몸에 좋아서 먹는다면 바로 그것도 약 아닌 약이죠. 그게 얼마나 마음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건데요. 마음으로 '아이구, 내가 약을 먹으면 안 낫겠지, 약을 먹으면 뭐 더하겠지, 무슨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되지.' 이러면서 그냥 논란이 벌어지고… 이건 약을 먹으나 안 먹으나 뗄래야 뗄 수 없는 주인공 자기 뿌리예요. 그러고 잘되든지 못되든지, 안 된다 된다를 떠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뿌리라는 겁니다. 자기 영원한 뿌리, 불씨 말입니다. '나는 주인공을 찾아도 안 되더라.' 이런 사람은 벌써 그 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형성된 자체가 바로, 소가 있으니까 달구지가 있듯이 말입니다. 소가 없으면 달구지도 만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소가 있기 때문에 달구지를 만든 것이고 달구지를 만들었으니까 마부가 소를 끌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질문자6: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가르침 잘 받았습니다.

▲질문자7: 일찍이 한암선사께서는 "탐진치 삼독만 멀리하면 성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앉은자리에서 바로 부처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달마조사께서도 "진성(眞性)은 조금도 어두운 바 없이 항상 밝고 자재하건만 중생이 스스로 생사고(生死苦)를 짓고 자기가 받는다. 마음 가운데 망념만 여의면 본래가 부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암스님이나 달마조사와 같이 될 수가 있는지 가르침을 바라겠습니다.

▲스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세(三世) · 삼심(三心) 이 지금 과거 · 미래로 인해서 현재!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도 죽는 순간, 나올 수 있는 교차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 미래가 오늘이죠. 그러니까 과거 · 현재 · 미래, 아니 과거 · 미래 · 현재 이렇게 되면 바로 삼세가 되고 삼심이 되니까 그 삼심이, 삼독으로써 무명을 벗지 못하고 인과를 벗지 못하면 바

☞ 18면으로 계속

모든 것 관하여 그대로 놓으면 삼독 무너지고 그대로 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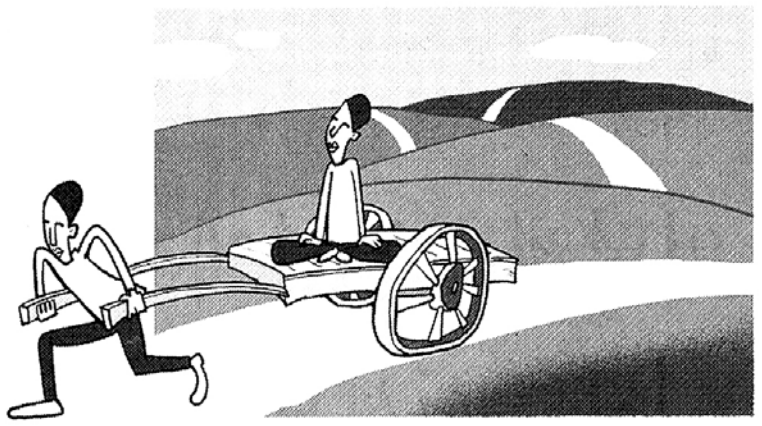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17면에서 계속

로 삼독이 되는 거죠.

삼독이 일심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독을 어디서 빼내느냐? 그 모두 지금 내가 작업하라는 대로 그렇게 관(觀)하시고 모든 걸 용광로에 넣듯이 놓으시면 삼독이 무너지는 겁니다. 삼독이 무너지면 그대로 부처요, 그대로 법신이요, 그대로 화신이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소의 무명을 벗겨준다 하더라도 소 마음이 나와 둘이 아니게 딱 한데 합치면 두드러지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형체가 없는 거니까 두드러지지 않고 그냥 나로 돼버리는 거죠. 나의 속을 거쳐서 바로 탄생이 된다 하면 꺼내도 줄지도 않고 넣어도 두드러지지도 않는 격이죠, 체가 없는 거니까요.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드려서 될까 모르겠네요. 허허허. 그래서 그걸 마쳐야죠. 그렇게 한다면 나고 드는 것이 없죠. 나고 드는 게 없이 내 마음이 항상 물질세계와 정신세계가 합류화돼가지고 돌아가는 게 사무사유(四無四有)를 한데 합쳐서 중용을 하는 격이 되죠.

그러니까 그대로 앉아서 소의 무명을 벗겨줘도 아프지도 않고 그냥 죽어요. 그러고 죽으면 껍데기가 없어지는 거죠. 무명이 벗겨지고 영혼이 내가 돼가지고 바로 환생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깐 그대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즉시에 무명이 벗겨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도살장에 가는 소들을 볼 때 불쌍하면 그냥 그렇게 해줘요. 그러면 가서 소를 방망이로 머리를 쳐도 아픈 걸 느끼지 않게 되죠. 그러고 무명을 벗어요. 돼지든지 닭이든지 모두가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인연들을 맺으세요. 악한 인연을 맺지 말고 좋은 인연으로 선의 씨로서 이 세상을 두루 한다면 내가 고달플 때 모두 같이 해주고 모두 같이 들어줄 수 있습니다.

▲질문자7: 감사합니다, 스님. 『한마음요전』에 보면 삼합이 나옵니다. '영원한 생명의 불씨와 육신과 마음, 그리고 내가 들어가고 나온 자리를 모르고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는 소와 마부와 달구지 비유와 흡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소와 달구지와 마부 삼합을 비유를 하셨습니다. 소와 달구지, 달구지와 달구지를 탄 사람, 달구지를 탄 사람과 소, 이 모두를 한 생명으로 묶어보아야 옳은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가르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님: 불씨는 우리 원소의 에너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불씨로 하여금 마음을 내게 할 수 있는 활동력이 있죠. 전자와 전자가 한데 합치면 불이 들어오듯이, 그렇게 불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마련한 그 자체가 바로 원소 자체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에너지 불씨라고 합시다. 불씨가 없으면 마음을 낼 수 없고 마음을 낼 수 없다면 육체가 움죽거리지 않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삼합이 동일하게 하나가 돼서 지금 움죽거리고 말을 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로 소를 타고 피리를 분다 이 소리나 똑같습니다. 지금 소를 타고 달구지를 끌고 다닙니다. 예를 들어서 마부는 마음이요, 육신은 달구지요, 소는 주인공, 바로 과거에 살던 자기입니다. 현실에 사는 자기는 달구지요 과거에 살던 자기는 소입니다. 그래서 소를 쳐야지, 마부는 소를 쳐야지 달구지를 잘 끌고 가지 않느냐, 달구지에다가 매사 걸 다 실었는데 어떻게 달구지를 치느냐? 지금 가르치는 데도 기복으로 나가는 게 달구지를 치는 법이요, 마음 법을 가르치는 게 소를 치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삼합이 동일하게 지금 움죽거리고 가는 것이 바로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이면서도 내가 공(空)해서 쉴 사이 없이 돌아가면서 화(化)해서 돌아간다, 이런 뜻으로써 주인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는 과거 자기, 달구지는 현실 자기, 마부는 마음으로써 그냥 무조건 달구지가 깨지든지 말든지 그냥 치는 마음이냐, 잘 다스려서 잘 이끌어 가는 지혜로운 다스림이냐는 거죠. 마부는 마음으로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달구지를 치느냐 소를 치느냐 하는 겁니다. 마음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깥으로 빌어야겠습니까? 안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으로 찾는 건 제 뿌리를 제가 찾는 것이요, 바깥으로 찾는 거는 남의 뿌리와 이름을 부르는 거나 똑같죠. 대답을 엉뚱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말입니다.

▲질문자7: 아닙니다. 참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이 흔히 자주 쓰는 참 귀중한 부처님의 가르침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좀 가르침을 주시길 바랍니다. 비유하자면 내 육신과 내 몸 속의 수많은 중생들이 공생 · 공용 · 공체하고 있으므로 내 마음을 제도해야 내 몸 속의 중생들도 제도할 수 있다고 하는 가르침의 정수를 알고 싶습니다. 한 번 더 가르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님: 지금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안을 치느냐, 바깥을 치느냐 따라서 달구지가 안 가죠. 달구지를 바깥으로 치면 달구지는 절대로 안 갑니다. 소가 가질 않죠. 소를 쳐야 달구지를 끌고 가죠. 그와 같이 우리가 지금 안의 소를 쳐야 소가 작용을 하죠. 작용을 하니까 제도가 되죠. 작용을 하니까 일체가 다 제도가 된다는 건 뭐냐 하면, 그것이 그대로 통신이 되면 어느 한 부분에 통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누진(耨盡)으로 통신이 돼가지고 사대로 통신이 됩니다. 안을 치면 그게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안을 치면 바로 사대, 국가나 세계로 친다면 세계가 다 통신이 되는 거나 똑같죠. 세계가 다 통신이 되는, 이 몸 세포 하나 하나에까지도 통신이 되니까요.

악한 인연 맺지 말고
좋은 인연과 선의 씨로서
이 세상을 두루 한다면
모두 같이 둘 아니게 도와줘

그렇게 통신이 되면, 모두 알고 있어요. 어떤 건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통신을 안 하면 모르거든요. 제도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통신이 돼서 다 알고 자꾸자꾸 내 마음이 둘이 아니게 돌아가다 보면 둘이 아니게 부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가 돼서 위로는 일체가 둘이 아닌 줄 알고, 아래로는 둘이 아닌 도리로 제도해서 자비스러운, 둘 아닌 도리로 제도해서 자꾸 안을 치면 달구지를 끌고 소가 작용을 한다, 그래서 제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위로는 부처를 모시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는 겁니다.

▲질문자8: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선원에 와서 설법을 듣고 가면 기쁘고 많은 것을 배워 가지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생활을 하면 한동안은 공부가 잘되다가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잘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보려고 스님도 생각을 해보고 선원 분위기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선원이나 내가 생활하는 장소나 다 같다고 생각도 해보지만 그게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스님: 이거 보세요. 저런 녹음기도 우리가 건전지를 갈아 끼워서 쓰기도 하고 또 전력을 빼서 쓰기도 합니다. 그와 같이 마음 도리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녹음기에 건전지를 끼워서 사용하다가 그 약이 다 떨어지면 소리가 안 나오듯이 공부하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좀 아는 것 같아도 생활에 끄달려서 헤매고 살다보면 뭐가 뭔지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허허허. 그런 경우와 같아요. 그러니까 다 알아져서 자동적으로 그냥 전력이 들어가게끔 될 때는, 그때는 안 와도 온 것이고 와도 안 온 것이고 그러니 두 자리가 아니 되죠. 일체가 전부 내 자리인 것이죠. 일체가 도량이구요. 이렇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이 다 떨어지기 전에 자주 와서 도반들끼리도 서로 공부하는 토론을 하면서 자리가 완전히 잡힐 때까지는 꾸준히 법회에도 참석을 해야 할겁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공부를 다 배울 때까지는 빠지지 않고 학교에 나가야 하고 공부를 다 배우고 나면 졸업을 하는 것 같이 말입니다.

▲질문자9: 마지막으로 인사를 여쭙니다. 〈도(道)〉라는 책을 통해서 스님의 가르침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인연이 박복하여 이제야 스님을 정면으로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불이 들어오게끔 마음의 발전소를 갖고 계시는 스님께서, 저는 한전의 발전소에 근무를 합니다.

물질세계의 발전소를 제가 돌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도 물질세계의 발전소를 돌리면서 스님 마음의 발전소가 더 여러 사람에게 자꾸 지어지도록 더욱 건강하시기를 .

▲스님: 이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는, 보이는 물질의 발전소는 한계가 있지만 마음의 발전소는 한계가 없는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말하듯이 한계가 없는 거는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보이지 않지만 불이 들어와야 전력이 들어온 줄 알고 불이 나가야 전력이 나간 줄 알지, 전력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는 보지 못한다. 그와 같이 인간의 마음으로써 마음을 전달하는 거는 어디든 멀다 하지도 않고 가깝다도 없이 전달이 되는 바로 우리의 각자 발전소입니다.

인제 요다음부터는 질문을 받아야지, 내가 설법을 하는 둥 마는 둥 하게 하고 여러분이 질문하시게 해야겠어요.

※위 법문은 1993년 9월 5일 법형제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삼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 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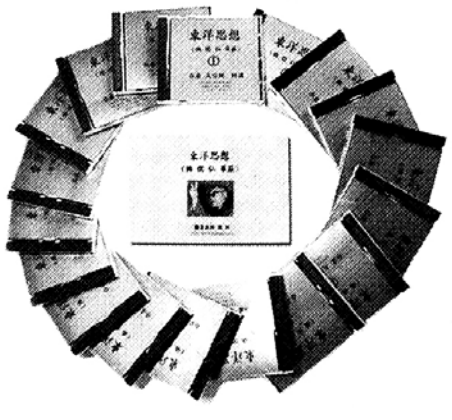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탄허대종사

동양사상특강CD안내

탄허 대종사의 깊고 넓고 높은 강의를 생생한 육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탄허대종사께서 1977년~1982년에 강의하신 내용을 정리해 18장의 CD에 담아 보급 합니다.



◈ 가 격 : 18장 1세트 126,000원(교재 1권 포함)
◈ 제작 · 보급 :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64-4
건대빌딩 본관 202호 교림출판사
◈ Tel 02)733-3334 / H · P 018)733-3334
02)733-3359
http: www.tanheo.com

불교의식(범음 · 범패), 기타
학 인 모 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교 육 과 정
1. 의식과정(속성과정) : 기본과정, 중급과정
2. 작 법(속성과정)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 단 작법과정은 의식과정의 기본과정을 수료내지, 동등 자격자
3. 사물(12개월) : 태평소(호적)

■ 모 집 인 원 : 각 반 20명(선착순)

■ 원 서 접 수 : 수시모집

■ 제 출 서 류
이력서 1통
입학원서 1통
반명함사진 3매 3통

■ 문 의 ☎ 031)562-2751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토록 지도함.
※ 전화, 서신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社團法人 **일승불교대학**

밝은미소 · 건강한 마음 · 보람찬 인생
편안한 노후생활, 자연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 보낼수있는 곳
성라실버타운 (유료양로원)



▶경기도 가평소재

▶ 시설안내 ◀
• 숙 실 수 : 96실(2인 기준) • 동 · 층수 : A동, B동 - 지하 2층, 지상 4층
• 숙실평형 : 9.5평
• 부대시설 : 행사시설, 의료시설, 생활시설, 운동시설, 온천탕(시공중) 등.

[입주비용]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평생입주 및 휴양입주	1실 1인	50,000,000	500,000	
	1실 2인	50,000,000	900,000	1인 25,000,000

	구 분	입주보증금	평생생활유지비	비 고
평생입주	1실 1인	50,000,000	46,000,000	96,000,000
	1실 2인	50,000,000	70,000,000	120,000,000

	구 분	입주헌납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입주금 헌납입주	1실 1인	70,000,000	없음	
	1실 2인	100,000,000	없음	

[입주상담 및 문의] 강선구 총무이사 011-9971-3743

"노후생활을 보람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이사장 석 정 화

※ 공양주, 행자스님 모십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 성라실버타운
본부사무소 : 서울시 성북구 성북 2동 285번지
☎02)743-0294 / 743-4026
가평사무소 :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49-4번지
☎031)585-3323~5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구인 · 구직 규격 50.000원 / 일반업체 규격 7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시 도봉산 도봉사
02)954-1112~4
02)954-7765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충남 서해 바닷가 사찰
041)673-3222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011)315-3041

제의식, 불공 등 임시로
스님 필요한 곳은 연락 바랍니다
055)387-0361
016)428-666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칠곡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
대한불교 조계종 송림사
054)976-8116

산세 수려한 도량에 복 지으실 보살님을 모십니다
011)545-2375

팔공산 신설팔공사에 노인을 모십니다
양노원에 입소할 독거노인을 모십니다
실비는 품위를 위해서 유료
대구시 동구 도학동 767 팔공사
053)982-5038/011)502-9533

심야전기 온돌
▶전기온돌은 우리전통의 온돌방식을 심야전기를 이용하여 현대화한 바닥 난방방식으로 따끈하게 데운 방바닥의 열을 24시간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난방비는 기름값의 30%
●축열식 전기 온수기
●축열식 전기 보일러
●축열식 전기 온풍기
●원적외선 전기 온풍기
●온수식 온돌 판넬
설계시공 A/S 상담
한전승인업체
남강기전 02) 338-0400

자비간병인 교육대학 후원회 모집안내
자비간병인 교육대학은 2002년 8월 5일(2개월 과정)부터 개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하는 불교 포교 활동과 지역사회복지 · 보건을 위한 전문간병인 양성교육기관으로, 본 이념에 뜻을 같이 하고자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제 2기 수강생을 수시 접수 함
후원회 법보시 입금계좌번호
▸대구은행 006-05-003306-1 ▸조흥은행 802-04-483739 (자비간병인 교육대학)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2동 531 ● 전화 : 053-255-7573, 7583
대한불교 조계종 **자비간병인 교육대학장** 합장

동성불교사
개금 · 천불 · 범종 · 동불전문
代表 李相萬 법명:보환
TEL : 031)575-2532
FAX : 031)575-2647
자 택 : 031)563-8733
031)563-8771
H·P : 011)255-3286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충남 서해 바닷가 사찰
041)673-3222

사찰건립에 도움을 주실 분 전화주십시오
● 절지을 땅(안동시 임야) 3000평 있습니다.
● 절건립에 동참하실 스님 또는 보시, 불사, 시주하실 분을 기다립니다.
● 절건립을 도와주실(목수,미장공)기타 처사, 보살(공양주)께서도 전화주십시오
천불사 승려일동 드림
054)856-4804

천도의식 · 불공 안택 등
임시로 **스님이 필요한 곳은 연락바랍니다**
055)336-5691

비구니 스님이 될 사람을 모집합니다
행자교육 3년이 지나야 스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격 : 중학교 졸업자 이상
▷나 이 : 40대 미만
대한불교조계종 충남 청양군 문박산 봉정사
041)942-1525
011)9820-5666

◇ 구운 마늘환 ◇
- 100% 토종 육쪽 마늘 -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효능
심한피로 / 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혈당치를 낮추고 장 변비 개선
손발냉증, 피부 고와짐
감기에 강한 체질로
동양물산 080-375-7575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양시내
● 대지 : 270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양도 : 8억 (대출가능)
● 뒤는 산세좋으며 앞은 안양중심가를 관망할 수 있음
● 위치 : 서울시내 국립공원 소재 전통사찰
● 부지 : 8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양도가 : 20억
● 천연고찰로 산세 및 계곡이 절경임, 차량진입 가능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61-7791/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 안내
● 위치 : 남원시 소재
● 대지 : 120평(실사용 200평 이상)
● 법당 : 약 30평, 요사채 (스님전용방 3칸, 욕실 1칸, 신도방 3칸) 공양실 1동 (공양주 방 1칸)
아담한 사찰 (비구 비구니스님 적합함)
● 주차장 완비 ● 가액 : 7천5백만원
016)850-8778

포교원 안내
● 인천 부평구청 전철역 5분거리 4층 건물 중 (3층) 34평
● 법당, 주방, 주지실, 화장실 별도
● 삼존불, 지장보살, 신중탱화 영단, 앰프시설 불기 일체
● 전세 2000만원, 월 15만원 시설비 : 1200만원(답사후 절충가능)
032)521-1717

포교당 안내
● 위치 부산시 동래구 온천1동 169-53
● 건물 30평, 단층 기와집, 대지 65평 온천장 동물원 금강공원 금정사 등래 별장 허심청 모두 도보로 3분거리
● 3억에 구입했으나 일본 유학 관계로 2억 5천에 양도 하겠음.
● 개인 주차장 있으며 주위 약 10대 정도 주차 가능함
02)914-3958

사찰(급)안내
● 위치 : 천안 근교
● 부지 : 1200평
● 법당 : 7평 ● 요사 : 23평
● 가액 : 2억
※ 전국 사찰 임지 양도 양수 허실 분 전화상담 환영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역학 수강생 모집
■ 과목 : 사주, 작명, 신수, 궁합, 택일, 육효, 대정작괘법 관상, 풍수지리
■ 기간 : 수시모집
■ 강사 : 30년간 청운역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청운 엄운문선생이 직접 강의합니다.
※ 교재는 이석영선생저서 사주첩경으로 강의합니다.
저 서 명학비해격국용신론을 위시로 30여권을 저술 하였음
한국동 한국일보옆 청운역학원 02)723-7449/011)9638-8229

사찰 안내
● 위치 : 청송
● 대지 : 약 2000평
● 법당 : 20평
● 요사채 : 20평
● 가액 : 2억 2천
※영천에서 45Km 보현산 아래
※계곡과 산세가 기가 막힘
● 위치 : 백암온천(울진)
● 대지 : 약 500평
● 법당 : 30평(한옥)
● 가액 : 1억 5천
※ 백암온천에서 10분거리
※ 목조 황토방으로 아주 잘지음
부산 연남지방 풍수천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 보안유지)
佛國불사 018-563-9575 (홈페이지 www.pungsu-serve.com)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에서 1시간 20분거리 원주 새말 IC에서 10분거리
● 대지 600평, 건평170평, 대웅전 30평 산신각 5평, 요양원, 요사채 150평 큰방 16개
● 면적 약 4000평
● 특징 : 황나무 납골당 100개, 약수터 기도도량, 산세좋고 기도처로 최적 사찰, 요양 시설 완비
● 전세 3억, 오래계실스님을 원합니다
011)9878-6856
033)345-5597

사찰부지 안내
● 위치 : 강원도 태백시 태백산 아래 명당 자리 도로에서 200m안 골
● 부지 : 175평(하천 부지 임야 220평 사용)
● 가액 : 3500만원
● 특징 : 진입로 有, 터정리 완료 시내에서 10분거리 암자나 산당 터 최적지
033)553-6860
011)368-7653

사찰(급)안내
● 위치 : 삼천포 앞바다가 멀리서 훤히 보이고 좌청룡 우백호가 뚜렷하고 약수물이 많이 나오는 청정도량임
● 부지 : 약 3000평(준농림지) 중
● 법당 : 27평, 요사채 : 약 50평(스라브)
● 주지실 : 12평, 삼성각 : 16평(목조)
● 가액 : 3억 7천만원
※ 복지시설도 하기 좋은 산세좋은 도량 임 대형차량 진입 됨(주차장 약 200평)
016)207-5600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관악구 신림동 2호선 전철역 5분거리
● 면적 : 2층 25평
● 특징 : 약사관음지장 삼존동불, 탱화 5축 등 집기 일체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3천 5백만원
011)352-0269

역학풍수지리 강좌
■ 역학 : 사주초급, 중급, 고급반 대운과 용신법
■ 양택 : 풍수인테리어, 음양오행, 길흉화복법
■ 음택 : 패철법, 실전감정법, 명당답사
본협회의 서적과 패철 교보문고, 영풍문고 절찬 판매 중
자격증, 회원증 발부 오전, 오후반 수시 모집 中
각 시 · 도 지부모집 http://www.ps21c.com
사단법인 한국자연지리협회
☎ (02) 929-1188, 922-1553
지하철 1호선 제기역 1번 출구 바로 앞 금성빌딩 2층 203

사찰 안내
- 포교당 -
• 위치 : 부산
• 법 당 : 23평
• 요 사 : 50평
• 부 지 : 166평
• 가 액 : 3억7천
• 위치 : 마산지역
• 법 당 : 25평(포집)
• 지장전 : 10평(포집)
• 요 사 : 80평
• 부 지 : 4,600평
• 가 액 : 8억 5천
• 위치 : 인천지역
• 법 당 및 요사 : 120평
• 임대료 : 6000/150
• 시설비 : 1억 2천 사용 즉시 법회 가능, 시설특급 시설비 절충가능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 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011) 713-5634

사찰 안내
●위치 : 남원시 소재
●대지 : 120평(실사용 200평 이상)
●법당 : 약 30평, 요사채 (스님전용방 3칸, 욕실 1칸, 신도방 3칸) 공양실 1동 (공양주 방 1칸)
아담한 사찰 (비구 비구니스님 적합함)
●주차장 완비 ●가액 : 7천5백만원
016)850-8778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내동 3층 건물 중 3층 '신축' (법당자리)
● 건평 : 60평
● 보증금 : 4000만원 월세 : 40만원
전세가능 가액 : 7000만원
현장 방문 후 가액 조절
017)845-709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김해 최고 요지
● 법당, 삼존불 지장, 산신, 용왕, 지장소불108불, 영가단, 후불옴탱화, 신중탱화, 지장탱화, 산신탱화, 용왕탱화
● 평수 : 3층, 50평 방 3개, 주방, 샤워실, 주차장완비
● 가액 : 전세 3천만원, 월 47만원 (절충가능)
시설비 : 2000만원
017)556-5691

포교당 안내
● 시설 임법당(삼존불) 주방 따로 거실, 다용도실, 다락(총12평)
● 대전역 10분거리로 도로변 포교장소로 최적지
● 가액 : 시설비 350만원 보증금 : 무, 월세 28만원
011)230-5387

탈 종 공 고
○ 승 번 : 051-0357 ○ 법 명 : 慧明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 합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권 대창불교건축 권 대 창 목 재
● 사찰대웅전 건축
● 고건축 시공
● 문화재 복원개보수 업체
● 한옥(전통한식)
● 황토방 시공
● 불사하실 스님 상담환영
공장 054) 781-4989
H P 016)768-4324
011) 246-2210
● 태백산(울진, 봉화)지역의 적송 춘양목
▲ 연목 : 12자 ~ 24자까지 5치 ~ 8치
▲ 원목 : 9자 : 1자 - 2자 2치, 12자 : 1자 - 2치
▲ 기둥 : 18자 : 1자 - 1자 8치
▲ 도리 : 20자 : 1자 - 1자 8치, 24자 : 1자 - 7치
▲ 보감 : 24자, 30자, 36자, 42자 : 1자 ~ 2자까지
(주)대창종합개발 이중봉 합장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도봉구 도봉동 소재 2층 건물 2층
● 평수 : 110평
● 용도 : 불교대학으로 적합 모든 시설, 주차장 완비
● 가액 : 9000만원, 월 180만원 시설비 : 5000만원
02)3494-6441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태백시 태백산 下
● 대지 : 86평 건물 임법당 요사채
● 산신각 약사전 용왕각 지장전 각 별도로 되있음
● 가액 : 9500만원
● 특징 : 도로변 명당터, 건물뒤 동굴이 있어 여름 찬바람 1위
033)553-6870
018)762-0134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남해군
● 평수 : 1800평(일부 종교부지)
● 법당 : 12평(단청필)
● 요사채 : 23평
● 특징 : 앞이 강이고 옆 계곡에 물이 철철 흐름 소나무 숲이 우거짐
● 가액 : 9천 5백만원
051)208-9966/294-0828
011)551-1719

암자를 운영하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 암자 운영 무료
● 나무를 사랑하실 스님
● 추진력 있으신 스님
● 건강하고 의식을 집행하실 줄 아시는 스님
● 농촌을 사랑하는 스님
● 위치 : 경북 의성군
● 창건주 직접
017)813-9126

易 수강생 모집
무료공개강좌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듣기만 해도 암기 됨, 감명비법공개
◆ 주야, 주말반 : 초보에서 전문까지
◆ 특강반 (법당 · 포교원운영 · 스님 · 법사)
◆ 사주로 영가찾는 법 등
◆ 개운법, 영가 · 조상천도 상담환영
☎ 02)2236-2284 (2,6호선 신당역)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안계면 안정1리 528의 1
● 대지 : 140평 ● 건평 : 48평
● 시설 : 삼존불 모셔져 있고, 50명가량 법회가능한 법당, 거실(80명수용) 방, 주방, 욕실시설 완비
● 특징 : 아산들자락 경관수려하며 주차여건도 매우좋음
● 가액 : 2천 2백만원
053)587-1829
016)537-4927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구리시내 버스정류장 위치, 아파트, 주택단지, 주차10대가능
● 평수 : 60평(법당40평 방3개, 부엌 3층이5층)
● 특징 : 특A급(삼존불, 신중칠성, 수미단, 영단, 시주인연 아직 정하지 않았음)
● 가액 : 보증금 5000만원(월세 110만원), 시설비 4000만원
● 곡 하실분은 보증금, 시설비 포함 4000만 준비연락
011)9087-0426

사찰부지 안내
● 서울 관악산 10,000평
● 용도 : 사찰 및 복지시설
● 평당 : 25만원
● 경기도 이천 땅 5천평
● 평당 2만원
011)241-0408

사찰 안내
● 위치 : 노원구 수락산 부근 전철역에서 3분거리
● 부지 : 약 320평
● 평수 : 건물 45평 법당 20평 방 3개 차량 주차 10대
● 가액 : 2억 5천만원
011)9756-4845

토굴 안내
● 위치 : 안동시 시청에서 5분거리
● 평수 : 20평, 방3개, 주방, 거실, 욕실(기와집)
● 특징 : 삼면이 산으로 되어있음 수행처 및 절집 가능
● 주차 : 바로 집앞 120평
● 텃밭 : 150평(일년도지 5만원)
● 가액 : 전세 6백(시설비 약간)
054)855-0109

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괴산
● 평수 : 18평
● 방 2개, 현대식 부엌
● 가액 : 550만원
011)9759-5047

연꽃그림에 부처님 말씀을 담아드립니다.
한지에 수묵담채화(미표구)
크기 : 소 · 중 · 대 · 특대 병풍 부채
각종 보시용 · 선물용 · 봉안식용
전화주문후 계좌송금 확인 즉시 작업착수 등기 송달
● 입금계좌 : 우체국 703496-02-083632
● 견본참조 : www.jeongpung.co.kr
연꽃 053)381-5698
화가 018)588-5698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소재
● 부지 : 600평(종교용지)
● 법당 : 30평(목조, 단청)
● 요사 : 2동 70평
● 종각 : 20평
● 가액 : 2억 5천만원
● 특징 : 도심인근에 위치한 사찰로 노송과 고목이 어우러진 아주 좋은 도량임
● 위치 : 경남 김해시 소재(자유)
● 부지 : 약 150평(대지)
● 법당 : 25평(2층)
● 요사 : 75평
● 가액 : 2억 5천만원
● 특징 : 2개동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한 건물로 건물비만 2억 5천만원 이 소요된 신축 사찰 임
▷ 사찰, 절터, 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좋은 인연 됩시다 - 동진불사
서울 ☎ 02)326-1060
대구 ☎ 053)754-0454
H·P 018)689-0455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소재 영호남 기차역 10분거리 고속 IC 20분거리
● 등기이전 830 실제사용 1300
● 법당, 산신, 요사채 80평
● 가액 : 1억 1천만원 뒷산과 대로변에 강이흐르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장기도 도량으로 불사중에 있음
011)381-1102

사찰 안내
● 대지 : 192평
● 요사채 : 70평, 법당 : 20평
● 방 6개, 욕실 2개
● 주방 3개, 거실 3개
● 법당 단청했음, 미륵부처님 모셨음, 산세 수려함, 큰스님 병환으로 급매
● 임진강 앞이 보이고 자유로 앞에 있음
● 가액 : 3억 2천, 답사후 결정
031)952-7905

사찰 안내
●위치 : 계룡신도시 아파트 3만세대 밀집지역
●대지 : 150평
●건평 : 99평(법당, 요사, 식당) 3층건물
●특징 : 현재법당 불사 중 심야보일러
●가액 : 3억 1천만원
011)436-7529

토굴(터)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춘양면 백두대간, 산세좋고 전망좋은
● 밭1991평, 터정리 완료 (불사가능)
● 토굴은 블럭으로 조성
● 방 1, 부엌 1(재래식)
● 가액 : 5천만원
011)9542-2537

사찰양도안내
● 부지(종교용지) : 2013坪 ● 法堂 : 13평
● 요사채 : 20坪 ● 매가 : 8억 5천만원 ● 위치 : 서해안
● 특징 : 1. 1400년된 전통사찰(사지)
2. 마이여래불(지방문화재로 지정 조성연대 고려말로 추정)
3. 암반약수(수랑풍부) 4. 자동차 진입 가능
5. 천혜의 자연 경관과 우람한 바위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좌청룡 우백호가 뚜렸한 대찰터임
6. 지방 문화재 보전 사업비 지원 사찰임
사찰정보센터 : 금강기획 02)736-3578~9 011)789-2255

남 활법사 · 지부장모집 여
교육기간
● 정규반 - 16주(1주 : 3시간)총 48시간 ● 속성반 - 4박 5일(1일 8시간) 총40시간
교육후 필기와 실기시험을 통과하여 협회의 자격증을 부여합니다 숙식제공(단 1명이라도 교육함)
교육내용
1. 활법기초이론(해부학, 생리학) 2. 활법교정술(경추, 흉추, 요추) 3. 스포츠 마사지교육 4. 기공술 6. 운동회복법(저항운동법) 9. 내장부활운동법 10. 발관리교육
※ 한번회원이 되면 평생회원이 되며 3개월에 한번씩 세미나를 개최하며 자격취득자는 중국산마(추나)자격 및 심구서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레쉬연수 기회부여.
※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서 수송해드립니다.
세계건강활법협회 본부연수원 054)855-6461 02)2212-8815 011)522-1122
http://www.hwalbup.or.kr E-mail wooh57kr@yahoo.co.kr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합천 삼가
● 법당 : 25평, 요사 : 30평, 20평
● 특징 : 용왕당 자연수
● 대지 : 250평
● 가액 : 답사 후 절충
016)421-9154

토굴 터구함
● 위치 : 경북 영주 건
● 규모 : 1000평 내외
● 고지대 환영
019)327-9899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인근
● 부지 : 2000평
● 대지 : 420평
● 법당 : 가건물 20평
● 요사 : 45평
● 가액 : 2억 5천만원
● 전세 : 5000만원
016)868-5517

사찰 안내
● 위치: 마산시 내서읍
● 법당, 요사채 2동
● 가액은 답사 후 결정
011)9534-2555

포교당 안내
● 위치 : 광안지하철역 1번출구 3층건물 중 3층
● 건평 : 65평
● 보증금 : 3000만원 (월세 70만원)
시설비 : 4,000만원(조절가능)
011)677-8742

사찰 안내
수백년 묵은 느티나무가 옆에있고 앞에는 큰 냇물이 사철 흐르는 유원지
●대지 : 200평 ●전 : 700평
●방 2개, 창고 1개
●가액 : 7200만원
054)262-6673



9월 축제현장

이천도자기축제 … 29일까지

도자기 빚으며 추억 만드세요

국내 최대의 도자기 축제인 '제16회 이천도자기축제'가 29일까지 이천 설봉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참가자들이 직접 도자기를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도예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천 도예촌은 현재 사음동을 중심으로 300여개의 도예업체와 40여개의 가마가 밀집돼 있다. 조선말 관요의 폐쇄로 맥이 끊겼다가 1950년대 한국조형연구소의 성북동 가마와 한국미술품연구소의 대방동 가마가 문을 열며 도자기 고장으로 뿌리를 내렸다. 올해도 한 · 중 · 일 도예가 워크숍이 열리며 화기전, 도예가 작품전, 미대생 작품전 등이 준비된다. 여행객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행사는 내가 만드는 도자기 코너. 올해는 도예 코너도 5단계로 나뉘어있다. 부모와 함께 아이들이 석고틀에 손과 발바닥을 찍는 코너, 초벌식기류에 문양을 넣거나 그림을 그리는 코너, 백자에 저화도 안료를 이용한 페인팅 코너, 물레성형체험 장면을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뒤 도자에 입히는 '추억은 방울방울코너', 흙으로 그릇을 만들거나 물레를 돌려보는 코너 등에 참가할 수 있다. 물레를 직접 돌려보는 물레 경연대회는 고등부, 일반부 등으로 나뉘어 열릴 예정이다.

부모 · 아이가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코너
목아박물관 · 쌀밥 등 볼거리 · 먹거리 '풍성'

명문 도예가나 도자기 박물관을 둘러보며 작품을 구경하는 것도 빼 수 없는 볼거리다. 분청으로 유명한 이은구씨의 청파요, 청자투각으로 이름을 얻은 김세용씨의 세창요, 백자에 힘을 쏟아온 임일남씨의 성전요 등 명가의 명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천시도자기축제위원회 (031)535-7976, 이천시청 644-2280~3

◈인근에 가볼만한 사찰: 40분 거리에 있는 여주 신륵사(031-885-2505)와 목아박물관(031-885-9952), 고달사지 터가 있다.

◈별미: 이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은 쌀밥. 행사장 주변에 쌀밥집들이 많은데 이천쌀밥집(031-634-4813)과 대명쌀밥집(031-634-7932)이 유명하다.

◈가는 길: 승용차는 제1 중부 고속도로 곤지암IC에서 이천 방면 3번 국도 이용하여 진입하면 된다. 주말에는 고속도로 정체를 피하여 하남에서 광주로 이어지는 3번 국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레저 담당=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효석문화제 … 15일까지

메밀꽃 필 무렵 하얗게 물드는 산골

효석문화관 곧 개관 … 원두막 · 산책로 마련
월정사 · 오대산 · 식물원 연계관광은 '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붓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소설 '메밀꽃 필 무렵')

'메밀꽃 필 무렵'이 됐다. 여름 열기가 한풀 꺾이고, 소슬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이번주엔 솜털 같은 메밀꽃이 온 산을 하얗게 덮기 시작한다. 강원 평창군 봉평 땅은 메밀꽃의 고장. 이효석의 명작 '메밀꽃 필 무렵'의 무대가 된 봉평에서는 15일까지 '메밀꽃 필 무렵-효석문화제'가 열린다. 올해는 효석문학관도 개관할 예정이고 평창군에서 7만평이나 메밀밭을 조성해 예년보다 볼거리가 많아졌다.

봉평 메밀밭은 소설 '메밀꽃 필 무렵' 속의 무대를 떠올리기에 충분하다.

1930년대 소설 속의 배경처럼 장돌뱅이들이 탁배기를 기울였을 만한 주막은 없지만 아이들과 함께 문학 얘기를 나누기에는 손색이 없다.

메밀꽃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포토존을 따로 만들었으며 연극 · 영화상영, 사진공모전 등이 열릴 예정이다. 또 메밀밭에는 미로 같은 산책로를 만들고 사이사이에 장승을 세웠으며 연못을 조성하는 등 공원으로 꾸몄다.

1.5㎞ 떨어진 이효석 생가까지 최근 포장도로가 났다. 생가에 지금은 홍순상(34)씨 일가가 산다. 홍씨가 운영하는 식당 메밀꽃필무렵(033-335-0594)에선 메밀정식 · 국수 · 묵을 판다. 식당 뒤쪽 언덕은 메밀꽃으로 장관을 이뤄 사진작가들이 즐겨 찾는 곳. 축제행사도 풍성하다. 민속공연, 윷놀이, 자치기, 비석치기, 칠교놀이, 팽이치기 등 옛날 놀이문화를 엿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메밀꽃 필 무렵' 속의 주인공들로 분장한 캐릭터 가장행렬이 이어진다. 도리깨마당, 메밀국수마당, 봉숭아 물들이기 등 체험행사도 눈길을 끄는 이벤트이다. 평창군청 (033)330-2399, 효석문화제위원회 (033)335-2323

◈인근에 가볼만한 사찰 및 관광지: 1시간 거리 내에 월정사와 상원사 등을 끼고 있는 오대산국립공원(033-332-6417), 3만3천평의 부지에 우리 고유의 자생식물을 갖춘 자생식물원(033-332-6417), 예술인마을 무이예술관(033-335-7069) 등이 있어 연계관광을 즐길 수 있다.

◈별미: 효석문화마을에는 메밀전문 음식점들이 많다. 메밀싹나물비빔밥으로 유명해진 미가연(033-335-8805)에서 내는 메밀전병, 메밀싹묵무침이 별미. 봉평막국수(033-335-9622)와 현대막국수(033-335-0314)에서 토속적인 메밀국수를 맛볼 수 있다.

◈숙소: 생가 가는 길 하얀천국(033-336-0605)은 파라솔을 펴 놓은 풍경이 예쁘다. 유명세로 평일에도 사람이 붐비는 허브나라농원(033-335-2902 www.herbnara.com)에서도 숙박을 할 수 가 있다. 봉평면 홈페이지(www.bongpyong.co.kr)에도 숙박시설 안내가 있다.

◈가는 길: 영동고속도로 장평IC에서 봉평 방향 우회전, 6번국도 따라 8㎞. 시외버스 동서울~장평(하루 12회 · 2시간30분 소요), 장평에서 봉평까지는 시내버스 이용. 평창군 문화관광과 (033-330-2399)



新 동의보감 (8)



김승수

한의학 박사 · 송암한의원 원장

허약아와 성장

유전 · 영양 · 운동 · 수면 등 성장에 관련
아이의 성장 잠재력 발휘 부모의 도리

시중에 키 크기 교실이나 키 크는 건강식품이 유행이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가 건강하길 바라고, 기왕이면 크게 자라기를 희망한다. 정말로 쑥쑥 키가 자라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성장에 관련된 요소들을 찾아보면, 유전적인 영향이 있고, 영양상태, 운동, 수면(睡眠), 정서 및 환경요소가 작용한다고 한다. 유전은 이미 부모의 몸을 받아서 태어났으므로 논외로 하고, 실제로 키를 크게 만들 수 있는 요소는 몇 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다. 먼저 영양은 성장에 필요한 충분한 영양 섭취를 전제로 하는데, 밥 안 먹는 아이라면 문제가 된다. 성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이 필수요소이다. 아이답게 뛰어 노는 가운데 뼈와 근육이 단단해지고 성장을 자극하게되는데, 요즘 아이들의 환경은 맘껏 뛰어 노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근래에 별도의 성장체조교실이 등장한 이유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수면이 중요하다. 수면 중에 성장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하는데 한의학적으로는 잠을 통해서 얻는 음(陰)기운을 충실히 하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영양과 운동이 갖는 의미는 낮에 음식과 운동을 통해서 양(陽)기운을 보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두 가지의 건강식품이나 체조만으로 성장이 부진한 여러 요소들을 조절해서 키를 크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순리에 맞게 먹고 운동하고 잠자는 양생(養生)에 힘쓰고, 허약아라면 모자람을 적절히 보충해서 아이의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키 작은 부모의 도리일 것이다.(02)530-8200 www.songamclinic.co.kr

환절기 감기 · 천식 · 비염 등 극성
충분한 휴식 · 알맞은 운동 중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해지는 환절기엔 감기를 비롯, 천식, 알레르기성 질환, 유행성 출혈열 뿐만 아니라 기온이 떨어지면서 노인들은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등 성인병이 악화될 위험이 높다. 가천의대 김동훈 교수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충분한 휴식과 함께 제철 과일과 채소를 자주 먹고 규칙적인 생활 및 알맞은 운동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 스트레스, 과로, 불량한 영양 상태, 흡연, 차갑고 축축한 날씨, 사람이 밀접해 있는 환경은 감기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평소 체력관리를 철저히 해 저항력을 기르고 과로, 과음, 지나친 흡연 등을 피해 저항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최선의 예방책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적절한 치료법은 우선 담요나 양탄자 등에 기생하는 집먼지를 제거하고 찬 공기나 급격한 온도변화, 담배연기, 방향제, 스프레이 등을 피한다.

목초수액시트 가격인하

잠자는 동안 발바닥에 붙어 온몸을 상쾌하게!!

발바닥에 붙여 몸속 노폐물을 빼내는 화재의 상품 목초 수액시트!!!

요도선물 용최적 골드 150매 판매중



◎ 발은 제2의 심장 전신의 급소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44,000원 → 30,000원 / 30매(選別):일반 85,000원 → 60,000원 / 60매
50,000원 → 40,000원 / 30매(골드) 160,000원 / 150매
50,000원 → 45,000원 / 30매(일본산) 99,000원 → 85,000원 / 60매

※ 이런 분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 온몸이 차거나 저리거나 팔 다리가 쑤시는 불편하신 부모님
-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수험생,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직장인
- 산후조리 및 자고나면 손발이 붓는 분
- 수술 및 장기간 약을 복용하는 분
- 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
- 이유 없이 항상 피곤하신 분

자매품 : 일반목초액 500cc 20,000원,식용 목초액 900cc 120,000원
목초비누 3개 30,000원

www.GAJA.TV 송금후 1~3일 택배로 배달

판매원 : 가자라이프 농협 : 063-02-124288
상담(02) 5454-010 국민 : 010-01-0617-701
예금주 : 이수일

退 퇴 魔 마

앗! 아이들이 위험해요

혹시 여러분의 아이들은 이런증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 간질병환자 처럼 발작을 일으킨다.
- 생후 12개월이 지나도 걸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 아이의 눈동자가 가끔 사시가 된다.
- 아이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왔다갔다 흔들린다.
- 다른 아이들에 비하여 말을 배우는 속도가 현저하게 늦는다.
- 가끔가다 경기를 자주 일으킨다.
- 아이의 몸이 시지가 뒤틀린다.
- 아이가 울때 울음소리가 아이 울울소리가 아닌것 같다.
- 아이의 목소리가 가성이 나온다.
- 고개를 앞뒤로 꾸벅이거나 좌우로 흔든다.
- 집중력이 부족하여 한군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 시도 때도 없이 꾸벅꾸벅 졸음이 온다.

이런 증세를 보이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도 병원에서 뚜렷한 병명을 가르쳐 주지 못하고 아이가 지능이 떨어진다 잘 알 수 없으니 큰병원에 가보라 등의 말을 해 주며 약을 지어 줍니다. 그러나 그 약은 대부분 어른이 상용해도 몸에 해로운 신경 안정제 입니다만 아무리 먹어도 상태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날때 완벽한 영체를 형성하여 다른 영들의 침입을 받지 않으나 편하게 살려는 부모와 의사들의 이해타산이 맞아 떨어져 배를 가르고 집게로 아이를 뱃속에서 끄집어 내는 임신중절수술을 하고 때로는 아이가 크게 충격을 받아 영체가 깨어져 나쁜 영들의 침입을 받습니다.
위의 증세를 보이는 아이들은 이미 다른 영에 침입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자라면서 이상성격자가 되거나 신기를 보이면서 하는 일마다 되는 것이 없으며 온갖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아이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요.
중생구제와 포교의 일환으로 도심에 정욱사 포교원을 개원하신 정욱스님이 여러분에 아이들을 마군으로부터 구제해 주실 것입니다.
초월견성하신 정욱스님이 퇴마술로써 불과 30분안에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모든 영가를 물리치고 정상적인 아이가 되는 것을 여러분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신이 들려 정신이상증세나 이상성격이 나타나는 자나 중풍, 암, 전신마비, 신체일부마비, 디스크, 골프병등 각종질병을 가진 분들을 기적의 포기 회생술로써 구제하여 드릴것 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서울 은평구 응암동 117-16
정 욱 사 02)382-2217, 017)217-2219
주지:정욱스님

수맥으로 부터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맥 · 지전류 · 지자기의 유해파로 인해 만성피로, 불면증, 두통, 목 · 어깨결림, 우울증, 악몽, 관절 및 근육통 순환기 장애등이 발생합니다. 수험생이 집중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또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할때 손끝이 저리거나 눈 · 머리가 아프고 얼굴에 열이 나는 것은 전자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에게 유해파를 차단시켜 건강을 회복시켜 드립니다.

특히 세대주의 이름과 번지만 알면 자택 · 사무실 · 조상묘소의 수맥 · 지자기 · 지전류 유뮤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양택과 음택을 원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온천과 지하수도 찾아드립니다.

- 스님들께는 실비로 차폐해 드립니다.
- 유해파 차단은 직접 현장에 가서 해 드리며 휴대용 신개발품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기진단 수맥연구가 이 기 일
☎ 053) 255-7370
011)9596-4848

유체이탈, 쿤달리니 각성을 위한
"무시간" 상태경험

세계 최초 빛과 소리 에너지 전수법 - 듀얼바이놀비트 시스템

메가플러스 기본사양 / 강력한 효과를 위한 옵션





지구에너지 명상 헤드라 유체이탈 꿈탄티니 미간과 백회 차크라계발 에너자이저 기타 학습과 창의력 수련등 21개 프로그램 내장 (기본사양 본체, 녹색광안경, 헤드폰 사용책자등/미국 마이크로캠사)

* 오라진동무선 (미국 오라시스템사/중국(LCM))
* 광안경(빨간색 청색 보라색 순백색 /미국 마이크로캠사)
* 타이베딕 고급 헤드폰 (미국 마이크로캠사)

세계 유일한 듀얼 바이놀비트 시스템

* 메가플러스 명상기는 6개의 삼쇄주파수를 동시에 전달시켜 주는 듀얼바이놀비트 시스템을 도입하여 완벽한 이완과 무시간 상태를 가능케 하는 가장 진보된 빛과 소리 기기입니다
* 듀얼바이놀비트는 6개 삼쇄주파수의 배합과 배치에 따라서 그 에너지 수준이 바뀌며, 빛과 소리 프로그래머의 체험을 말이나 문자가 아닌 에너지체로 전수시키는 방식입니다
* 메가플러스의 빛과 소리 그리고 오라쿠션의 진동을 수동적으로 느끼고 즐기기만 하면 되며, 동시에 사고, 감정, 육체적 반응을 관조할 수 있어 빠른 시간 내에 무시간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기타 15~120분까지 시간조절가능, 5개톤 변형(45개 프로그램 가능), 학습 및 창의력, 피로회복과 재충전, 물면증 용도로도 가능합니다.

※ 전화주시면 자세한 카다로그를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마인드테크 : (02) 888-

불교 이래서 좋다

금나나 2002 미스코리아 진

"여유로움과 편안함 안겨줘"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부모님과 같은 종교를 가지게 된다. 타의적으로 종교를 가지게 되는 셈이다. 나 역시도 부모님이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나의 종교는 불교였다. 모든 일을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20살이 된 지금, 난 부모님이 불교신자라는 이유만이 아니라, 불교 자체에 대한 매력 때문에 더욱 불교에 빠져들게 되었다.

내가 느끼고 있는 불교의 매력은 무엇일까? 아마도 그건 '절'이 주는 푸근함 때문이 아닐까 한다. 나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려 하거나 삶에 지쳐 힘들고 불안할 때면 영주 부석사를 찾는다. 무거운 마음을 가득 안고 들어서는 나를 부석사는 자상한 어머니처럼 끌어안아 줬다. 부석사 무량수전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20여 분 산길을 올라가야 한다. 그 길은 나에게 사색의 시간을 안겨준다. 계단을 하나하나 오르면서 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곰곰이 반추한다. 한 걸음 한 걸음 산길을 올라갈 때마다 무거웠던 마음은 어느새 비워짐이 느껴진다. 올라갈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고 여유로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일상사에서 내가 쓰고 있던 탈들, 모두 벗어던진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불상은 자비로운 어머니의 모습으로 내게 다가온다. 은은히 퍼지는 향냄새와 영롱한 목탁 소리, 무량수전에서 올렸던 108배, 스님께서 들려주시는 법문,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는 소중한 경험으로 자리 잡았다.

속진에 찌든 마음은 어느새 차분해지고 정갈해진다. 부석사에서 걸어 나오는 뿌듯함은 형용할 수 없는 불교의 매력으로 내 마음속에 각인됐다. 가장 가벼운 발걸음으로 내딛던 부석사 앞마당, 잊지 못할 것 같다.

불교는 정신적인 지주이자 나를 재충전시켜주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요새 들어 미스코리아 활동으로 자주 절을 못 찾는 것이 아쉽지만, 이미 내 마음속에는 부처님이 자리 잡고 있어 언제나 든든하다.

담배를 끊읍시다

니코틴

습관성 '주범' … 한꺼번에 60mg 흡수시 사망

니코틴은 무색, 유성 알카로이드 액체로, 천연 담배 잎에만 존재하는 화학물질이다. 니코틴이 사람의 뇌에 도달하면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화학물질의 분비가 왕성해지는데 담배를 피운 사람은 이 때문에 좋은 기분을 느끼게 된다.

담배를 처음 피우거나 너무 많이 필 때 느끼는 구토, 현기증, 두통 등은 이 니코틴으로 인하여 생기는 증상으로 폐로 흡입한 담배연기 속의 니코틴이 뇌에 도달하려면 약 7초 정도 걸린다.

이 물질은 담배를 피우는 과정에서 파괴되지 아니하며 한 모금의 담배연기를 마실 때 0.1~0.2mg(한 개비 당 2mg)의 니코틴이 인체에 흡수된다. 니코틴은 매우 유독하여 일시에 60mg이 혈액에 흡수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죽는다. 그러므로 성인의 치사량은 체중 1kg당 니코틴 1mg이다.

니코틴은 아편과 거의 같은 수준의 습관성 중독을 일으키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마약으로 분류되고 있는 물질이다.

무엇보다도 습관성을 일으켜 담배를 계속 피우게 하는 주범이다.

추석예절배우기 · 만화축제 · 역사탐방

가을맞이 청소년행사 '풍성'

가을을 맞아 불교계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 및 단체들이 다양한 행사를 준비해 놓고 청소년들을 손짓하고 있다. 보름 앞으로 다가온 한가위를 시작으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만화축제, 청소년 욕구에 맞춘 특강, 생태 · 역사 탐방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책을 잠시 내려놓고, 가을산책을 떠나보자.



◇8월 18일 대구 영남불교대학에서 열렸던 '가을맞이 청소년 특강'. '올바른 영어학습법'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강의에 300여명의 청소년들이 몰렸다

⊙한가위 '송편'과 '다식(茶食)만들기' = 문수방과후공부방은 18~19일 양일간 걸쳐 다도체험을 통한 '추석예절 배우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차와 미수가루, 송아 가루로 다식을 만들어보는 체험, 전통차를 음미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이 기대된다 (02)2282-1102. 충남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10일부터 19일까지 인근 5곳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는 '독거 어르신과 함께하는 한가위 송편 빚기' 행사를 갖고, 9월말 경에 충남 서산 호방농가로 '가을수확 농촌봉사활동'을 떠난다 (041)736-9003.

⊙만화축제와 특강= 부산 양정청소년 수련관은 10월 25일부터 3일간 복지관내 강당에서 '제3회 청소년 만화축제'를 연다. 이번 행사는 만화동아리 부스전, 만화 포스터 전시회, 만화영화 상영회, 만화작품, 만화 체험실, 만화작가와의 만남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051)868-0750. 대구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는 학생회 법회 형식이 아닌 청소년의 욕구에 맞춘 '청소년 특강'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특강에는 하나병원 성춘희 간호원장의 '성, 바르게 알아야 한다' 등의 강의가 15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053)474-8228.

⊙생태 · 역사 산책= 관악구립 신림청소년독서실은 10월 말 '생태 · 역사 산책'을 인근 관악산으로 나선다. 산에 얽힌 역사와 문화 등을 경험하는 이번 행사는 탐방 형식으로 산행 형식으로 진행된다 (02)856-1207. 금호청소년독서실도 9월 말 '전통문화학습체험'을 서울 덕수궁, 창경궁에서 갖는다 (02)2299-4214.

청소년 담당=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퀴즈로 불교 배워요"

조계사 청년회, 교리경진대회 … 연화부 우승



◇"그게 뭐더라" 잘 생각해봐. 기억 안 나?" 8월 31일 조계사 청년회가 주최한 '기초교리경진대회'에 참가한 반야부 팀원이 정답을 의논하고 있다.

"여시아문의 '아'는 누굴까요?" "가섭이요?" "라홀라요?"

"네, 정답은 아난존자입니다. 금강부팀과, 문화부팀만 틀렸군요."

8월 31일 조계종 총무원 1층 불교회관. 60여명의 청년 불자들이 퀴즈삼매에 빠져있다. 허를 찌르는 질문들. 한 문제 한 문제가 진행될수록 참가자들의 탄성이 커져만 간다.

올해 들어 10년째 조계사청년회(회장 정우식)가 주최한 '기초교리경진대회'는 8월 21일 40명이 참가한 예심에서 치열한 경쟁을 걸쳐 9팀 총 18명이 최종 본선에 올라왔다.

'공부하는 청년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열린 이번 대회는 참가자뿐만 아니라 동참한 회원들까지도 '깨비깨비'란 즉석 퀴즈가 열려, 회원 간 친목도모의 장이 마련되기도 했다.

총 단답식 20문제가 출제된 본선에서 백호정(29) · 최희정 씨(25)가 한 조를 이룬 연화부팀이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연화부팀의 백호정 씨는 "불교입문서와 입문서를 네번씩이나 읽어 많은 공부가 됐었다"며 "자연스럽게 회원 간의 경쟁심도 생기고, 단결심도 커져 좋았다"고 우승소감을 밝혔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조계사청년회 박선호 연수원장은 "어렵고 딱딱하게 느끼기 쉬운 불교교리를 재미있게 공부하는 회원들이 늘어났다"며 "이번 교리경진대회를 계기로 회원 모두가 신행활동에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청소년 단신

청교련, '자원봉사 한마당'

15일 탑골공원 · 종묘서

외국인 가족과 청소년이 봉사활동으로 우리문화재의 소중함을 느낀다. 15일 오전10부터 서울 탑골공원 및 종묘에서 '외국인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문화 보존하기' 자원봉사 활동이 열린다. 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가 '2002 청소년 자원봉사 한마당' 3차 기획사업으로 전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문화재 및 공공시설 청소를 비롯해 △안내판, 표지판 바로세우기 △잡초 뽑기 등의 활동이 펼쳐진다. (02)735-8165

네티즌 불교동아리 순례

원효동문회

배움 마당, 문화유적답사 활발

원효동문회의 가장 큰 자랑은, 20대초반에서 4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20살 이상의 나이차이에도 불구하고 회원들간의 정이 돈독하다는 것.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원효동문파워 코너에는 매일 회원 상호간의 안부를 묻는 글에서부터 청년회 활동 당시의 잊을수 없는 추억이야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회원들의 애경사를 알리는 집안대소사 코너에서도 결혼, 생일 등을 알리는 글을 통해 서로 격려해주고 축하하며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있다. 올 봄에는 회원들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체육대회를 개최, 친목을 과시했다.



◇'원효동문회' 초기화면.

1978년 부산 동구 초량동에 위치한 금수사에서 창립한 원효불교청년회, 청년불자들의 금강신심으로 한때 300여명이 넘는 회원들이 매주 정기법회를 보며 불심을 키워왔으나 98년 회원감소와 여러 요인으로 청년회가 없어져 회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2001년 1월 청년회를 사랑하는 일부 회원들을 중심으로 인터넷 포탈 다음에 원효동문회(http://cafe.daum.net/wydong 대표시숍 이종무)를 개설, 디지털 불사를 완료했다. 지금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회원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해 회원만도 100여명이 넘는 사이버 신행단체로 탈바꿈해 주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원효동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 뭇지않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배움의 마당/정보공유 코너에는 회원들이 스스로 수행에 도움이 될만한 글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고 문화유적답사 코너에는 김규칠 회원이 한국의 명찰과 관련한 동영상을 게재해 불교문화의 이해를 높이고 있다. 김두식 기자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8월의 태풍으로 아픔이
우리들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고있습니다.
굳거니 희망과 용기를 갖고
일어서십시요.
내일은 행복한 시간들이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절은 가을을 향하고...
당신을 기다리는
인연의 사람과 현대에서...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 위 치 안 내 ◁
1호선 부천역 하차 북부역 광장 우측 서울 방향 첫번째 골목으로 50m정도 직진 희원오피스텔 202호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방문전 전화 약속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연 대 결 혼 연 구 원

원 장 이영숙 (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32)654-5411
휴대폰 : 011) 288-2944

실기훈련 위주의
說法방법연수

단시일내에 대법사가 될 수 있는 길

부처님의 오종설법, 개차법, 대기설법 비유법등을 원론적 기준으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법회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의 재구성능력이 확보되야 합니다.

과목 ● 설법방법론, 실기훈련, 설득, 상담기법
● 음성, 태도, 修辭, 원고작성법, 회의진행법 등

연 수 안 내
▶기 간 : 2개월 과정 ※수시접수
▶강 의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장 소 : 본 연수원 ▶지도교수 : 金哲會 박사
※출장 개인지도 가능합니다※

◆ 문의 및 신청 ◆
☎ 02)747-1567 / 02)737-1567
H · P 011)248-1567

韓國說法研修院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F)

화엄기도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고통과 괴로움은 자신이
지은 죄
병의 원인은 인연
따라 오는 법
고침도 인연 따라
낫는 법입니다.



■적용사항 : 원인 모를 병고
마음 병(정신)
■문 의 : 031-336-3734
011-9711-3734

경기도 용인시 중앙동 325-8
해 원 사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스님) 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용린佛字체'
반야심경 8폭 병풍 후면 달마그림 특별 할인 보급



100% 경면주서로 쓴 반야심경 달마도

2000년 대통령상 수상하신 운장법사의 진품명품 TV에서 방영된 달마대사(붓자 용자)

승곡 소장하여 활 기장 고귀한 진품 명품

신기 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그림 龍자그림(수백과 차단)특별보시!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한국 수백과 방지 총연합회인증 100% 효과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의 전화 : (033) 766-0057 FAX (033)766-0058
www.korea-art-gallery.org E-mail unjang21@kornet21.net
※오방의 기가 강하게 흐르는 덕희산 운장사 원만성취 영험기도도량

●주문신청방법 우체국 201509-01-002545 운장사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영험기도도량 雲藏寺 운장선원
韓國佛教藝術文化院



◇김길상씨는 폐교된 초등학교에 참선기도도량 금계사를 개원했다.


◇전주시 효자동에 개교한 거마평포교원 법회 모습.

전북불교대학 두 동문 사찰·포교원 열어 전법

불교대학을 졸업한 동문들이 지역에서 사찰과 포교당을 잇달아 개원, 적극적인 포교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길상(61,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씨와 태기준(46, 전주시 효자동) 씨가 그 주인공. 전북불교대학(학장 강건기)을 5기와 11기로 각각 졸업한 이들은 불교대에서 배운 가르침을 바탕으로 바른 법을 알리는 도량으로 키워나가고 있다.

폐교된 초등학교 매입 금계사 건립

김길상씨(5기) **태기준씨(11기)**

전주시내에 20평 거마평 포교원

김길상씨는 지난 달 12일 전북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에 금계사를 건립, 낙성 및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불교의 대중화를 발원한 김씨는 지난해 폐교(前 진서초등학교)를 매입해 일부를 요사로 활용하고 18평 규모의 대웅전과 응향전을 새로 증축해 불자들을 위해 개방할 예정이다.

평생 모은 재산을 도량 건립을 위해 보시한 김씨는 중생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수행할 수 있는 열린 도량으로 만들 방침이다.

김 씨는 "부처님에게 받은 은혜를 어떻게 회향할까 고민하다가 사람들에게 부처님법을 만날 수 있는 도량을 여는 일이 여법할 것 같아 금계사를 짓게 됐다"며 "아직 부처님법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금계사에서 불법을 배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주시 효자동에 20평 규모의 '전북불교 거마평포교원'을 개원한 태기준씨는 도심에 위치한 이점을 살려 운영은 재가불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위원장 최종순)가 맡아, 어린이법회와 시민선방 등을 개설할 예정으로 있다. 운영도 재가불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위임했다. 개인 소유보다는 대중 포교장으로 쓰였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98년 전북불교대학에 입학한 이후 매일 새벽예불과 108배를 해 온 태씨는 전법사회 총무를 맡아 군포교에 앞장서는 등 깊은 신심으로 주변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정혜사 지용스님의 지도로 꾸준히 참선 수행을 해오고 있으며,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부인이 태씨의 신심에 감동돼 불교에 귀의할 정도로 수행에 열심이다.

태씨는 "재가불자들이 포교원을 운영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거마평포교원을 청소년과 병고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힘이 되는 포교원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계사 (063)581-7265, 거마평포교원 016-685-3628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담양 죽림정사 인근 대규모 의료장비공장 추진

비구니 참선도량 환경훼손

담양 추월산 죽림정사 인근에 대규모 의료장비 생산공장 건설이 계획되고 있어 비구니 참선도량의 수행환경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

의료장비회사인 참세상의료기상사가 추월산 바로 밑인 담양군 용면 쌍태리에 2만4천평 규모의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이에 따라 최근 도로 확대 포장 공사 때문에 몸살을 알았던 추월산은 대규모 공장이 들어섬에 따라 더욱 심각한 자연환경 파괴에 처하게 됐다.

죽림정사 주지 종헌스님은 "건설이 추진 중인 공장은 죽림정사에서 10m밖에 떨어지지 않아 사찰 수행환경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회사가 8만평을 추가로 매입해 더 큰 규모의 공장을 짓는 것도 계획하고 있어서 추월산이 크게 손상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죽림정사는 아직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죽림정사는 담양군 주민들을 상대로 반대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환경부 탄원서 제출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중이다. 또한 죽림정사는 환경단체들과 연대해 이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죽림정사는 결제 때마다 30여 비구니 스님들이 정진하는 선원(수선사)를 둔 참선도량이다. (011)9072-5511

강유신 기자

부산 삼광사, 한의학과정 개설

매주 금요일 개론·음양오행이론 등 강의

부산 삼광사(주지 도원)는 6일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한의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삼광한의학과정을 개설했다.

삼광사 문화실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6개월 동안 진행되는 삼광한의학과정은 한의학 개론, 음양오행의 이해, 체질에 따른 건강관리 등 한의학 전반에 대한 이론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의를 맡은 박동일 동의대 한의학과 교수는 "한의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곧바로 가족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직결된다"며 "한의학과정을 통해 약물 오남용을 막고 올바른 건강관을 정립해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가꾸어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삼광한의학 과정은 그동안 삼광사가 진행해온 삼광한글학교, 삼광서예교실, 삼광한문교실 등과 함께 불자들을 위한 평생 교육의 장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고령층이 주로 참여하는 삼광한글학교와 달리 삼광한의학과정은 이미 등록을 마친 70명의 수강생들이 20대부터 60대까지의 중장년층에 인기가 높다.

6일 열린 개강식에서 삼광사 주지 도원스님은 "몸과 마음의 조화를 중요시 하는 한의학 강좌를 통해 불자들이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관리하며 불자로서의 정진에 도움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강좌 개설의 취지를 밝혔다. (051)808-7111

부산=천미희 기자

목탁소리 범어사가 바로서야

천 미 희 (부산 주재기자)

범어사가 또다시 흔들리고 있다. 조계종 제14교구 본사 범어사의 내분과 갈등이 부산 불교계 전반을 흔들어 놓는 강풍이 되어 불어닥치고 있다. 1300년 역사를 자랑하며 부산지역 불심의 근원지를 이루어왔던 범어사의 계속되는 내분이 부산불교의 중심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문화재보수비 국고보조금 횡령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터진 이후 지혜롭고 책임있는 해결을 기다려왔던 불자들의 실망과 분노는 한계를 넘어섰다. 차기 주지 다툼처럼 세간에 비화되면서 장기화되고 있는 범어사 사태를 지켜보며 많은 불자들이 범어사에 등을 돌렸다. 부산 불교계의 많은 현안들은 범어사의 역할 마비로 해결의 힘을 얻지 못하고 표류 중이다. 아시안게임, 금정산 고속철 관통 반대 등 부산의 크고 작은 현안에서 핵심 역할을 해야할 범어사가 집안 단속도 못하는 이름뿐인 본사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범어사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린 장본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범어사를 수행의 터전으로 삼으며 도량을 가꾸어온 스님들이다. "범어사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스님들이 문제지"라는 세간의 질타는 그만큼 불자들이 범어사 문제 해결을 위해 스님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제 범어사 스님들은 어떠한 명분을 위해서든 상호비방이나, 세간법에 의지해 불교집안의 일을 해결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불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많은 사부대중들은 범어사 문중 스님들이 하루빨리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출가본연의 정신을 되찾아 범어사를 부산불교의 근본도량으로 우뚝 세우길 기대한다. 그것만이 선찰대본산으로, 슬한 선지식들을 배출한 범어사의 위상을 되찾는 길이요, 부산불교가 바로 설 수 있는 뿌리를 굳건히 하는 길인 까닭이다.

불교복지회관 건립추진

마산 정법사, 무료급식소·문화공간 등 들어서

경남 마산시 정법사(주지 지태)가 대웅전과 무료급식소 등을 포함한는 불교문화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한다.

현재의 설법전 자리에 세워질 불교문화복지회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무료급식소(지하), 사무실·소극장(1층), 결혼식장·세미나실·취미활동공간(2층), 만불전(3층), 대웅전(4층)이 각각 들어서게 된다.

이같은 대규모 불사를 위해 지난 8월부터 불자들의 원력을 모으기 위한 천일기도법회를 갖고 있는 정법사는 8월 31일 마산 로얄호텔 2층 연회장에서 각계 1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불교문화복지회관 건립추진위원회' 창립대회를 갖고 시인 이광석씨를 추진위원장에 추대했다. (055)246-8393

부산=천미희 기자



◇대구 동화사 스님들과 신도들이 2일 대구 국채보상공원 인근 도로에서 교통안전 가두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자비운전으로 교통사고 줄입시다"

동화사 가두캠페인

대구 동화사(주지 지성)가 '자비운전 실천하여 교통사고 줄입시다'를 슬로건으로 3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교통안전 가두 캠페인에 나섰다.

2일 자비안전 어깨띠를 두른 동화사의 스님과 볼자들은 대구 국채보상공원과 수성구 범어네거리, 동구 큰고개 오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량과 운전자들에게 교통안전 전단과 스티커, 단주 등을 나눠주며 교통사고 없는 거리 조성을 기원했다.

특히 불교의 5계를 5가지 교통안전 실천사항으로 재해석한 내용의 교통안전 전단은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동화사는 계속해서 이달 28일과 다음달 26일에도 교통안전 캠페인에 나서고, 이달 30일까지 교통안전 표어와 수기도 공모해 다음달 20일 시상할 계획이다.

대구=박원구 기자

동국대 정각원 대형괘불 봉안

동국대 정각원(원장 법산)은 5일 교내 중강당에서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도원 스님, 동국대 이사장 녹원 스님, 송석구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괘불탱화 점안식을 봉행했다.

정각원은 해마다 중강당에서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춘계 수계식을 봉행해 오고 있다. 이날 봉안한 가로 3m 세로 6m의 대형 괘불은 춘계 수계식 때 모실 계획이다.

권형진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동양의학에 약재로 쓰는 나무의 액기스로 만든
대나무수액 시트
(우리대나무죽초시트)
발에 붙이면 건강해 집니다
마디식물대나무가
관절(마디)를 돕는다
발바닥은 인체반사구의
집합소 죽초가 목초보다
성분이 강하다
※ 불자님께 사은 선물
100매 구입시 W90,000 수량이 한정된
숯팔지 9미리 단주를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사은품
① 45,000원 상당의 보석같이 단단한 비장탄으로 깍은 수가공품 단주
② 책증정 : 병을 고치려면 먼저독을 빼라
숯을 전문연구개발하는
한국목탄연구소 02)925-0300
송금 조흥은행 359-03-004847

오키나와 해양심층탈염음료
「신카이」한국상륙
TTS 타리메스정맥
한국·일본 매스컴들이 주목하는
바로 그 해양심층탈염음료가 「신카이」브랜드로
한국시장에 첫선을 보입니다
미네랄음료 「신카이」는 해양심층탈염음료 중 가장 뛰어난 건강음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신카이(해양심층탈염음료)"는 태양이 미치지않는 수심 800M 깊이 북극에서 곧바로 내려오는 오키나와 바다에서 시막 초의 오아시스라고 불리우는 산호초의 퇴적지층을 통과하고, 전혀 오염도 되지않아 맑고 깨끗하며, 살아있는 수많은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천자 생산되고 있는 해양심층탈염음료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건강 음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건강음료 피부미용에…
1일 200cc의 컵으로 2~3잔을 꾸준히 매일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물1잔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피부미용 및 악 복용시에도 좋습니다
건강요리에…
밥을 지을 때 물량의 15%정도 신카이를 사용하시고, 된장국에도 신카이로만 또는 절반을 사용하십시오. 조리시 물로서 연체리도 적절히 사용하면 좋습니다
각종 식음료 혼합물로…
냉차, 커피 등에 사용하십시오. 특히, 위스키 등 혼합물로 사용하시면 숙취해소에 좋으며, 입욕으로 얼려 쥬스 등에 이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SBS-TV 대국민 약속 ★ 물은 생명이다 ★ 방영
-「무한한 청정자원, 해양심층수」 2001.10.12
-「심층수의 기적 깊은 열도를 가다」 1편 변화하는 일본인의 식탁 2001.11.9
-「심층수의 기적 깊은 열도를 가다」 2편 고시와로아마의 신화 2001.11.16
KBS-TV ★ 일요스페셜 ★ 방영
-「신비의 물 해양심층수」편 2002.4.28
제품구입 및 대리점 상담문의 02-795-1673

한국산 가시오가피의 대명사
함박재배종 가시오가피
■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시킨 함박재 농장!
함박재농장은 멸종위기에 처해 보호야생식물(자연환경보전법 제2조)로지정되어 있을 만큼 희귀한 가시오가피 대량재배(10만평, 50만주)에 성공하였습니다.
-KBS, MBC뉴스에 보도 됨-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한 강 훈 구 대표
■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상품력과 기술력, 그리고 QM시스템 구축도 및 활용도를 심사받아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 제 2076호로 선정 되었습니다.
■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20여년간 가시오가피 살리기에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제품구입시 가시오가피와 일반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 100%국내산 가시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가시오가피
일반오가피
지금 전화주시면 가시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KNS (주)한국자연과학
www.ogapiland.co.kr
전화상담 및 구입문의
TEL : (02)2272-4900

문화재 286점 청주박물관 기증

김연호씨(진주동물병원장) 12년간 사재털어 수집한 것



◇4일 국립 청주박물관 관장실에서 김연호 원장(왼쪽)이 이내옥 관장에게 문화재 286점을 기증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립 청주박물관

무소유 실천한것 뿐… '10만배거사' 별호

"불교문화재도 수집 성보박물관에 기증"

신심 깊은 한 불자가 10년 넘게 수집한 문화재를 지역 박물관에 기증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김연호 진주동물병원장(51 · 충북 제천시 중앙동). 지난 90년부터 12년간 골동품상과 지역 내 농가 등을 돌며 사재를 털어 모은 문화재 286점을 9월 4일 국립 청주박물관에 기증했다.

김 원장이 기증한 문화재는 충북지역에서 수집한 것으로,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토기를 비롯해, 연적, 벼루, 민속품, 회화류, 서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특히 민화 계통의 그림을 담은 작가 미상의 8폭 병풍, 위사 강필주의 노안도(蘆雁圖), 우암 송시열과 직계 제자 권상하의 서간, 완산 이삼만의 서첩 등은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을 평가받고 있다.

청주박물관측은 김원장의 아호를 딴 '목청(牧靑)기념실'을 만들어 기증유물 상설 전시장을 열 계획이다.

"'준 것은 영원히 남고, 가진 것은 영원히 없어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무소유 정신을 실천한 것 뿐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문화재의 향기를 보여주고 싶어 또 기증하게 됐습니다."

지난 90년에도 문화재 360점을 청주박물관에 기증했던 김 원장. 그가 문화재 수집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한국불교대학생연합회 활동한 1972년부터다. 당시 선배였던 김상현 교수(동국대 사학과)의 사찰 문화재 사랑은 김 원장이 독실한 불자와 문화재 수집 매니아가 되는 데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

85년에 조계종 포교사가 된 김 원장은 제천지역 불교계에서 '10만배 거사'로도 유명하다. 제천불교거사림회 창립 멤버이기도 한 김 원장은 98년 9월 4일부터 50일간 10만배 정진기도를 회향하고, 주위에도 '절 수행' 권유를 많이 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회향할 때의 느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이 자비심으로 녹아들 때 느꼈던 법열은 제가 불자로서 사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삶의 두 축이 된 '불교신행'과 '문화재 수집'. 김 원장은 또 다른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98년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탱화 1점과 고려전돌 2점을 기증했던 김 원장은 앞으로 불교관련 문화재를 집중 수집해, 불교 성보박물관에 기증할 생각이다. 또 사경, 다도 등의 불교문화의 정수를 생활 속에서 배울 수 있도록 '불교문화원' 설립도 계획하고 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도와주세요

급성백혈병 불자 생활비 마련 애태워

5천만원 넘는 골수이식비 엄두 못내



◇백혈병을 앓고있는 장병학씨.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서울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한 불자가 병원비는커녕 생활마저 어렵게 돼 애를 태우고 있다.

경기 부천에 사는 장병학씨(46)의 불행은 IMF한파가 몰아쳤을 때부터 시작됐다. 운영하던 구멍가게가 인근 대형백화점이 들어서게 되면서 문을 닫게 되자, 장씨는 부동산 사무실로, 아내 문선영씨(44)는 공장과 식당을 전전하며 딸 현우(14)양, 지은(11)양과 떨어져 살며 '이산가족' 신세가 되어버린 적도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2월, 장씨는 뜻하지 않는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까지 받았다. 매달 450만원 넘는 치료비를 충당하다보니 이들 가족은 현재 아내 문씨의 친언니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 마땅한 수입원 없이 영세민 혜택을 받아가며 힘겹게 생활하는 처지에, 5천만원이 넘는 골수 이식수술비는 이들 가족의 꿈까지 앗아가 버렸다.

부천 선재마을 능호 스님은 "장 거사는 항상 반야심경과 자비도량 참법을 읽으며 가족신행을 꾸준히 실천해온 신심 깊은 불자"라며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도움을 주실 분은 생명나눔실천회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 (예금주 생명나눔)을 이용하면 된다. (02)734-8050 김철우 기자

탈북자 포교사업 내년 본격화

포교사단, 통일특위 구성 하나원 정기법회

최근 탈북자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포교원과 포교사단이 내년부터 탈북자 포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

매주 목요일 정부의 제1차 수용기관에서 탈북자들(20여명)을 대상으로 법회 및 좌담회를 진행해 온 포교사단(단장 김대중)은 최근 통일특별위원회를 구성, 10월부터 안양 하나원에서도 정기법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탈북자 지원프로그램 마련에 나선다.

포교사단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매주 일요일 안성 하나원에서 정기법회 및 좌담을 실시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법당도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조만간 탈북자 증가로 새로 개설되는 성남 하나원이 개원되면, 이 곳에서도 비슷한 같은 수준의 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 하나원에서 국내 정착교육을 받은 후에도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지역 사찰 및 지역 포교사단과 연계해 신행프로그램을 개발, 정신적 물적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이달 말 첫 모임을 갖는 김용익 통일특별위원장은 "매년 상당수의 탈북자들이 중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고 있으나 이중 불교를 자신의 종교로 선택하는 경우는 2001년 약 600명중 2.3%에 불과하고 기독교가 65%이상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 현실"이라며 포교사단 차원에서 통일특위를 구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탈북자 포교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포교사단은 탈북자가 한국에 입국해 몇단계를 거쳐 정착하는 과정에서 불교를 알리며 포교활동을 해왔다. 김재경 기자

국고횡령혐의 석호스님

징역 2년6월 실형선고

문화재 보수공사비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던 범어사 석호스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는 4일 범어사내 문화재 보수공사를 하면서 공사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가로부터 23억원을 더타내 가로챈 혐의를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는 1심때의 징역 2년형보다 높은 형량이다. 한명우 기자

서울불교대학원대학 2일 개교

목정배총장 취임, "학행일여 대학으로 키울것"



◇ 2일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개교식에서 보문학원 이사장 덕해스님을 비롯한 주요내빈이 테이프를 절단하고 있다.(왼쪽부터 녹원 · 도원 · 덕해스님, 목정배 총장, 한인수 금천구청장, 종범스님)

학교법인 보문학원(이사장 덕해)은 9월 2일 서울 금천구 득산동 학교 1층 강당에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개교식 및 목정배 총장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학사일정에 들어갔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도원스님,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스님,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스님, 금천구청 한인수 청장 등을 비롯해 사부대중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개교식에서 이사장 덕해스님은 개교사를 통해 "지금까지 대학은 학문적 연구에만 힘써 왔을 뿐 현장에서 자비를 구현하는데는 소홀했다"며 "이번에 개교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는 지혜와 자비를 갖춘 인재 양성은 물론, 시대가 요청하는 진정한 보살을 배출 하겠다"고 말했다.

초대 총장으로 부임한 목정배 박사는 취임사를 통해 "우리 불교인은 불성계발과 자아확립, 자비행 등을 끊임없이 정진해야 한다"며 "대승적 보살바라밀을 실천하고, 배움과 수행을 함께하는 학행일여(學行一如)의 대학으로 만드는데 정성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문을 연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는 연면적 530여 평,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로, 대학행정실, 강당, 강의실, 교수 연구실, 도서관, 체육실 등을 갖추고 있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는 개교 첫해인 올해 불교명상심리학과(불교교학, 명상심리치료학 전공)와 상담심리학과(상담심리학, 요가치료학 전공) 2개 석사과정에 총 50명을 선발했으며, 3일 입학식에 이어 첫 강의를 시작했다. (02)808-6582

김철우 기자

건설사측, "위원회인원 줄이자"주장

북한산도로 노선조사위 구성 지연

북한산 관통도로 대안노선 검토를 위해 불교계와 건설사측이 공동으로 노선조사위를 구성키로 한 것과 관련해, 건설회사측이 위원회 인원을 줄이자고 주장하고 나서 조사위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조계종 공대위는 5일 "건설사 측이 전문가 위주로 노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의해 옴에 따라 4일 인선을 끝내기로 약속했던 조사위 구성이 예정보다 늦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일 예정됐던 노선조사위원회 첫 회의 일정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조계종 공대위 김용구 간사는 "불교계와 시민단체 인사들을 노선조사위원회에서 배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최대한 여론 수렴을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불교복지관 한가위행사 푸짐

무료한방진료 · 독거노인 위로잔치등

소년소녀가장 돕기 쌀모으기 캠페인

열흘 앞으로 다가온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는 한가위 행사가 불교계 복지관에서 다채롭게 마련되고 있다.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9월 한 달을 '한가위 특별프로그램 운영의 달'로 정하고 지난 1일부터 무의탁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돕기 '사랑의 쌀 모으기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17일 오전10시 복지관 앞마당에서 '무의탁 어르신 칠순잔치'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무료 한방진료, 영정사진 촬영, 송편 만들기 등의 다양한 행사도 진행한다 (02)385-1351.

포항 중리종합사회복지관은 제사상을 단체로 구입해 어려운 가정에 나눠 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문수종합사회복지관은 17일 합동차례와 무료공양의 시간을 마련, 소외이웃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19일 치매 중풍 주간보호실 이용어르신을 대상으로 '은다래 한가위 잔치'를 벌인다 (02)929-7950. 또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은 17일 주간보호센터 1층에서 '가족대항 윷놀이 대회'를 연다 (031)919-8677.

한편, 각 복지시설과 복지관에서는 후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경남 김해 보현행원 재가노인복지센터는 추석선물 보내기 후원물품 접수를 받고 있다 (055)329-0070. 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무의탁독거노인 생일잔치 행사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02)2203-3677. 본동종합복지관은 9월 10일 복지기금 마련과 생필품 지원을 위한 자선바자회 자리를 마련한다 (02)817-8052.

김철우 기자

당신의 전생을 보여드립니다





당신의 슬픔과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당신의 전생에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물음에 대한 진정한 답을 '최면-전생'을 통하여 찾아보십시오.

점(占)과 철학으로 사람의 운명을 상담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최면-전생 요법으로 당신의 전생과 미래의 삶의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이생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영혼의 완성을 위한 배움터 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각각의 전생의 카르마(業)에 의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정되어져 있는 영혼의 프로그램을 최면-전생을 통하여 확인하십시오.

최면전생 특강 내용

(1) 최면으로 하는 제령 천도(天道) - 자신의 몸속에 있는 영가(靈歌)나 빙의령(憑依靈)이 영계로 떠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법
(2) 전생퇴행 최면 - 무의식속에 기억되어져 있는 전생의 사건과 경험들을 재생시켜서 보게하는 기법
(3) 원격 제령 최면
제 3자가 최면에 들어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천도 하는 기법. 최면 당사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볼수 있음.
(4) 최면 파동요법
사랑이나 영가는 저마다 고유한 주파수(영파(靈波))를 가지고 있는데 영혼파동기법으로 그사이클에 초점을 맞추어 영가(靈歌)를 불러내어 제령 천도하는 기법. 영가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떠나 가는 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법.

강의 안내

◎ 개강 : 수시접수 ◎ 시간 : 매주 토요일 3시간, 3개월 과정 ◎ 특강 : 지역별 그룹특강 가능

※ 저서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었다.'

법윤 선생님 약력

2001년 SBS '호기심 천국'
-'최면술의 놀라운 진실' 출연
2002년 KBS 'VJ특공대'
-'최면의 세계' 출연
동래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졸업
세계 아미포 기공협회 회장
동방 최면전생 연구소 소장
현 '삼경그룹' 고문으로 재직

동 방 최 면 전 생 연 구 소

◆ 문 의 처 : 017-587-0777, 051) 806-8500, 817-6156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조선의 국찰(國刹) 회암사(檜巖寺)가 역사의 광풍 속에 침몰하던 날 밤 천보산 능선의 청솔들은 파랗게 몸을 떨었을 것이다. 억조창생을 기원하던 조선 왕실의 염원도 불국정토를 위해 향화를 사르던 3천 사문의 비원도 치솟는 불길과 함께 한 줌의 재로 사위던 밤, 구름은 서편 하늘을 향해 달렸을 것이고 바람은 텅 빈 일주문 밖 전나무 가지를 치며 울었을 것이다.

폐사지를 찾아서

장지현의

잊혀진가람 탐험

양주 회암사터 <상>



400년전 위용 드러낸 조선國刹



◇전각만도 262칸으로 조선시대 국찰로의 위용이 당당했던 회암사터. 폐사된지 400여년만에 한창 발굴중이다.

전각 262칸·15척불상 7·10척 관음상 모셔

1998년부터 발굴…깨진 불두·도자기 산재

지공·나옹·무학 3師 부도 법담을 나누듯

마을이 가까워 질수록 숲의 나무들은 낫질 당한 흔적이 많다고 하던가. 회암사지 입구의 울울한 전나무들은 무심한 농부의 낫질에 더부자란 세월의 가지를 잘리기도 했고, 전나무 스스로 삭정이로 제 몸의 상처를 허물기도 하였다. 때 되면 찾는 이 없어도 흐드러지게 함박웃음을 터트리며 자수법탁하면 산벗나무들도 더러는 발굴의 삽날에 발등이 찍히기도 하였고, 더러는 저만치 물러서 때되면 또다시 계곡이 푹 차도록 파안대소할 그 날을 꿈꾸며 법레 먹은 이파리들을 쓰다듬고 있다.

조선 왕조의 원찰이며, 이 나라의 국찰이라고 까지 불렸던 회암사는 폐사된 지 400여년 만에 발굴작업이 한창이다. 두껍게 쌓였던 솔잎을 걷워내고 함부로 일가를 이뤘던 달개비 꽃넝쿨도 들어내니 창졸 간에 당한 폐허의 순간을 기억하기 싫은지 머리가 깨진 불두(佛頭)는 담장지 밑에 얼굴을 파묻고 있다. 보광전 추녀 끝에 매달렸던 청동금탁(靑銅金鐸)도 피울음을 삼킨 그대로 입안 가득 검푸른 녹을 머금고 있다. 대궐의 모양을 본떠 짓고, 태조 이성계가 상왕으로 물러나 회한의 가슴을 쓰러내리며 말년을 기대었기에 왕실의 살림살이가 그대로 옮겨진듯 청기와, 발, 잔, 합 등 분청사기, 청화백자, 철화백자가 깨지고 부서진 채 지하 곳곳에 탑을 이루고 있다.

의정부 북쪽,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회암리 산 14-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회암사터는 1964년 사적 128호로 지정되었다. 나옹선사의 제자 각전(覺田)스님이 불사를 모두 마쳤을 때는 무려 전각이 262칸이 되었고, 15척이 되는 불상 7구와 10척의 관음상이 모셔졌다고 한다. 이 기록은 1998년부터 시작된 발굴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1단지에부터 8단지까지 드러난 회암사의 위용은 목은 이색이 〈회암사 주조기〉에서 극찬한 바와 같이 "집과 그 모양새가 미려하여 동방에서 첫 번째"라고 한 표현이 과장이 아님을 짐작케 한다.

회암사터의 순례는 그 명성이 국찰인 만큼 아무래도 한 두번의 발걸음으로 끝내기는 벅차기만 하다. 아직도 발굴작업이 진행중인 까닭도 있지만 조금씩 비밀을 드러내는 폐사에 얽힌 사연이나 먼지 덮인 문헌의 기록들도 어느 것 하나 예사롭지가 않다. 우선은 이 곳이 인도 땅 유서깊은 불교의 명소인 나란다 대학의 지형을 닮은 길지임을 알고 '회암사가 다시 서는 날 불법과 나라가 흥왕하리라' 고 예언한 지공화상을 비롯 삼사(三師)를 찾아가 그동안 수시로 회암사 터를 배회했던 연유를 고해야 할 것 같다.

1328년 고려 충숙왕 15년. 고려의 국경으로 들어 온 그는 금강산 법기도량, 개경 갑로사(甲露寺), 양산 통도사 등 전국의 유명 대찰들을 방문하며 최초의 외국인 승려가 되어 고려불교에 새바람을 일으켰다. 지공화상이 전국순회법회를 마치고 원나라로 돌아가던 그해(1328년), 그는 회암사 지형이 '삼산양수(三山兩水)'로 마치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인도 땅 나란다사와 흡사함을 발견하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의 충격은 그로부터 20년 후에 중국 유학길에 자신을 찾아온 고려의 눈밝은 납자 나옹화상을 제자로 받아들이면서 꿈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지공화상의 법을 부촉하여 회암사를 임약 전국 제일의 중심사찰로 중수한 고려불교의 거목 혜근(慧勤) 나옹(懶翁)선사(1920~1376)는 경상북도 영해 사람이다. 나옹스님은 고려로 돌아와 오대산 상두암에 머물렀으나 공민왕에 의해 왕사로 봉해져 회암사에 머물게 되었다. 나옹선사가 회암사에 주석하며 스승 지공화상의 원에 따라 대규모 중창불사와 함께 교화전법에 심혈을 기울이자 회암사는 곧 전국의 중심사찰로 주목받게 되었으며 국운과 함께 어려움을 겪던 고려 불교에 활력소를 불어넣게 되었다. 그러나 나옹선사는 4년에 걸쳐 중창불사를 마치고 회향법회를 올리던 날 왕명에 따라 회암사를 떠나 밀양 영원사로 가게되었는데 세연이 다하여 여주 신륵사에서 입적하였다. 세수 57세였다. 격변기 고려말 불교를 지키며 사부대중을 정신적으로 이끌었던 나옹스님은 고도의 비유와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 문학성이 높이 평가되는 게송문집 〈나옹집〉 한권을 남겼다. 오늘날 천불가 인기곡으로 널리 불리는 노래중 하나인 '청산은 나를 보고' 도 스님의 작품으로 알려지고 있다.



◇(왼쪽부터)무학 · 지공 · 나옹 스님 진영. 회암사와 깊은 인연을 맺고있는 스님들이다. 이 진영은 1904년 선암사에서 조성 봉안했다.



◇지공 · 나옹 · 무학 스님의 부도(왼쪽부터).

지공, 나옹에 이어 회암사의 법맥을 이은 또 한사람의 선지식은 이태조를 도와 조선건국에 깊이 관여한 바로 자초(自超) 무학(無學)대사(1327~1405)이다. 무학대사가 스승인 나옹선사를 처음으로 만난 것은 이역 땅 중국의 법천사에서였다. 그 역시 중국 만행 길에 올라 지공선사를 찾았는데 "3천8백리 밖에서 친히 화상의 진면목을 보았다" 고 이르자 지공선사는 그가 벌써 도를 이룬 것을 알고 "고려인은 모두 역적 놈들을 죽여버린다" 고 하였다. 나옹스님과 함께 지공스님의 법제자이자 스승으로 법연을 맺은 두 선지식의 법맥전수 의식은 만난지 2년 뒤 고려에 귀국한 다음 천성산 원효암에서 이루어졌다.

알려진 대로 무학대사와 이성계는, 설봉산 토굴에 머물 때 무너진 집에서 서까래를 지고 나오는 이성계의 등극을 암시하는 해몽을 해준 인연으로 조선 건국의 주역과 조연자가 되어 깊은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성계가 왕위를 태종에게 물려주고 권력의 무상함을 되새기며 위로받던 곳도 무학대사의 체취가 서려있던 회암사였다. 1398년 무학대사도 왕사의 자리를 내놓고 금강산에 들어가 머물다가 1405년 금강산 금장암에서 열반에 들었다. 세수 78세였으며, 그 문하에 사명당, 함허 기화와 같은 걸출한 제자들을 두었다.

회암사터에서 왼쪽으로 800여 m를 올라가면 순조 28년(1828)에 창건한 오늘의 회암사에 이른다. 본래의 회암사가 존재했다면 부속 암자정도로 적당했을법한 아담한 절이다. 절 이름을 이미 폐사가 된 회암사라 한 것은 회암사 재건의 의미를 지닌 것인데, 1922년부터 회암사 삼사의 진영을 영성각에 모시고 매년 다례를 모시고 있어 이 쉬운대로 옛절의 명맥을 더듬게 해준다.

딱따구리 생나무 찍는 소리가 목탁소리처럼 계곡을 울리는 산 능선에는 4~5m의 간격을 두고 삼사의 부도가 사이 좋게 자리잡고 있다. 옛주인들의 자취도 향훈도 끊겼으나 도란도란 법담을 나누는 듯한 정겨운 모습은 쉽게 발길을 옮기지 못하게 한다.

<시인 · 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사진=고영배 기자

